아르센 뤼팽의 고백

Les Confidences d’Arsène Lupin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3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s Confidences d'Arsène Lupin » (1913)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s Confidences d'Arsène Lupin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뤼팽, 뭐든 하나 들려주시오."

"에이, 제가 뭐라고 해 주라는 거요? 제 인생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작은 책상 옆 소파에 반쯤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뤼팽이 말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외쳤다. "당신의 편지 하나가 신문사에 실리면서, 당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또 다른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 그런 건 아무 재미도 없어."

"재미없다고요? 니콜라 뒤그리발의 아내에게 오만 프랑을 선물한 일도요? '세 개의 그림' 수수께끼를 어떻게 신비롭게 풀었는지도요?"

"정말 이상한 수수께끼였죠." 뤼팽이 말했다. "제가 제목을 하나 지어 줄까요. '그림자의 상징'."

"그리고 당신의 사회적 성공은요? 방탕한 아르센의 음모라든가! 아니면 착한 일들의 비밀이라든가! 당신이 저에게 자주 언급하시며 '혼례반지', '배회하는 죽음'이라 부르셨던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참으로 늦어진 고백이네요, 불쌍한 뤼팽 님! 자,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그때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뤼팽이었지만, 아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지 않은 시기였다. '뚫린 바늘'과 '813'의 대모험이 일어나기 전, 그런 시점이었다.

프랑스 왕들의 수백 년 된 보물을 차지한다든가, 카이저의 코앞에서 유럽을 털어먹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소박한 작전과 합리적인 이익으로 만족했다. 매일매일 노력하며, 하루하루 악을 저지르기도 했고, 선을 베풀기도 했다. 그는 본성에서부터, 그리고 취미에서부터, 즐기며 감동하는 돈키호테였다.

그가 침묵하자, 나는 다시금 말했다.

"뤼팽, 제발요!"

놀랍게도 그가 대답했다.

"연필 한 자루와 종이 한 장을 가져오시오, 내 친구."

나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그가 그 유명한 페이지들을 내게 일러줄 날이 온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 페이지들에 열정과 자유로움을 가득 담아낸다. 반면 나는 안타깝게도 무거운 설명과 지루한 풀이로 그 빛을 더럽혀야만 한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 숫자를 적어라. 19, 21, 18, 20, 15, 21, 20."

"뭐라고요?"

"적어라, 내가 말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열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가락으로는 동양 담배를 말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숫자를 적어라. 9, 12, 6, 1…"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21."

잠시 침묵이 흐른 뒤,

"20, 6…"

그가 미친 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조금씩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다. 직전까지 무관심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공중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그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는 숫자를 하나씩 외우며 dictation을 이어갔다. 각 숫자 사이에는 긴 여백이 있었다.

"21 – 9 – 18 – 5…"

창밖으로는 오른쪽으로 푸른 하늘 조각과 맞은편 건물 외벽만 보였다. 그곳은 평소처럼 창문이 닫혀 있는 오래된 호텔이었다. 그곳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수년간 내가 바라봐 온 풍경 중 새로울 것도, 눈여겨볼 것도 없었다.

"12 – 5 – 4 – 1."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니, 깨달은 것 같았다.

철학자처럼 냉철한 뤼팽이, 그런 유치한 장난에 시간을 낭비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그는 분명히 저것을 세고 있었다. 오래된 집의 검게 그을린 외벽, 그 이층 높이에서 햇살이 반짝이며 비추고 사라지는 것을.

"14, 7."

뤼팽이 말했다.

잠시 후, 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외벽을 때린 뒤, 또다시 사라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세고 있었다.

"5."

"잘 봤군. 아깝지 않아."

뤼팽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빛이 비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 몸을 내밀었다. 그러곤 소파에 다시 누워 내게 말했다.

"이제 차례야. 숫자를 세어 봐."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알 것 같은 태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게다가 나는 부인할 수 없었다. 건물 정면에 규칙적으로 비치는 빛, 등대 신호처럼 이어지는 빛의 등장과 소멸은 꽤나 신기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그 빛은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거리 옆에 있는 집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해가 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창문을 여닫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작은 손거울로 햇빛을 반사하며 장난치는 것 같았다.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겠지."

나는 잠시 후, 쓸데없는 짓을 강요당해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 봐."

그리고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숫자를 줄줄이 나열했다. 그런데도 해는 내 앞에서 춤을 추었다.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한 리듬으로.

"그리고?"

뤼팽이 더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몇 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렸다. 더 이상 하늘에 빛이 보이지 않자, 내가 농담조로 말했다.

"우리 시간 낭비한 것 같군. 종이에 적힌 숫자 몇 개, 전리품이라곤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

소파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뤼팽이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이 숫자 하나하나를 알파벳의 글자로 바꿔주게. 1은 A, 2는 B, 이런 식으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하지만 인생에는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 더 해보자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멍청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적어 내려갔다. S-U-R-T-O-U-T...

"단어다! 내가 외쳤다.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군."

"계속해 봐, 친구."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이어지는 글자들은 내가 하나하나 떼어내며 다른 단어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문장 전체가 내 눈앞에 줄지어 나타났다.

"다 됐나?" 잠시 후 뤼팽이 물었다.

"다 됐어요! …하지만 철자법이 엉망이네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미완성인 그 문장을 읽었다. 여기 그대로 옮겨 적는다.

"무엇보다도 위험을 피해야 한다. 공격을 피하고, 적의 세력과 맞설 때는 가장 큰 신중함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됐군요! 빛이 밝아졌네요! 정말로, 뤼팽, 이 조언의 줄이 하녀에 의해 엮여진 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뤼팽은 경멸적인 침묵을 깨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종이를 집어 들었다.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그 순간, 우연히 내 시계가 시계로 향했다는 사실을.

시계는 다섯 시 십팔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뤼팽은 여전히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쥔 채. 나는 그의 아주 젊은 얼굴을 여유 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숙련된 관찰자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놀라울 만큼 표정이 유연한 얼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확실한 방패였다.

마음대로 변하는 얼굴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는가? 분장 같은 도움 없이도, 순간순간 바뀌는 표정이 마치 영구적인 것처럼 보일 때 말이다. 어떤 단서를 따라야 할까?

나는 하나 알고 있었다. 변치 않는 단서가 있었다. 집중할 때 이마에 십자 모양의 작은 주름이 깊게 패이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작은 십자가를 또렷하고 깊게 발견했다.

뤼팽은 종이를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아이들 장난이군."

시계는 다섯 시 반을 알렸다.

"뭐라고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 단 열두 분 만에?"

그는 방 안을 몇 걸음 오가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곤 내게 말했다.

"바론 레프슈타인에게 전화해 주시오. 오늘 밤 열 시에 그의 저택에 갈 거라고 알린다고."

"바론 레프슈타인? 유명한 바론네의 남편이요?"

"당연하지."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나는 완전히 당황해 그에게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뤼팽이 authoritative(권위적인) 제스처로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다시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니, 조용히 하시오. 그에게 알릴 필요는 없소. 더 시급하고, 이상한 일,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도대체 왜 그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을까? 왜 그 문장은…"

그는 재빠르게 지팡이와 모자를 집어 들었다.

"출발합시다.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이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건일세.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을 거라 믿소."

"무언가 아시나요?"

"지금까지라면, 아무것도요."

계단에서 그는 내 팔을 끼며 말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금융가이자 스포츠맨인 레프슈타인 남작. 그의 말 '에트나'가 올해 엡솜 더비와 롱샹 그랑프리를 제패한 그 남작이죠. 레프슈타인 남작은 아내의 손에 희생됐습니다.

아내는 금발과 화려한 의상, 사치스러운 생활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열흘 전, 그녀는 남편에게서 훔친 300만 프랑과 공작 부인 베르니가 맡겨두고 사오라고 했던 다이아몬드, 진주, 보석 컬렉션 전체를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열흘 동안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남작 부인을 쫓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돈과 보석을 뿌리며 도망치기 때문에 추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매번 놓치고 맙니다.

그저께만 해도 벨기에에서 우리 국가적 경찰관, 천재 가니마르 형사가 거대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증거가 너무

도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는 유명한 연극배우 넬리 다벨이었습니다. 남작 부인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반면 레프슈타인 남작은 아내를 찾아낸 이에게 10만 프랑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돈은 이미 공증인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베르니 공작 부인에게 빚을 갚기 위해, 그는 경마장, 오스만 대로에 있는 저택, 그리고 로크앙쿠르에 있는 성채를 한꺼번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은 오늘 오후에 정산된다고요. 내일 자 신문에는 베르니 공작부인이 자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방금 훌륭하게 요약해 주신 이 사건과 그 수수께끼 같은 문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뤼팽은 내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듯했다.

나는 살던 길을 따라 걸었고, 우리는 백오십 미터에서 이백 미터쯤을 더 걸었다. 그때 뤼팽은 보도에서 내려 이미 제법 낡은 건물 하나를 향해 걸어가더니, 그 건물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 건물은 다수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내 계산으로는, 여기서 신호가 보내졌을 겁니다. 아마도 아직 창문이 열린 저 창문에서 말입니다."

"삼층인가요?"

"네."

그는 관리인을 찾아 그곳으로 향했다.

"당신 집 세입자 중에 레프슈타인 남작과 관계된 사람이 있나요?"

"그야 물론이지! 우리 집에 사는 라베르누 씨가 바로 그 남작의 비서이자 집사야. 내가 그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지."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나요?"

"만나신다? 그 불쌍한 분은 많이 아파하셨어요."

"아프다고요?"

"열흘 전부터요. 남작 부인 사건 이후로요. 다음 날 돌아오자마자 고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계셨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시나요?"

"아,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침실 출입을 금지하셨거든요. 제게 방 열쇠까지 거두어가셨어요."

"의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매일 두세 번씩 찾아와 돌보고 있죠. 자, 방금 집을 나섰어요. 스무 분 전쯤이죠. 수염이 회색이고 안경을 쓴, 온몸이 쑤신 듯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오릅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뤼팽이 이미 계단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3층 왼쪽 맞죠?"

"하지만 제가 금지당했어요."

집주인 부인이 따라오며 신음했다.

"그리고 열쇠도 없어요. 의사분이…"

그들은 줄을 서서 세 층을 올랐다. 복도에 다다르자 뤼팽은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냈다. 집주인 부인의 항의를 무시한 채 자물쇠에 집어넣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방 끝,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뤼팽이 재빨리 달려나갔다. 문턱에 서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지나쳤군! 천벌을 받아라!"

여관 주인의 아가씨가 기절하듯 무릎을 꿇었다.

나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반쯤 벗겨진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다리는 구부러지고 팔은 비틀렸으며,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살이 빠진 그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끔찍한 경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죽었습니다."

뤼팽이 빠르게 시체를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없는데!"

나는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뤼팽이 대답했다. 셔츠가 살짝 벌어져 있는 가슴을 가리키며, 붉은 핏방울 두세 개를 보여준 것이었다.

"보시죠. 누군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심장을 찌른 거예요. 저는 '찔렀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상처는 거의 눈에 띄지 않죠. 아주 긴 바늘로 뚫은 구멍처럼 작습니다."

그는 시체를 둘러싼 바닥을 살폈다. 시선을 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작은 주머니 거울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라베르누 씨가 햇살을 받아 공중으로 빛나는 상을 만들며 장난치던 바로 그 거울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하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부르자, 뤼팽이 그녀에게 달려들며 밀쳤다.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곧 당신에게 전화할 테니, 그전에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베르누 씨가 이 거리에 아는 분이 있었죠? 오른쪽, 같은 쪽에요. 아주 친한 사이라고요?"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며, 일러스트 잡지를 서로 돌려보던 친구요."

"그 이름이 뭐죠?"

"뒬라트 씨입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이 거리 92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염이 희고 안경을 쓴 그 노의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베르누 씨가 갑자기 앓아눕던 바로 그날 밤에야 처음 봤습니다."

말을 더 하지 않고, 뤼팽은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갔다. 한 번 더 내려온 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그는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내 아파트 앞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네 집 번호를 더 지나쳐 간 곳, 92번지 앞이었다. 그곳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1층은 주류 상점이었고, 주인은 마침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오는 복도 옆에 있었지.

뤼팽은 그에게 물었다. 돌라트 씨가 집에 있는지 말이지.

"돌라트 씨는 이미 가셨어요. 아마 반 시간쯤 전에요. 아주 초조해하는 모습이었고, 평소엔 안 하시는 행동을 하셨죠. 자동차를 타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나요?"

"어디로 가는지요? 음, 대놓고 말은 하셨으니 비밀도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주소가 뭔지 큰 소리로 외치셨거든요. '경찰청으로'라고요."

뤼팽이 직접 택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바꾸었다. 내가 들은 바로 그의 속삭임이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잖아."

그는 다시 물었다. 뒤를 이어 두알라르 씨가 간 후엔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고.

"네, 한 노신사가 왔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안경을 쓴 분이요. 두알라르 씨 집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뤼팽이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표정은 무거웠다. 그에게 이 문제는 분명히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확신에 차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내 내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직관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지. 다만, 그 직관이라는 게 제법 쓸 만하긴 해."

우리는 대로에 도착했다. 뤼팽은 독서실로 들어가 지난 보름 치 신문을 아주 오래도록 뒤적였다.

가끔씩 그는 중얼거렸다.

"응… 응… 분명 이건 가설일 뿐이야. 하지만 이 가설은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설은, 이미 진리에 한 발짝 다가선 거나 다름없어."

밤이 깊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사이 뤼팽의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손짓이 더 단호해졌다. 활기와 생기가 돌아온 것이다.

우리가 길을 나서자, 그는 하오스만 대로변을 따라 바론 레프슈테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이때의 그는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뤼팽이었다. 행동에 나서고 승리를 거두기로 결심한 뤼팽.

쿠르셀 거리 조금 앞, 우리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바론 레프슈테인은 이 거리와 생토노레 가도 사이에 있는 세 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었다. 기둥과 카리아티드(여인 기둥)로 치장된 정면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

"멈춰!" 뤼팽이 갑자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내 가설을 확인시켜 주는 또 하나의 증거야…"

"무슨 증거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입니다…… 그게 충분하죠."

그는 옷깃을 세우고 부드러운 모자 챙을 눌러썼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크레블로! 싸움은 치열할 게군. 자, 친구, 자러 가라. 내일 내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마. 만약 내가 목숨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뭐?"

"하하! 저는 큰 돈을 건지고 있소. 우선은 체포. 하지만 그건 별것 아니오. 다음은 죽음. 그것이야말로 더 나쁜 일이오. 그런데……"

그가 내 어깨를 힘껏 잡았다.

"제가 건지고 있는 세 번째 것이 있소. 바로 이백만 프랑이오. 이백만 프랑이라는 첫 원금을 손에 쥐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보여줄 테니. 잘 자라, 친구. 만약 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낭송조로 말했다.

"묘지에 버드나무를 심어라. 슬피 우는 그 나뭇잎을 사랑하노라……"

나는 곧장 그곳을 떠났다. 이어서는 그날 밤 그가 기꺼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삼 분 후, 뤼팽은 레프슈타인 호텔 문앞에서 종을 울렸다.

"자작께서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종업원은 낯선 이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자작께서는 지금 시간을 내어 뵙지 못합니다."

"자작께서 집사 라베르누의 살해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오셨다고 전하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려라, 안투안."

단호하게 내린 지시에 따라 종업원은 뤼팽을 1층으로 안내했다.

문턱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 곳이었다. 뤼팽은 그 남자를 알아봤다. 신문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 남자였다. 바론 레프슈타인. 유명한 바론네의 남편이자, 올해 가장 유명한 말 '에트나'의 주인이었다.

그는 키가 매우 컸다. 어깨는 네모반듯했다. 얼굴은 완전히 면도했고, 표정은 친절했다. 거의 미소 띤 듯한 분위기였다. 눈빛의 슬픔이 그 분위기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단정하게 재단된 옷을 입었다. 갈색 벨벳 조끼를 입었고, 넥타이에는 진주 장식을 달았다. 뤼팽은 그 진주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레프슈타인은 뤼팽을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방은 넓었다. 창문이 세 개 있었다. 책장, 녹색 선반, 미국식 책상, 금고가 놓여 있었다. 그는 즉시, 분주한 태도로 물었다.

"무언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남작님."

"이 불쌍한 라베르누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요?"

"네, 남작님. 그리고 남작부인께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제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남작이 의자를 한 걸음 내밀었다. 뤼팽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남작님, 상황은 매우 중대합니다. 저는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남작님, 서론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다섯 전부터 의사의 지시로 거의 감금 상태에 있던 라베르누가, 방금 전 방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일종의 신호를 이용해 특정한 사실을 전보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신호의 일부를 기록했고, 덕분에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 통신 과정 중 발각되어 살해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의사 말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베르누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뒤라트 씨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와 교신했던 인물이지요. 그도 교신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편지가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차에 올라타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바론 각하,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론 각하의 저택은 포위되었습니다. 열두 명의 형사가 창문 아래를 배회하고 있죠.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들어와 범인을 체포할 것입니다."

"라베르누의 살인자가 이 저택에 숨어 있다는 말인가요? 제 하인 중 한 명일까요? 아니죠, 의사를 언급했잖아요!"

"자, 남작 각하. 뤼팽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라베르누의 증언을 경찰청에 전달하러 가던 도중, 뒤를 따라온 뒤라트 씨는 그 친구 라베르누가 곧 살해당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라트 씨의 행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무슨 목적이란 말인가?"

"남작 부인의 실종 사건입니다. 라베르누의 증언을 통해 그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인가! 드디어 사실이 밝혀진 건가! 남작 부인을 찾았다는 뜻인가? 그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녀가 내게서 털어간 돈은?"

레프슈타인 남작은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뤼팽을 향해 소리쳤다.

"끝까지 말하십시오, monsieur.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뤼팽은 천천히, 그러나 주저하는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게… 음… 설명하기가 좀 어렵군요.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작閣下.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는, 신문 기사들에도 나왔듯이, 레프슈타인 남작부인이 남작의 모든 일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작의 금고뿐만 아니라, 남작이 모든 유가 증권을 넣어 두었던 리옹 신용 은행의 금고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어느 밤, 남작이 사교 클럽에 있을 때, 남작의 몰래 모든 유가 증권을 빼낸 레프슈타인 남작부인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는 남작의 돈과 베르니 공작 부인의 보석이 모두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한 데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지?"

"레프슈타인 여사가 살해당했거든."

"살해당했다니! 여사가요! 당신이 미쳤나 봐!"

"그렇단 말이야. 아마도 그날 밤에."

"미쳤다고! 여사가 어떻게 살해당했다는 거야? 우리가 거의 발자취를 밟으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건 다른 여자의 발자취야."

"어떤 여자?"

"살인자의 공범이지."

"그 살인자는 누구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이 호텔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던 라베르누가 진실을 알아차렸다는 걸 알았죠. 그는 라베르누를 감금하고 침묵을 강요하며,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라베르누가 친구와 연락하는 모습을 포착하자, 냉정하게 스타일렛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의사 말인가요?"

"그렇다면 그 의사는 누구입니까?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림자 속에서 살해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악마 같은 천재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은 알 수 없나요?"

"그리고 당신은 알고 싶단 말입니까?"

"물론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숨어 있는 곳을 아시나요?"

"이 호텔에서요?"

"경찰이 찾는 범인이 바로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니요?"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나요!…"

뤼팽이 남작과 마주 선 지 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미 대결은 시작되어 있었다.

공소는 정확했고, 강렬했으며, 자비 없이 날카로웠다.

뤼팽은 그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 자신입니다. 가짜 수염과 안경을 쓰고, 노인처럼 허리를 굽힌 채로요. 요컨대, 당신, 바로 레프슈타인 남작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범인이라면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부인을 죽여 짐을 치우고, 다른 여자와 함께 수백만 프랑을 탐냈고, 확실한 증인인 집사 라베르누를 죽여 입을 막았죠. 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바론은 대화 초반 내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뤼팽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열정적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을 일으켜 서서, 뤼팽을 분명히 미친 사람이라도 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뤼팽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바론은 두세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무언가 격한 말을 건넬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 가서 종을 불렀다.

뤼팽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띤 채 기다릴 뿐이었다.

종소리에 집사가 들어왔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안토인, 자러 가도 돼. 내가 이분을 모셔다 드리마."

"현관 불도 꺼드릴까요, 선생님?"

"현관 불은 켜두게."

앙투안이 물러나자, 남작은 즉시 서재로 들어가 권총을 꺼내 뤼팽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권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이 작은 precaution은 용서해 주시오. 설령 당신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물론 있을 리 없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일 뿐이오. 아니, 당신은 미치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내게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고, 나를 향해 너무나 어이없는 비난을 퍼부었소.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고, 슬픈 눈빛은 눈물로 젖어 있는 듯했다.

뤼팽이 전율했다. 혹시 잘못 본 걸까? 그의 직관이 암시했던 가설, 사소한 사실들에 기대어 세워진 그 fragile한 추론이 틀린 걸까?

그때 한 가지 디테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끼 여밈 사이로, 그는 남작의 넥타이에 꽂힌 핀 끝이 보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핀의 길이가 유난히 길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더구나 금으로 된 핀대는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 마치 아주 날카롭고 섬세하지만 숙련된 손아귀라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작은 단검처럼 보였다.

뤼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생각했다. 이 아름다운 진주로 장식된 핀이야말로, 불쌍한 라베르누 씨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 살인 도구였다고.

그가 속삭였다.

"당신, 정말 무섭게도 능숙하군요, 남작 각하."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설명을 기다리는 태도였다.

그런데도 이 무표정한 태도는 아르센 뤼팽을 흔들었다.

"네, 아주 교묘하군요. 여자가 귀중품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것을 사기 위해 공주의 보석을 빌린 것은 모두 당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 저택을 떠나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간 사람은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 아마도 당신의 친구이자 공범자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가니마르 형사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피해 유럽 전역을 달리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수법입니다.

그 여자가 감당할 위험은 무엇인가요?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은 바로 여자가니까요. 게다가 당신에게 여자를 찾아내면 십만 프랑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경찰이 다른 여자를 찾을 리가 없습니다. 상테 형무소에 십만 프랑을 맡긴 그 아이디어, 정말 천재적입니다. 그 돈이 경찰을 눈먼 상태로 만들었죠. 십만 프랑을 공증인에게 맡긴 남자는 반드시 진실을 말한다고 믿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여자를 쫓고,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마장을 최상의 가격에 처분하고, 가구를 팔고, 도피 준비를 하다니! 세상에, 정말 웃겨 죽겠습니다!"

남작은 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뤼팽에게 다가가, 여전히 그 차가운 침착함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뤼팽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운명의 사신이라 치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 당신을 파멸시키러 왔다고 말이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남작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끊어지는 듯한 말투로 외쳤다.

"아니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죠, 남작.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남작의 세 백만 프랑, 공작부인의 보석 대부분, 오늘 마구간과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모두 여기 있습니다. 남작의 주머니나 이 금고 속에 말이죠. 도망 준비도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 커튼 뒤에 당신의 여행 가방 가죽이 보입니다. 책상 위 서류도 정리되어 있죠. 오늘 밤, 완전히 변장하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모든 준비를 갖춘 채 당신은 당신의情인, 당신이 죽인 여자와 재회할 겁니다. 가니마르 형사가 벨기에에서 체포하려던 넬리 다르벨이겠지요.

단 하나의 장애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라베르누의 제보로 당신의 창문 아래에 배치된 열두 명의 요원들. 당신은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구해주죠. 전화 한 통으로, 새벽 세시나 네시쯤, 제 친구 스무 명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열두 명의 요원들을 처리합니다. 큰 소음 없이, 조용히 도망치죠.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에게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 백만 프랑과 보석을 나누는 것. 어떻습니까?"

그는 남작 위에 몸을 굽혔다. 그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남작을 쫓아붙였다. 남작은 속삭였다.

"이제 알겠소. 이건 협박이오."

"협박이든 아니든, 이름은 당신이 부르든 말든, 내 뜻대로 해야 하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저 사람은 신사니까 경찰에 잡힐까 봐 망설일 거야. 내가 거절하면 큰일 날 테지만, 그 역시 수갑과 감옥, 온갖 재앙을 감수해야 하니까. 우리 둘 다 맹수처럼 쫓기고 있는데.' 하지만 그건 틀렸소, 남작 각하. 나는 항상 살아남아. 문제는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 있어."

"부자나 목숨이나, 각하. 반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아니면…, 단두대요!"

바론이 급작스럽게 움직였다. 몸을 빼낸 그는 권총을 움켜쥐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뤼팽은 그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바론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천천히 밀려오는 공포와 분노 아래서 야만적이고 거의 짐승 같은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반항의 신호였다.

바론은 두 번이나 쐈다. 뤼팽은 먼저 옆으로 몸을 피했고, 곧바로 바론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바론이

힘겹게 몸을 빼냈다. 두 적수는 몸싸움을 벌였고, 격투는 치열하고 교묘하며 야생적이었다.

그때였다. 뤼팽은 가슴 한복판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아! 저 개자식!" 그가 비명처럼 외쳤다. "라베르누와 똑같군. 바늘이로구나……!"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몸을 굳혔다. 남작을 제압해 목을 조르며, 드디어 승자의 자리에 올랐다.

"바보 같으니라니! 네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도 손을 떼었을지도 모른다. 네 얼굴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그런데 이 근육이라니, 각하! 잠시 동안은 정말 당황했소. 하지만 이번엔 끝장났구려. 자, 좋은 친구, 핀을 건네고 미소 지어 보게. …아니, 그건 미소가 아니라 찌푸림이군. …내가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걸까? 각하, 기절하시려나? 그렇다면 착하게 지내게. …좋아, 손목에 실을 한 번 감아 볼까. …괜찮겠소? 신의, 우리 사이의 이 완벽한 조화라니! 감동적이군! …사실, 너를 좋아하긴 한데. …자, 이제 작은 형님, 주의하시오! 그리고 천 번 사과하오!"

그는 반쯤 몸을 일으키더니, 온 힘을 다해 바론의 명치 끝을 향해 거친 주먹질을 날렸다.

바론은 비명을 지르듯 신음을 내뱉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게 논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요, 내 친구."

뤼팽이 말했다.

"나는 네 재산의 절반을 주마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어. 설령 내가 뭘 건질 수라도 있다면 말이지. 그게 핵심이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저 개자식은 보물을 어디에 숨겨둔 걸까? 금고 안에? 흠, 이건 좀 골치 아프겠군. 다행히 밤이 길어."

그는 바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열쇠 고리를 꺼내 들더니, 먼저 커튼 뒤에 숨겨둔 여행가방에 서류와 보석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그리고는 금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하인들일까? 불가능했다. 그들의 다락방은 3층에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아래층에서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두 번의 총성이 들린 것을 알아챈 경찰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크레블뢰! 내가 큰일 났군. 이제 저 녀석들이 왔어… 우리가 피땀 흘려 얻어낸 열매를 수확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자, 자, 뤼팽. 차분해져! 무슨 일이지? 너는 비밀을 모르는 금고의 문을 스무 초 안에 열어야 해. 그리고 그 정도일 뿐인데 어찌 어리석게도 정신을 잃는 거야? 자, 그 비밀만 찾아내면 돼. 단어에 글자가 몇 개 들어갔지? 네 글자?"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그는 현관문을 두 번이나 잠그고 다시 금고 앞으로 돌아왔다.

"네 자리 숫자… 네 글자… 네 글자… 대체 누가 내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조금만 실마리를 잡아주면 안 될까? 누구? 바로 라베르누! 그래, 라베르누야! 그 좋은 친구가 목숨을 걸고 광학 전신을 시도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왜 이리 멍청했는지 모른다. 아, 맞다! 드디어 찾았어! 천하장사, 내 마음이 너무 설레고 있어. 뤼팽, 이제 열까지 세면서 너무 빨리 뛰는 심장을 억누르렴. 안 그러면 일이 그르칠 테니까."

열까지 세며 마음을 다잡았다. 완전히 평정된 그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 개의 다이얼을 손가락 끝으로 꼼꼼하게 조작했다.

그다음 그는 열쇠 고리를 들어 여러 개의 열쇠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가 세 번째 열쇠를 꽂으며 중얼거렸다.

"성공이다! 이 열쇠가 돌아간다. 시세스마, 문이여 열려라!"

잠금 장치가 작동했다. 금고 문이 흔들리며 열렸다. 뤼팽은 열쇠 고리를 든 채 문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

"이제 그 백만 장이 내 것이다. 바론 레프슈타인, 원한은 없다."

하지만 그는 놀라 뒤로 뛰어나갔다. 숨이 막힐 듯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쥔 열쇠들이 전전긍긍하는 손가락 사이에서 끔찍하게 부딪혔다.

아래층에서 난리가 났고, 호텔 곳곳에서 전기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는 수십 초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멍하니,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광경을 바라보며.

반쯤 옷을 입은 여자의 시신이 서랍장 안에 구겨져 있었다. 너무 커서 쪼그려 앉은 채로 몸을 말아 올린 듯했다. 금발 머리카락이 늘어져 내렸고…… 피가 흘렀다.

"남작부인! 남작부인이!" 그가 비명을 질렀다. "악마 같은 놈!"

그는 순간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살인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꿈치로 그를 짓이겼다.

"잡아라, 이 쓰레기 같은 놈! …잡아라, 이 개새끼야! 그리고는 교수대도, 바구니도 다 갖다 바치면 되겠군!"

하지만 위층에서는 경찰들의 외침에 맞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뤼팽은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물러날 타이밍이다.

사실 그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바론 레프슈타인과의 대화 중, 상대가 유난히 침착했던 것을 보아 특별한 탈출구가 있을 것이라 직감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론이 왜 싸움을 걸었을까? 경찰을 피할 자신이 없었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뤼팽은 옆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발코니를 넘어 gutters(배수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건물들을 한 바퀴 돌았다. 맞은편에는 관목들이 늘어진 벽이 있었다. 그는 벽과 관목 사이로 들어가 작은 문을 찾았다. 키 묶음 중 하나로 쉽게 열 수 있는 문이었다.

이제 그는 안마당을 건너고 빈 방들이 있는 별채를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페브르-생토노레 거리로 나왔다. 물론, 그는 경찰이 이 비밀 출구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자, 바론 레프슈타인, 어떻게 생각하나?" 뤼팽이 물었다. 그가 그 비극적인 밤의 모든 정황을 들려준 직후였다. "세상에, 참으로 추악한 인물이군. 가끔은 겉모습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례야. 나는 그 녀석이 진짜 성실한 신사처럼 보였다고 장담하네."

나는 물었다.

"그런데… 그 수백만 프랑은요? 공작 부인의 보석은?"

"금고 안에 있었어. 그 뭉치를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지금도 그대로야."

"말도 안 돼…"

"진실은 간단해. 경찰이 두려워서 그랬다거나, 갑자기 도덕심이 발동했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단순하고, 더 평범해…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

"무슨 냄새?"

"그래, 내 친구. 그 상자, 그 관에서 풍기던 냄새라니… 참,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머리가 핑 돌았지. 단 한 순간만 더 있었으면 기절했을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실수지? 어쨌든, 내가 그 탐험에서 가져온 것은 이 넥타이 핀뿐이야. 진주 값은 적어도 삼만 프랑은 돼."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정말 속이 상했어. 얼마나 어이없는 실수였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 물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지?"

"응?"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추리해냈는지?"

"아, 아주 간단했지. 오히려 내가 왜 더 일찍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놀랐을 정도야."

"요약하면?"

"그건 바로 가엾은 라베르누가 전보로 보낸 내용 속에 숨어 있었어."

"뭐라고?"

"자, 내 친구, 철자법 실수들을 말이지."

"철자법 실수라고?"

"크레블루! 그건 의도적인 실수였어. 남작의 비서이자 집사까지 철자법을 틀릴 리가 없잖아. 'fuire' 끝에 e를 붙이고, 'ataque'에 t를 하나만 적고, 'enemies'에 n을 하나만 쓰고, 'prudance'에 a를 넣다니. 내가 바로 그걸 눈치챈 거야. 네 통을 합치자 'ETNA'라는 단어가 나왔지. 바로 그 유명한 말의 이름이었어."

"그 단 하나면 충분했단 말인가?"

"당연하지! 먼저 레프슈테인 사건을 쫓는 단서를 얻었지. 그 사건은 온 세상이 떠들썩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단서가 금고 비밀번호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 라베르누가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고, 동시에 남작을 고발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라베르누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됐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같은 카페를 드나들었고,

일러스트 신문 속 암호 문제와 수수께끼를 풀며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서로 다른 창문에서 전신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장난을 즐기곤 했어."

"그렇군요! 정말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범죄를 밝혀내는 데에는 사실 분석이나 관찰, 추론 같은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걸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과 지성이죠. 그리고 아르센 뤼팽은 자만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2장

이보른 드오리니는 아들을 꼭 안아 주며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드디어 불러들인 거니만큼, 너는 착실한 소년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

그리고 가정교사에게 말을 돌렸다.

“프라우라인, 저녁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데려오세요.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네, 마담. 백작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혼자 남은 이브온 드 오리니는 곧장 창가로 다가가, 아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를 보고 싶었다.

잠시 후, 아들이 호텔을 나섰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매일 하던 대로 엄마에게 입맞춤을 날렸다. 그러자 유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브온은 놀랍게도 그 동작이 평소와 달리 매우 급작스럽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몸을 더 내밀었다. 아이가 거리 모퉁이로 걸어가는 순간,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남편의 신임 하인, 베르나르였다.

베르나르는 아이의 팔을 껴안아 차에 태웠다. 유모도 같이 탔고, 그는 운전사에게 바로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데는 열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본은 혼란에 빠진 채 방으로 달려가 옷을 하나 집어 들고 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자물쇠에 끼워져 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방 문도 역시 잠겨 있었다.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어둡고 차가운 얼굴, 그 어떤 미소로도 밝아진 적이 없던 표정. 수년 동안 그녀가 그 눈빛에서 느껴왔던 냉혹한 원한과 증오가 생각났다.

'그가 바로 범인이야! 그가 바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아기를 데려갔어. 끔찍해, 정말 끔찍해!'

그녀는 주먹과 발로 문을 세게 두드리더니, 벽난로 쪽으로 뛰어 올라가 종을 급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불렀다.

호텔 구석구석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하인들이 달려올 것이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모른다. 그녀는 절박한 희망을 담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자물쇠가 딸랑거리는 소리. 문이 세게 열렸다. 백작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너무도 공포스럽자 이브온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뎠다. 다섯, 여섯 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녀는 완전히 패배한 것을 느꼈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무릎이 풀리며 그녀는 신음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백작이 돌진해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입 다물어라. 소리 내지 마라. 네게도 좋을 게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먹먹했다.

그녀가 저항하지 않자,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길이가 제각각인 천 띠들을 꺼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의 손목은 묶였고 팔은 몸 옆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녀는 소파 위에 눕혀졌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백작은 전등을 켜고, 이브온이 편지를 정리해 두는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서랍이 열리지 않자, 그는 철제 갈고리로 강제로 부수었다. 서랍을 비우고, 그 안의 모든 종이를 한데 모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상자에 담아 가져갔다.

"시간을 낭비했군요, 그렇죠?" 그가 비웃듯 말했다. "그저 의미 없는 청구서와 편지들일 뿐… 당신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신에게 맹세코, 절대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떠나는 길, 문 근처에서 하인 베르나드가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은 낮게 속삭였지만, 이브온느는 하인이 내뱉은 말이 또렷이 들렸다.

"금세공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작이 되받아 말했다.

"일자는 내일 정오로 미뤘습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전화로, 그전에는 오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브온느는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와, 남편의 서재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엉켜버린 채, 지나가는 순간마다 불처럼 타올라오는 흐릿하고도 빠른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오르니 백작의 치욕적인 행동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가한 굴욕적인 처신, 협박, 그리고 이혼 계획까지.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정한 음모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인장의 명령을 받아 하인들은 다음 날 밤까지 모두 해고당했다. 집사도 백작의 지시와 베르나르의 동조 아래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 아들! 내 아들!"

고통이 극에 달해 온 신경과 근육이 비명을 지르던 차, 그녀는 거친 힘으로 몸을 굳혔다.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오른손이 아직 어느 정도 움직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때 미친 듯한 희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해방의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매듭을 충분히 풀어 손목을 빼내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손을 해방한 뒤에는 팔을 몸통에 묶은 끈을 풀어야 했다. 이어 발목에 채워진 족쇄도 풀어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시계가 여덟 시를 치는 순간, 마지막 구속도 떨어졌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그는 곧장 서서 창가로 달려가 스페니올레 손잡이를 돌렸다. 지나가는 사람을 부를 생각이었다. 마침내 보도를 걷던 경찰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차가운 밤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그녀는 조금 진정되었다. 그리고는 스캔들, 수사, 심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다. 주님, 주님!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수단을 써서 탈출해야 할까?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백작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충동으로……

그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떨렸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가엾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아들 생각과 뒤섞였다. 그녀는 목이 메어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여러 번,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 단어가 그녀 속에서 어떤 생각, 혹은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그녀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 침묵은 눈물과 전율로 가끔씩 끊어졌다.

그리고 나서, 거의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녀는 책상 위에 매달린 작은 서랍장 쪽으로 팔을 뻗었다. 그리고 네 권의 책을 하나씩 집어 들더니, 대충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제자리에 다시 꽂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의 페이지 사이에서 한 장의 명함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이 그 위에 적힌 두 단어를 따라갔다.

'호라스 벨몽'

그리고 연필로 적힌 주소가 하나 있었다.

'르아와 거리 클럽'

그의 기억은 몇 해 전, 같은 호텔에서 한 번의 연회 날 이 남자가 자신에게 건넸던 이상한 말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당신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책에 넣은 이 카드를 우편함에 던져 넣기만 하십시오. 시간이 늦든, 장애가 크든 상관없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묘한 어조로 그 말을 했음에도, 그는 마치 절대적인 확신과 무한한 힘, 그리고 끊이지 않는 대담함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자각 없이,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의 압박에 휩싸인 이브온은 기계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공기우편 봉투를 하나 집어 들고, 명함을 넣었다. 봉인을 하고, 두 줄의 주소를 적었다. '오라스 벨몽, 루아얄 거리 서클'.

그리고 반쯤 열린 창가 쪽으로 다가섰다.

밖에서는 경찰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던졌다. 운에 맡긴 것이었다. 이 찢어진 종이 조각이 누군가 주워, 잃어버린 편지처럼 우체국으로 보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그 행동을 끝내자마자, 그 일의 터무없음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편지가 제때에 도착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다. 더더욱 미친 짓은, 그녀가 도움을 청한 남자가 어떤 시각이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이 그녀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더 빠르고 더 거세게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 반동도 더 컸다. 이브온은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안락의자에 기대더니, 힘이 다 떨어진 채 주저앉고 말았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겨울 저녁의 그 침묵 같은 시간. 거리에는 오직 차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벽시계는 냉정하게 시간을 알렸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젊은 부인은 그 종소리를 세었다.

그녀는 집 안 곳곳에서 나는 소리도 알아차렸다. 그 소리로 남편이 저녁을 먹었고, 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작업실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너무 나른해져서, 남편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파에 눕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반시, 그리고 한 시간. 이브온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가올 사건을 기다릴 뿐이었다. 모든 반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자신을 떠올렸다. 고통을 많이 겪고 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던 그들을 떠올리듯. 서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악몽이 그녀를 흔들었다. 바로 그 두 사람을 서로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정신에서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다.

그녀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비명을 듣고 백작이 곧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이브온은 시선으로 방어할 무기를 찾았다. 하지만 문이 거침없이 밀려 열렸고, 그녀는 놀람에 젖어 눈앞의 광경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진 듯 헛소리를 내뱉었다.

"당신! … 당신! …"

한 남자가 그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채 맥필런과 모자를 팔에 끼고 있는 그 남자는 젊고, 마른 체구에 우아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호라스 벨몽이었다.

"당신!" 그녀가 되뇌었다.

그가 그녀에게 절하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마담. 당신의 편지는 늦게야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당신일 수가 있어! … 당신이 할 수 있다니! …"

그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뤼팽은 이본이 간신히 벗어났던 천 조각들을 살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검사를 이어갔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썼군요. 오르니 백작이요? 아, 그가 당신을 감금했더군. 그런데 그 공기총은… 아, 이 창문을 통해서였구나. 닫아두지 않은 게 얼마나 무모한 실수였는지."

그가 창문 양쪽 판을 밀었다. 이본이 깜짝 놀랐다.

"누군가 들으면 어쩌죠?"

"호텔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십 분 전에 나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어머니인 오르니 백작부인 댁으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아주 간단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 거리와 대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상대로 백작은 급히 집을 나섰고, 하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저는 즉시 전용 열쇠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마치 살롱에서 별 의미 없는 작은 일화를 이야기하듯, 가장 자연스러운 어조로 그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브는 갑작스러운 불안에 사로잡혀 물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백작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제 남편이 곧 돌아올 거예요."

"물론이죠. 백작은 자신이 장난을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15분 이내로…."

"떠나요… 제가 여기서 그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그런데 당신은 제가 그걸 빼앗기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어쩌면 그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는 것도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짓이 초조해졌다. 그녀는 벨몽트를 밀어내려 애썼다. 그는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앉게 한 뒤, 몸을 굽혀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존중하는 태도로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신다, 마담.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매초가 소중하니까요.

먼저, 여섯 해 전 우리가 네 번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만남은 이 호텔의 살롱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떻

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 말씀드렸죠. 그러자 당신은 제 방문이 불편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당신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를 여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이 책 페이지 사이에 끼워 두었던 제 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고, 여섯 해가 지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저는 그 신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지시에 맹종해 주십시오. 어떤 장애물이 있든 저를 통과해 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당신을 구해낼 것입니다."

호라스 벨몽의 평온함과, 친근한 어조로 내려치는 그의 목소리는 젊은 부인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아직도 기운이 없었지만, 그는 앞의 이 남자를 바라보며 다시금 안도감과 안전감을 느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오르니 백작부인은 뱅센 숲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이 자동차를 구한다 하더라도, 세 시 삼십오 분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이 두 시 삼십오 분이니 말입니다. 저는 세 시 정각에 반드시 출발하여 당신의 아들을 모셔오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듣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무 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죠."

"저를 interrogez(질문)해 주세요."

"백작이 무슨 범죄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결국 당신의 아들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가 아들을 데려간 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뜻이겠죠. 바로 당신 집에서 쫓아낸 당신의 옛 친구 중 한 명요. 오,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당신의 망설임이나 거리낌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 문제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여자에게는 돈이 없어. 그쪽에서 네 남편은 파산했으니, 손에 쥘 만한 자원은 어머니인 오르니 백작부인이 주는 연금과, 네 아들이 네 숙부 두 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상속금 정도야. 네 남편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그 돈이지. 만약 아이가 그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더 쉽게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혼이야. 내 말이 맞지?"

"지금까지 그를 막아왔던 건, 바로 당신의 거절 때문이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거절도 있었죠. 그녀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혼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르니 백작부인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양보할 거예요."

"어떤 경우 말인가요?"

"제 행실이 부끄럽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죠."

벨몽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그 남자는 당신이나 당신 아드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군요. 법적 측면에서나 그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나, 그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 즉 정숙한 여인의 덕목에 부딪힌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백작 같은 남자가 그토록 망설이고, 그토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혹은 그가 가진다고 믿는 무기가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무기라니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없었더라면, 그는 먼저 당신 아드님을 납치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본은 절망에 빠졌다.

"끔찍하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가 무엇을 꾸몄을지!"

"잘 찾아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남자가 깨뜨린 서랍장 안에는, 당신을 겨냥할 만한 편지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가 던진 말들, 그 위협 속에는 추측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그런데……" 벨몽이 반복했다. "무엇인가 있을 거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백작에게 더 가까운 친구는 없나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어제 그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묶고 가둔 순간, 그는 혼자였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그 후, 하인이 문 근처에서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석상 기술자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리고 내일, 정확히 말해 오늘 정오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르니 백작 부인이 그 전에 올 수 없었거든요."

벨몽이 생각에 잠겼다.

"이 대화 내용이 남편의 계획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보석은 어디 있나요?"

"남편이 다 팔았어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반지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손가락에는 단 하나, 결혼반지만 남았다.

"그건 결혼반지군요?"

"결혼… 반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벨몽은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고, 비명처럼 들리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야. 그는 모를 거야…"

벨몽이 재촉하자, 이본은 움직이지도 않고 불안한 표정으로 있다가 끝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것은 제 결혼 반지가 아닙니다. 오래전 어느 날, 거실에 있던 벽난로에서 떨어뜨렸어요. 잠시 전까지 그 자리에 두고 왔던 건데, 아무리 찾아도 끝내 잃어버렸죠. 말없이 다른 반지를 하나 주문했고, 지금 손에 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본 반지에는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네. 10월 23일이었죠."

"두 번째 반지는요?"

"이것에는 아무 날짜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미세한 주저와 동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감정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부디, 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그가 외쳤다. "우리는 이제 막 몇 분 동안, 약간의 논리와 침착함으로 긴 여정을 해냈습니다.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하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저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모욕을 당했지만, 밖에서는 다른 여성들처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에게 돌아오는 경배와 유혹, 그리고 함정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저는 기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남자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었고, 그는 그 후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새긴 반지를 지갑에 지참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요.

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기에, 그에게 사랑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추억, 상한 꿈,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는 어떤 달콤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느릿느릿 말했다. 벨몽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단박에 믿었다.

그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남편이…… 혹시 그걸 눈치채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동시에 손에 든 금반지를 살폈다.

"문제는 바로 이 반지에 있소. 당신의 남편은 어쨌든 그 사기가 발각될 줄 알고 있었소. 정오가 되면 그의 어머니가 오실 거요. 목격자 앞에서 그는 당신에게 반지를 벗으라고 강요할 거요. 그러면 그는 어머니의 승낙과 함께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죠.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증거를 손에 넣을 테니까."

"저는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그녀가 신음했다.

"오히려 당신이 구원받았소. 반지를 저에게 주시오. 그러고 나면, 오늘 오후에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은 다른 반지일 것이오. 내가 정오 전에 보내줄 그 반지에는 십월 스물셋 날짜가 찍혀 있을 테니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말을 멈췄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이, 이브온의 손이 그의 손 안에서 얼어붙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은 형형하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오? … 제발 말씀하시오."

그녀는 미친 듯이 절망에 사로잡혔다.

"제가… 제가 정말 막막해요! 이 반지를 벗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졌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는 별일 아니었어요. 저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증거가, 이 비난이… 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 반지는 이제 제 손가락의 일부가 됐어요. 살 속에 파고들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반지를 빼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일 뿐이었다. 다칠까 봐 무서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살은 반지 주변으로 부어올랐고, 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 그 생각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었다. '저번 밤, 악몽을 꾸었어.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손을 잡는 꿈이었어. 깨어나려 해도 깨어나지 못했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분명해! 나를 잠들게 했어, 확신해. 그리고 반지를 보고 있었지. 곧 그 어머니 앞에서 반지를 빼앗아 갈 거야. 이제 다 알겠어. 그 보석상 기술자는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손에서 반지를 잘라낼 거야. 보시오, 보시오! 나는 끝장났소!'"

그녀는 머리를 감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고요한 침묵 속, 벽시계가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로 타종을 울렸다. 이본은 벌떡 일어났다.

"저 사람이 오시오! 이제 오겠소! 세 시가 되었소! 도망갑시다!"

그는 코트를 챙겨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향해 나아가려던 순간,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벨몽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당신은 떠날 수 없소."

"제 아들을 봐야 해요. 데려와야 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저는 떠나야 해요!"

"떠날 수 없소! 그것은 미친 짓이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벨몽트는 그녀의 저항을 꺾기 위해 다소 거친 힘을 가해야 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소파 쪽으로 끌어당겨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신음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천 조각들을 들어 그녀의 팔과 발목을 묶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미친 짓이 될 거예요. 누가 당신을 구해 주겠어요? 누가 이 문을 열어 주겠어요? 공범이요? 그런 건 당신에게 불리할 뿐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장모님께 어떻게 쓸지 상상이 가요? 더구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망친다는 건 이혼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 해요."

그녀는 흐느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 반지가 타는 것 같아요… 부수세요… 가져가세요… 절대 발견되지 않게요…"

"손가락에서 반지를 찾지 못한다면, 누가 부러뜨렸다고 할 것인가? 역시 동조자가 있는 셈이지.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기꺼이 맞서겠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책임진다."

"오르니 백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도 늦추게 되더라도, 나는 그 백부인과 맞서겠다. 정오 전에 내가 직접 찾아갈지라도, 반드시 너의 혼인 반지를 손가락에서 벗겨낼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압도당한 채, 본능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이본은 스스로 사슬을 감아주듯 몸을 맡겼다. 그가 일어나자,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묶인 채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자취가 남지 않았는지 방 안을 살폈다. 그런 뒤 다시 젊은 여자 곁으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네 아들을 생각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그는 부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거리 쪽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세 시 삼십 분쯤,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아래층에서 문이 다시 쾅 닫혔고, 거의 동시에 이본은 남편이 성큼성큼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달려가, 여전히 묶여 있는지 확인한 뒤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낀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본은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잠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밝은 햇살이 부엌 안으로 들어차 있었고, 몸을 움직이자마자 묶었던 끈이 잘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곁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아들…… 내 아들…… 울부짖었다. '내 아들 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의 귀에 비웃음이 들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화는 제 어머니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브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불러드릴까요?"

"네. 일단 저는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요?" 이브온이 놀라 외쳤다. 호라스 벨몽트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상한가요?"

"지금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왜 오늘 밤이 안 되죠?… 내일도 안 되죠?"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백작이 말했다. "밤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분명히 저를 여기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어머니 품에 안긴 거죠. 이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해명을 앞질러야 합니다. 먼저 식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머니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는 이브온의 방으로 향했다. 이브온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시계는 열 시 삼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그녀는 공포에 떨며 신음했다.

열 시 삼십오 분! 호라스 벨몽이 그녀를 구해 주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를 구해 주지 못할 것이다. 금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이상,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백작은 오르니 백작부인과 함께 돌아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 여자는 마른 체격에 각진 얼굴로, 예전부터 이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어 왔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그 accusations(비난)에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었다.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작부인이 말했다. "간단히 말해, 제 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백작이 말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선서 아래 단언합니다. 세 달 전, 방학 기간 중 이 방과 침실의 카펫을 다시 깔던 장인이 마루판 틈새에서, 제가 아내에게 준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지입니다. 안쪽에는 10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작부인이 말했다. "아내께서 지금 끼고 계신 반지는……"

"그 반지는 그녀가 진짜 것과 바꿔 달라고 주문한 거야. 내 지시에 따라 내 하인 버나드가 길게 찾아다닌 끝에, 지금 파리 근처에 산다는 그 작은 보석 상인을 찾아냈지. 그 상인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

어. 그리고 증언할 준비도 돼 있다고 해. 의뢰인이 날짜가 아니라 이름을 새기라고 했다는 거야. 그 이름 자체는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일하던 직공이라면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내가 서신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더니, 그 직공이 어제 내게 언제든지 쓰라고 답장을 보냈어. 오늘 아침 아홉 시가 되자 버나드가 그를 찾으러 갔어. 두 사람은 지금 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가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자발적으로 이 반지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당신이 몰래 빼앗으려 했던 그 밤 이후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반지는 제 손가락에서 절대 벗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남자를 올라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그녀가 숨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마치 환상처럼 미래의 광경을 그려냈다. 스캔들, 그녀를 향한 이혼 선고, 법정의 판결로 인해 아버지에게 넘겨질 아이.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들을 데려가, 세계 끝까지 함께 떠나, 둘이서 행복하게 살리라 생각하며.

그녀의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브온, 너무 경솔했군요."

이브욘은 곧바로 자백을 하고, 그에게 보호를 요청할 뻔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랴? 오르니 백부인이 자신을 무죄라고 믿어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백작이 하인과, 팔 아래에 가방을 낀 한 사내를 데리고 들어왔다.

백작이 그 사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네, 장인."

"작아진 반지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집게로 한 번만 집으면 끝이죠."

"그리고 나서," 백작이 덧붙였다. "이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당신이 새긴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오."

이브온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열한 시 십 분 전.

호텔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억지로 막으려 했지만, 희망의 떨림이 그녀의 몸을 스쳤다. 벨몽트가 무언가 성공했을까?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리자, 그녀는 깨달았다. 창문 아래를 지나가는 행상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끝이 났다. 호라스 벨몽트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아이를 되찾으려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나서야 했다. 남의 약속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냈다. 자신의 손에 노동자의 더러운 손이 닿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추한 접촉이 그녀를 격분시켰다.

남자가 어색하게 사과했다. 백작이 아내에게 말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녀는 가늘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일꾼이 그 손을 다시 잡아쥐고 손바닥을 위로 돌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이 드러났다.

이본은 강철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단번에 죽고 싶었다.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히자, 곧장 자신이 살 수 있을 독약이 떠올랐다. 그 독약은 자각하지 못한 채 그녀를 잠들게 할 것이었다.

수술은 순식간에 끝났다. 작은 강철 집게가 살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은 뒤, 반지를 낚아챘다. 거친 힘이 가해지자 반지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일은 양끝을 벌려 손가락에서 떼어내는 것뿐이었다. 일꾼은 그렇게 했다.

백이 triumphant한 목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알 수 있게 됐군. 증거가 여기에 있소. 우리 모두 목격하지 않았소?"

그는 반지를 낚아채 inscription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악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반지에는 이브논과의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10월 23일."

우리는 몬테카를로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뤼팽은 담배에 불을 붙여 푸른 하늘을 향해 여유 있게 연기를 뿜어냈다.

내가 물었다.

"그래?"

"그래, 뭐?"

"뭐란 말이야?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데……"

"끝났다고? 다른 결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발…… 농담은 그만두세요."

"전혀 농담이 아니다.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백작부인은 무사히 구제되었고, 남편은 그녀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기에 어머니의 설득으로 이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도 돌려받았다.

그게 전부다. 그 후 그는 아내를 떠났고, 현재 그녀는 열여섯 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네…… 네…… 하지만 백작부인은 대체 어떻게 구제된 겁니까?"

뤼팽이 폭소를 터뜨렸다.

"내 친애하는 친구여……

(때때로 뤼팽은 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내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내 활약을 묘사하는 데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단언하건대, 백작부인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같은 것 없습니다." 웃으며 내가 답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그가 오 프랑 동전을 하나 집어 들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주먹 안에 무엇이 있나?"

"오 프랑 동전입니다."

그가 손을 벌렸다. 오 프랑 동전은 사라져 있었다.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보석상 기술자가 플라이어로 반지를 잘라냅니다. 원래 반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다른 반지

에는 10월 23일 날짜가 새겨져 있죠. 이건 단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수법을 가방 속에 여러 개 품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픽만과 여섯 달이나 함께 일했거든요."

"그런데……"

"당신도 해보세요!"

"그 보석상 기술자가요?"

"바로 호라스 벨몽이었습니다. 바로 그 착한 친구, 뤼팽이었죠. 자정을 지나 새벽 세 시에 백작부인을 떠난 뒤, 남편이 오기까지 남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세공인이 썼다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 덕분에 금세공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죠. 몇 루이를 주고 그 자리에 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미리 금반지를 잘라 새겨 둔 것을 들고 말이죠. '아, 향신료야, 지나가라.' 백작은 그 속임수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훌륭하군!" 내가 외쳤다.

그리고는 조금은 비꼬는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 자신도 이번 일에서 조금은 속지 않았을까요?"

"아, 누가요?"

"백작부인이죠."

"어떻게요?"

"다름 아니라요. 그 이름은 부적처럼 새겨져 있고,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를 위해 고뇌했던 그 멋진 암흑의 남자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모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 비록 뤼팽이시라 해도, 당신 자신이 너무도 현실적이고 순결하지도 않은 사랑 소설 한가운데 빠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뤼팽이 나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백작부인이 결혼 전에 그 남자를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며 진실을 호도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녀가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었고, 그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백작부인의 손가락에서 벗겨 부순 반지의 안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반지를 지니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새겨놓은 이름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가 반지를 내게 건넸다.

'호라스 벨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뤼팽과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슬픔이 섞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다.

내가 다시 물었다.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하려 하셨나요? 평소에도 이 일에 대해 여러 번 암시하셨잖아요."

"왜냐고?"

그가 손짓으로 우리 옆을 지나가는 한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젊은 남자와 팔을 끼고 있었다.

여자는 뤼팽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다.

"바로 저 여자요. 저와 그 아들이죠."

"그분이 당신을 알아보셨나요?"

"저는 어떤 복장을 해도 저 여자에게는 들킵니다."

"하지만 티베르메니유 성 도난 사건 이후, 경찰은 '뤼팽'과 '호라스 벨몽'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셈이군요?"

"그녀가 당신에게 인사까지 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외쳤다.

그가 내 팔을 꽉 쥐더니 격정적으로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뤼팽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녀 눈에는 내가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으로 비춰진다고?"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어, 설령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게 인사할 거야."

"왜요? 그녀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그럴 리가! 오히려 그녀가 나를 경멸할 이유가 더 많지."

"그럼 대체 왜?"

"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돌려준 사람이니까."

제3장

"당신의 전보를 받았소."

회색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내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갈색 레딩코트를 입고 넓은 챙의 모자를 쓴 그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소. 무슨 일인가?"

만약 내가 아르센 뤼팽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은퇴한 노장군 같은 모습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라고요? 오, 별것 아닙니다. 꽤 기묘한 우연의 일치죠. 그리고 당신은 신비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그 사건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시네요!"

"매우 조급하오. 만약 그 사건이 내가 발을 굴릴 가치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 핵심부터 말해주시오."

"서두르자.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며칠 전 좌안 쪽 먼지투성이 가게에서 발견한 작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형편없지만, 엠파이어 양식의 양팔메트 장식이 달린 액자가 마음에 들어 사 왔어요."

"정말 형편없군요." 뤼팽이 잠시 뒤 말했다. "하지만 주제 자체는 꽤 맛이 있네요. 고전식 기둥이 둘러진 원형 정자, 해시계, 연못, 르네상스 양식 지붕의 낡은 우물, 그리고 돌계단과 돌벤치까지. 구석진 옛 안마당의 풍경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정말 진품입니다." 내가 덧붙였다. "이 그림은 비록 명품이 아니든 아니든, 에포크 양식의 액자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날짜도 분명히 적혀 있죠. 보세요, 왼쪽 아래에 붉은 글씨로 적힌 '15-4-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1802년 4월 15일을 의미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우연의 일치에 대해 말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나는 구석에 있는 망원경을 가져와 삼각대에 올려놓고, 내 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 조준했다. 그리고 뤼팽에게 그쪽을 보라고 부탁했다.

그는 몸을 숙여 내다보았다. 이 시간의 햇살은 비스듬히 그 방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주 단순한 자단나무 가구가 놓여 있었고, 크레톤 천으로 만든 커튼이 드리워진 큰 아이 침대가 보였다.

"아!" 뤼팽이 갑자기 외쳤다. "같은 그림이잖아!"

"정확히 같은 날짜입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붉은 글씨로 15-4-2라고 적혀 있죠."

"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한 부인입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한 여공인 셈이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해야 하니까요. 바느질 일을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그녀와 아이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이즈 드 에르네몽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녀를 포함해 후손들이 모두 단명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아 이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테르르 시대에 단두대에 오른 세입업자 에르네몽의 증손녀입니다."

"앙드레 슈니에와 같은 날에요." 뤼팽이 말을 이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에르네몽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나에게 물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까?"

"오늘이 4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어제부터 알게 됐네. 관리인의 수다를 들은 거야. 4월 15일이 루이즈 드에르몽의 삶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걸."

"세상에, 정말이야?"

"평소와 다르단 말이지. 그녀는 매일 일하고, 아파트의 두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초등학교에서 돌아올 딸을 위해 점심도 준비하잖아. 그런데 4월 15일이 되면, 그녀는 오전 열 시쯤 어린 딸과 함께 외출해서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온다. 이미 몇 년째, 날씨와 상관없이 그랬다. 믿기 어렵지? 비슷한 구식 그림에서 그 날짜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에르몽 양도농업자의 후손인 그녀가 매년 외출하는 날짜를 결정한다는 거야."

"정말 묘하군요… 당신 말이 맞아요."

뤼팽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거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녀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당신의 정보가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정확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문이 열리며 일곱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창가로 다가가 서 있었다. 그 뒤로는 키가 크고 아직 예쁘며, 부드럽고 우울한 표정의 한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옷차림에서 우아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질 정도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보시죠, 속삭였다. "나들이를 가려는 모양이오."

사실 잠시 후,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방을 나섰다.

뤼팽이 모자를 집어 들었다.

"따라오시오?"

나는 너무 궁금증이 커져서, 조금도 반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뤼팽과 함께 내려갔다.

거리로 나온 우리는 내 이웃이 빵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빵 두 개를 사서, 딸이 들고 있던 작은 바구니에 넣었다. 바구니에는 이미 식량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외곽 대로 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에투알 광장까지 대로를 따라 걸었다.

클레베르 대로가 그들을 파시 입구로 이끌었다.

뤼팽은 묵묵히 걸었다. 그는 분명한 고민에 잠겨 있었고, 나는 그 고민을 내가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기뻤다. 가끔씩 그가 내뱉는 한 마디가 그의 생각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 수수께끼가 그에게나 나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이즈 드에르몽은 그러나 레이누아르 거리로 꺾여 왼쪽으로 향했다. 프랑클린과 발자크가 살았던 적적한 이 거리는 오래된 집들과 은밀한 정원들이 늘어선 탓에, 마치 지방 도시 같은 고요한 인상을 준다. 언덕 아래로 센 강이 흐르고, 골목들이 강가로 내려간다.

내 이웃이 선택한 길은 바로 그런 골목 중 하나였다. 좁고 구불구불하며 사람 하나 없던 곳이었다. 처음 오른쪽에는 레이누아르 거리를 바라보는 건물이 있었고, 그 뒤로는 비스듬히 부패한 높은 담장이 이어졌다. 담장은 받침벽으로 버티고 있었고, 위에는 유리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중간쯤에 아치형의 낮은 문이 담장을 뚫고 있었다. 루이즈 드에르몽이 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우리 눈에 거대한 것처럼 보인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머니와 딸이 안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그녀가 숨길 건 없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뤼팽이 말을 끝내자마자, 우리 뒤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부부였다. 둘 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온몸에 때가 끼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 갔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내 옆집 여자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의 열쇠였다. 그는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문이 닫히며 두 노인이 사라졌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뤼팽이 나를 끌어당겨 50미터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은 우리 둘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오목한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젊은 부인을 보았다. 팔에 작은 개를 안고 내려오는 그녀였다. 아주 세련된 차림새에 보석으로 치장했고, 눈은 지나치게 검고 입술은 지나치게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금발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으로 똑같은 열쇠를 사용했다. 그러고는 작은 개를 안은 그 아가씨가 사라졌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네." 뤼팽이 비웃었다. "저 사람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어 두 노부인이 나타났다. 마른 체격에 외모는 초췌했지만 서로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다음에는 하인이, 이어 보병 하사관이, 그리고 낡고 기워 입은 재킷을 입은 뚱뚱한 신사가 지나갔다. 이어 여섯 식구

로 구성된 노동자 가족이 등장했는데, 모두 창백하고 병약해 보였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새로 도착한 이들은 모두 빵주머니나 망태기를 들고 있었다. 속이 꽉 차 있었다.

"피크닉이군요."

"더욱 신비롭군." 뤼팽이 말했다. "그 벽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 골목길 끝에는 위아래로 두 채의 건물이 있었다. 어느 집도 안뜰 쪽으로 난 창문이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작은 문이 열리며, 노동자의 아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년은 레이누아르 거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물병 두 개를 들고 돌아왔다. 병을 내려놓은 그는 주머니에서 거대한 열쇠를 꺼냈다.

그때 뤼팽은 이미 내 곁을 떠나, 산책하듯 느릿느릿 담장 옆을 걷고 있었다. 아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밀어 닫으려던 순간, 뤼팽은 재빠르게 뛰어나와 칼끝을 자물쇠의 갈고리 부분에 꽂아 넣었다. 빗

장이 걸려 있지 않았기에, 그는 살짝 힘을 주는 것만으로 문이 살짝 열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됐군." 뤼팽이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더니, 내 큰 놀라움과는 달리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벽에서 열 미터쯤 떨어진 곳에 라우렐 나무 덤불이 커튼처럼 서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들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뤼팽은 덤불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나도 다가가 그와 똑같이 나뭇가지를 헤쳤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예상치 못해, 나는 절로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뤼팽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젠장! 이건 좀 재밌군.”

우리는 두 채의 창문 없는 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의 풍경은 내가 브로칸테르(중고품 상인)에게서 사온 오래된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배경이었다. 뒤편, 두 번째 벽을 따라 똑같은 그리스식 로톤다가 가벼운 기둥 행렬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앙에는 똑같은 돌벤치가 네 개의 계단으로 내려가는 분수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분수대 바닥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왼쪽으로는 똑같은 우물이 정교하게 장식된 철제 지붕을 올리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똑같은 해시계가 바늘 끝과 대리석 판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배경이었다! 그리고 이 광경의 기이함을 더해주는 것은, 뤼팽과 나 모두를 괴롭히는 기억 때문이었다. 바로 그림 구석에 적힌 '4월 15일'이라는 날짜였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4월 15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이도, 신분도, 습관도 제각각인 열여섯에서 열여덟 명의 사람이, 파리의 이 외딴 구석에 모이기 위해 4월 15일을 선택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본 순간, 그들은 모두 먹기 시작했다. 따로따로 떼어져 벤치와 계단에 앉아 있던 모든 여자들이었다.

내 이웃과 그 딸 근처에는 노동자 가족과 거지 부부가 함께 어울려 있었다. 한편, 하인, 지저분한 재킷을 입은 신사, 보병 하사, 그리고 마른 두 자매는 각자의 햄 조각과 정어리 통조림, 그뤼에르 치즈를 모아 함께 먹었다.

그때는 한 시 반쯤이었다. 거지와 뚱뚱한 신사가 파이프를 꺼냈다. 남성들은 로통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여성들도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듯했다.

두 사람은 우리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의 열기가 고조되는 것은 눈에 띄었다. 작은 개를 데리고 있던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열변을 토하며 거대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 움직임에 자극받은 작은 개는 광란의 짖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갑자기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자, 곧 분노에 찬 외침이 뒤따랐다.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모두 어수선하게 우물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노동자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우물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밧줄 끝의 고리에 연결된 벨트로 매달린 채였고, 다른 세 아이들은 크랭크를 돌려 그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더 민첩했던 하사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하인과 뚱뚱한 사내가 그를 붙잡았고, 구걸하는 자들과 야윈 수녀들은 노동자 부부와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몇 초 만에 아이는 속옷만 남았다. 옷가지를 손에 쥔 하인이 도망치자, 하사가 그 뒤를 쫓아 바지를 벗겨냈다. 하지만 그 바지는 곧 야윈 수녀 한 명에게 빼앗겼다.

"미친 사람들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니야." 뤼팽이 말했다.

"뭐? 당신도 뭔가를 아시는 건가?"

결국 루이즈 드에르맹이 나섰다. 처음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그녀는 소동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발이 일었다. 그들은 지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굳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참다 못해 배고픔까지 느껴진 나는 레이누아르 거리까지 나가 간식을 사 왔다. 우리는 그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희극의 주인공들을 감시했다.

매 순간이 그들을 더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는 듯했다. 그들은 의기소침한 자세를 취했고, 허리를 점점 더 구부리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저들이 여기서 밤을 새우려나?" 나는 지루한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오후 다섯 시쯤, 구릿빛 재킷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시계를 꺼냈다. 우리도 따라 시계를 꺼내 들었다. 모두 손에 든 시계를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십오 분에서 이십 분쯤 지났을까, 뚱뚱한 남자가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썼다.

그때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윈 두 자매와 노동자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 성호를 그렸다. 작은 개를 데리고 온 아가씨와 거지는 흐느끼며 서로 입맞췄다. 우리는 루이즈 드르네몽이 슬픈 표정으로 딸을 꼭 안고 있는 모습도 발견했다.

"가자." 뤼팽이 말했다.

"세션이 끝난 줄 아나?"

"그래. 얼른 빠져나갈 시간이야."

우리는 무사히 출발했다. 레이누아르 거리 꼭대기에 다다르자 뤼팽이 왼쪽으로 꺾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야 했고, 그는 바로 앞집, 뜰을 내려다보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문지기와 몇 마디 나누던 그는 다시 나와 함께 택시를 한 대 잡았다.

"튀린 거리 34번지." 그가 기사에게 말했다.

그 거리 34번지 1층에는 공증인 사무소가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발랑디에 공증인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는 중년쯤 되어 보였지만 온화하고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뤼팽은 은퇴한 장군 장니오라는 가명을 썼다.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집을 짓고 싶었고, 레이누아르 거리 근처에 매물로 나온 토지에 대해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땅은 매물이지 않습니다!" 발랑디에 공증인이 외쳤다.

"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요."

공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내가 산 그 그림, 루이즈 데르남몽의 집에 걸려 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이 그림에 나온 땅, 즉 에르남몽 관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공증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 관은 에르남몽의 총수입원장이 가지고 있던 큰 정원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공포 정치 시기에 처형되었죠.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지만, 유산 상속자들은 조금씩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토지는 여전히 공동 소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만약…"

공증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무엇이요?" 뤼팽이 물었다.

"아니, 그건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뒤적이며 혼자 재미를 보기도 하죠."

"실례가 되지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랑디에 씨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 기뻐하는 듯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루이-아그리파 드 에르몽은 제네브에 사는 아내와 딸 폴린을 만나러 간다는 구실로 생제르맹 교외의 저택 문을 닫았다. 그는 하인들을 해고하고, 아들 샤를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파시의 작은 집으로引っ越했다. 그곳에는 헌신적인 노종녀 한 명만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삼 년 동안 숨어 지냈다. 은신처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있던 그에게 노종녀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거리 끝에서 무장한 순찰대가 집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루이 드 에르몽은 재빨리 차려입었다. 문이 두드려지는 순간, 그는 정원으로 이어진 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외쳤다.

"잠깐만, 5분만 기다려 주시오."

도망치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정원의 출구가 이미 차단되어 있었을까?

일곱, 여덟 분 뒤, 그는 다시 돌아왔다. 질문들에 매우 차분하게 답했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데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아들 샤를도 함께 끌려갔다.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었다.

"그 일은 언제 있었소?"

뤼팽이 물었다.

"프랑스 혁력 2년, 쥬르미알 달 26일이었습니다. 즉……"

발랑디에 씨는 말을 멈췄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그는 외쳤다.

"바로 오늘이군요.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세입 총징의 체포 기념일이죠."

"이상한 우연이군."

뤼팽이 말했다.

"그 체포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겠지?"

"아주 심각한 사건이군요." 공증인이 웃으며 말했다.

삼 달 뒤, 열월 초에 제네랄 수취인은 단두대에 올랐다. 그의 아들 샤를은 감옥에 갇힌 채 잊혀졌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다.

"엄청난 재산이었겠군요." 뤼팽이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재산이었지만, 그 정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혁명 이전, 생제르맹 거리 저택은 물론이고, 지방의 성들과 토지, 그리고 제네랄 수취인의 보석과 유가증권, 수집품까지 모두 영국인에게 팔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공회와 총재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파시 저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뤼팽이 말했다.

파시(Passy)의 저택은 드 에르네몽을 체포했던 공화국 위원회 대표, 즉 브로케 시민이 헐값에 사들였다. 브로케 시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에 벼락을 걸고 벽을 두텁게 보강했다. 드 에르네몽이 드디어 석방되어 찾아왔을 때, 브로케는 총부리로 그를 맞았다.

드 에르네몽은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고,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브로케는 단호히 거절했다. 집은 내가 산 거니, 내가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내놓지 않을 태세였다. 만약 나폴레옹의 도움이 없었다면 말이다.

1803년 2월 12일, 드디어 브로케는 그 집을 비켰다. 드 에르네몽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시련으로 인해 그의 뇌리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던 모양이다. 드디어 되찾은 집 문턱에 서서, 문을 열기도 전에 그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헐, 그러고 보니." 뤼팽이 중얼거렸다. "그 후엔 어떻게 됐지?"

어머니와 폴린이라는 자매(제네바에서 사촌과 결혼했다)가 모두 세상을 뜨자, 노파가 그를 돌보았다. 두 사람은 파시(Passy)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특별한 일 없이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1812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다.

임종 직전, 노파는 증인 두 명을 불러들려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프랑스 혁명 초기, 조세 징수관이 파시 저택으로 금화와 은화를 채운 주머니들을 옮겨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머니들은 그의 체포 몇 날 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샤를 드르뇌망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선행 고백에 따르면, 보물은 정원에 숨겨져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원형 건물, 해시계, 우물 사이 어딘가에 말이다.

증거로 노파는 세 점의 그림을 꺼냈다. 액자는 없었고, 그저 세 장의 캔버스일 뿐이었다. 조세 징수관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린 작품들이다. 그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건네라고 명하며 이 그림들을 노파에게 건넸다.

부동산에 눈이 먼 샤를과 노파는 침묵을 지켰다. 그 후 재판이 열렸고, 저택은 다른 손에 넘어갔으며, 샤를은 미쳐버렸다. 노파는 혼자 무모한 수색을 했지만, 보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 있답니다." 뤼팽이 비웃듯 말했다.

"그곳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발랑디에 씨가 외쳤다. "다만…… 다만 브로케 시민이 뭔가 냄새를 맡고 그들을 찾아냈다면 모를까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추측입니다. 브로케 시민은 결국 가난한 채로 죽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린의 자식들과 그녀의 동생이 제네바에서 달려왔죠. 찰스가 비밀리에 결혼했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나서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찰스는요?"

"찰스는 가장 깊은 은둔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방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죠."

"결코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핵심이지. 샤를 드르네몽은 일 년에 단 하루, 무의식적인 어떤 힘에 이끌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다. 정원을 지나 로타nda의 계단, 혹은 이 그림에 보이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있곤 했지. 오후 5시 27분이 되면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1820년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이해할 수 없는 순례를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날은 바로 4월 15일이었지. 샤를이 체포된 날의 기념일이야."

발랑디에 씨는 더 이상 미소 짓지 못했다. 우리가 듣는 그 당혹스러운 이야기 자체에 그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뤼팽이 물었다.

"샤를이 죽은 이후로는 어땠나요?"

"그때부터, 다시 말해 거의 백 년 동안, 샤를과 폴린 드 에르넹의 후손들은 매년 4월 15일 성지 순례를 이어 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죠. 정원의 한 치의 땅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뒤졌고, 흙덩어리 하나도 뒤집어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찾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돌멩이 하나 들어 올려보거나 우물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들은 가엾은 광인처럼 로통데의 계단에 앉아 기다립니다. 마치 그 광인처럼요.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운명에 드리운 슬픔입니다. 백 년 동안 대를 이어온 모든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은 그들 모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용기도, 주도권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뿐입니다. 4월 15일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모든 이가 빈곤에 짓눌렸습니다. 제 선배들과 저, 우리는 조금씩 재산을 처분해 왔습니다. 먼저 수익성이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 저택을 팔았고, 이어 정원의 일부, 또 다른 일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석만큼은 그들 역시 죽는 것보다 이를 더 싫어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폴린의 직계 상속인인 루이즈 드 에르넹부터, 불쌍한 샤를을 대변하는 거지, 노동자, 하인, 서커스 무용수까지 모두 동의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뤼팽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마ître 발랑디에,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어 병든 하녀의 말을 어디 믿습니까?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재벌이 부를 쌓았다면, 그 부는 이미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종이나 보석을 숨길 수는 있어도, 거대한 보물을 숨길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럼 그림들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뤼팽은 노장이 찬장으로부터 꺼내 놓은 그림 앞에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다.

"세 점의 그림에 대해 말씀하셨죠?"

"네, 이쪽이 그 하나입니다. 샤를의 유족들이 제 전임자에게 건넸죠. 루이즈 드에르남ون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행방을 알 수 없어요."

뤼팽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들 모두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나요?"

"네. 샤를 드에르남ون이 죽기 얼마 전 액자에 넣을 때 직접 새긴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 15-4-2. 즉 1794년 4월, 체포가 있었던 달이니까 혁명력 2년 4월 15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완벽하군요." 뤼팽이 말했다. "숫자 2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나요?"

발랑디에 씨는 팔을 벌며 탄식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외쳤다. "그건 바로 연구의 골칫거리였죠. 1820년부터 1843년까지, 제 선배인 튀르봉 씨가 파시에서 유산 상속인들에게 열여덟 번이나 소환당했습니다. 사기꾼들과 점술가, 광신도들이 일반 농장주들의 보물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결국 한 가지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요?"

"오천 프랑. 성공하면 보물의 삼분의 일 그에게 돌아갑니다. 실패하면 예치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오천 프랑 있습니다."

공증인이 깜짝 놀라 뛰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뤼팽은 주머니에서 지폐 다섯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고요하게 펼쳤다.

"이것이 오천 프랑 예치금입니다. 영수증을 써 주시고, 내년 4월 15일 파시에서 에르네몽의 모든 상속인을 소집해 주십시오."

공증인은 할 말을 잃었다. 나도 뤼팽에게 이런 반전이 익숙했지만,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지한 말씀이십니까?" 발랑디에 공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무장은 나를 보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보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연필을 들어, 도장지가 찍힌 용지 위에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에는 은퇴한 장군 장니오의 예금이 언급되었고, 그가 찾아낸 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의견이 바뀌시면, 여덟 날 전에 알려주십시오. 에르남몽 가문에는 마지막 순간에만 알릴 생각입니다. 가엾은 그분들이 너무 오래 희망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 바로 알리셔도 됩니다, 발랑디에 법무장님. 그럼 그분들은 한 해를 더 나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헤어졌다. 거리로 나서는 순간, 나는 외쳤다.

"뭔가 아시나요?"

"나? 전혀 몰라요. 그게 바로 재미있는 점이지."

"하지만 백 년 넘게 찾고 있는 일인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생각할 시간이 무려 삼백육십오 날이나 있어. 너무 많지 않아? 설령 그 일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라 해도, 내가 이 일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는 거야.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에게 부탁하나.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가끔씩 상기시켜 주겠지?"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그에게 이 일을 수차례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내가 그를 만날 기회가 없는 긴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기는 그가 아르메니아로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그는 '붉은 술탄'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는데, 그 결말은 독재자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그 덕분에 나는 이웃 여인, 루이즈 드에르노망에 대해 드나들던 정보를 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몇 해 전, 매우 부유한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그 젊은이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그녀를 버렸다. 젊은 여인의 절망과, 딸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간 용감한 삶에 대해 말이다.

뤼팽은 내 편지에 단 한 통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받았을까?

하지만 약속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수많은 사업 때문에 정해진 약속에 오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실 4월 15일 아침이 찾아왔지만, 내가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조차 뤼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각 15분이 되어서야 나는 집을 나서서 파시로 향했다.

곧장 골목길에 다다르자, 나는 그 노동자의 네 아이들을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 발견했다. 그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발랑디에 씨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자, 자니오 대위는요?" 그가 외쳤다.

"그가 여기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다. 군중들이 공증인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알아본 그 얼굴들은 모두, 작년의 그 침울하고 낙담한 표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제 잘못이죠.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의 친구가 남긴 인상이 너무 커서, 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큼의 신뢰감을 가지고 그 착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요컨대, 장니오 대위는 참으로 이상한 타입이군요."

그가 나를 묻자, 나는 장니오 대위에 대해 다소 허구적인 정보를 늘어놓았다. 상속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다.

루이즈 드에르남몽이 속삭였다.

"만약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쨌든 우리가 나눌 오천 프랑은 남아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거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루이즈 드에르남몽의 말은 냉기를 뿌려놓았다. 얼굴들이 굳어졌고,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오후 한 시 삼십 분, 마른 두 자매가 기절할 듯 주저앉았다.

그때, 더러운 재킷을 입은 뚱뚱한 신사가 갑자기 노테르를 향해 반발했다.

"당연한 말입니다, 발랑디에 노테르님.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 선장을 설득하든, 강제로든 데려와야 했어요. 분명 장난꾸러기였죠."

그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한편, 하인도 내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큰아이 중 하나가 문간에서 나타나 소리쳤다.

"누군가 왔어요!… 오토바이예요!…"

벽 너머로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뼈가 부러질 뻔한 각오로,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문 앞까지 다다르자마자 브레이크를 꽉 밟고서서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다.

먼지 층 아래를 살펴보니, 그의 옷차림은 단순한 관광객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두툼한 파란색 옷과 단정하게 다려진 바지, 검은 펠트 모자, 광택 나는 부츠는 모두 그가 평범한 여행자가 아님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건 장니오 대위가 아니야." 노무사는 그를 알아보는 데 주저하며 외쳤다.

"맞아." 뤼팽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장니오 대위야. 다만 수염을 깎았을 뿐이지. 발랑디에 마스터, 당신이 서명한 영수증입니다."

그는 아이 중 한 명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차고로 달려가서 자동차를 한 대 데려와. 레누아르 거리까지. 서두르거라. 두 시 이십오 분에 급한 약속이 있단다."

사람들이 항의의 제스처를 취했다. 장니오 대위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세상에! 아직 두 시간 십이 분 남았잖아. 열다섯 분이나 더 있다. 하지만 신이여,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무엇보다 배가 고픈 게 문제야!"

군하사가 재촉하듯 군용 빵을 건넸다. 그는 그 빵을 큰 입으로 쏙 물고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양해 바랍니다. 마르세유행 급행 열차가 디종과 라로슈 사이에서 탈선했거든요. 열 명쯤 죽고, 다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부상자들을 구조해야 했죠. 그래서 수하물 차에서 이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발랑디에 선생님, 적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핸들바에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 돌아왔구나, 아이야. 차는 여기 있나? 레유누아르 거리 모퉁이에? 좋아."

그가 시계를 꺼내 확인했다.

"이봐, 이봐! 시간 아깝다."

나는 뜨거운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에르몽의 상속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물론 그들은 장니오 대장에 대해 내가 뤼팽에게 품었던 신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근육이 굳어 있었다.

장니오 대장은 천천히 왼쪽으로 걸어가 해시계 곁으로 다가가더니, 잠시 동안 고개를 숙여 시계를 응시했다.

그리고 물었다.

"칼 좀 주시겠어요?"

어딘가에서 두 시가 울렸다.

정확히 그 순간, 햇살에 번쩍이는 시계 반죽에 화살표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시계 원반을 거의 반으로 가르는 대리석의 균열을 따라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선장은 건네받은 칼을 받아들고 칼집을 열었다.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틈새에 낀 흙과 이끼, 지의류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가장자리에서 십 센티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그는 멈춰 섰다. 칼끝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했다. 그는 검지와 엄지를 틈새에 깊숙이 넣더니, 작은 물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은 뒤, 결국 공증인에게 건넸다.

"여기, 발랑디에 공증인님. 우선 이것부터라도."

그것은 호두알만 한 거대한 다이아몬드였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사령관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거의 즉시, 또 한 번 멈칫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빛나고 맑은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령관은 균열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훑으며 파내렸다. 깊이는 결코 1.5센티미터를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열여덟 개를 모두 꺼냈다.

해시계 주변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소리도, 단 하나의 동작도 없었다. 상속자들은 경악해 얼어붙은 듯했다. 그러자 뚱뚱한 신사가 중얼거렸다.

"젠장, 젠장…"

그리고 하사가 신음했다.

"아, 사령관님… 사령관님…"

두 자매는 기절해 넘어졌다.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하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루이즈 드에르노몽은 울부짖었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 장니오 대위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일로부터 몇 년이 흘러야만, 나는 뤼팽에게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열여덟 개의 다이아몬드 사건? 천만에, 내 형제들 중 삼사 세대가 그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는 생각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열여덟 개의 다이아몬드는 그저 얇은 먼지 한 줌 아래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당신이 추측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 결과군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바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찰스 드에르넹몽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는 세 개의 그림판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지성의 작은 빛이 그를 매년 같은 시각, 오후 5시 27분에 구정원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빛이 매년 같은 시각 그를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뇌의 기계 장치를 조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이 불쌍한 광인을 움직였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농부 총세출자의 그림판에 새겨진 해시계의 상징이었던 '시간에 대한 본능적 개념'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 때문에, 찰스 드에르넹몽은 매년 같은 날짜에 파씨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 때문에, 그는 매년 같은 시각, 즉 태양이 오늘날의 장애물들과는 다른 것들에 가려 파씨 정원을 비추지 않는 시각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해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색 시간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단순히 그림을 보고요. 당시에 살던 사람, 예를 들어 샤를 드르네몽이라면 26 쥬르미알 2년, 혹은 1794년 4월 15일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2년 4월 15일이라고는 안 썼겠죠. 누가 그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숫자 2는 두 시간을 의미했던 건가요?"

"물론이지.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자. 재벌 농부장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금화와 은화로 바꾸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 금과 은으로 열여덟 개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를 샀다. 순찰대의 습격을 받아 그는 정원으로 달아났다.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눈은 시계바늘을 향했다. 시각은 두 시. 화살표의 그림자가 대리석의 균열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의 신호를 따라, 열여덟 개의 다이아몬드를 먼지 속에 파묻고 돌아와 군인에게 자수했다."

"하지만 화살표의 그림자가 대리석 균열과 만나는 건 4월 15일뿐만 아니라 매일 두 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친구여, 당신은 그자가 미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소. 그에게 남은 건 단 한 날짜, 4월 15일뿐이니까."

"좋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수께끼를 풀었잖소. 그렇다면 지난 일 년 동안 담장을 넘어 들어와 보석을 훔치는 건 쉬웠을 텐데."

"물론이지. 다른 상대였다면 망설이지 않고 했을 거야. 하지만 불쌍한 자들이 불쌍해서 안 됐소.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저 멍청한 뤼팽이 갑자기 자비로운 천재로 나타나 동료를 놀라게 한다는 생각에 모든 바보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잖소."

"하! 제가 보기에 그 바보짓은 그리 크지 않소. 보석 여섯 개라니. 에르몽 가의 상속인들은 기꺼이 그 계약을 이행했을 거요."

뤼팽이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모르시나요? 아, 그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군요. 에르남몽 가의 상속자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내 친구, 그 다음 날만 되어도 이 신사 장교는 치명적인 적들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이튿날, 마른 두 자매와 뚱뚱한 신사가 저항을 조직했죠. 계약서는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증명하기도 쉬웠으니까요. 장교 장니오라는 인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장교 장니오라니? 이 사나이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우리한테 덤비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루이즈 드 에르남몽 본인이요?"

"아닙니다. 루이즈 드 에르남몽은 이런 비열한 짓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부자가 된 그녀는 약혼자를 다시 찾았죠. 그 후로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쨌든, 내 친구여. 나는 함정에 빠져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지.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내 몫으로 가장 작고 가장 못생긴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받아들였어. 그러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줘."

그리고 뤼팽이 투덜거렸다.

"아, 감사라는 건 정말 속임수일세! 다행히도 정직한 사람들은 양심과,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4장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 출구 쪽으로 몰려나가는 사람들과 뒤엉키던 중, 니콜라 뒤그리발은 재킷 안주머니 쪽으로 급히 손을 뻗었다.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난 항상 불안하거든. 네 돈 때문에 말이야. 나쁜 짓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아내는 중얼거렸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돈을 지갑에 들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재산 전부가잖아요. 그 돈 마련하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게 어때서." 그가 말했다. "그 돈이 지갑에 있다는 걸 누가 안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아내가 투덜거렸다. "요즘 주워간 하인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해고한 그 아이요. 맞죠, 가브리엘?"

그 곁에 서 있던 한 젊은이가 대답했다.

"네, 고모."

두구리발 부부와 그 조카 가브리엘은 경마장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존재였다. 단골 손님들은 거의 매일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두구리발은 붉은 얼굴의 뚱뚱한 남자로, 호방하게 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부인 역시 살이 많고 표정이 평범했으며, 늘 자줏빛 비단 드레스를 입었는데 옷이 너무 낡아 낡은 자국이 뚜렷했다. 조카 가브리엘은 아주 어렸지만 마른 체격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와 곱슬거리는 금발이 특징이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마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실제로 경기에 참여해 돈을 건넌 것은 조카 가브리엘이었다. 그는 패들락에서 말들을 살피며, 조련사들과 조교들 사이를 누비며 들리는 소문을 모았다. 그리고 관중석과 무타방(합동 베팅소)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날 운은 그들에게 편이었다. 두그리발의 이웃들이 세 번이나 젊은 남자가 돈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경주가 막을 내렸다. 두그리발이 시가를 하나 피웠다.

그때 갈색 재킷을 단단히 매무새한 한 사내가 다가왔다. 그 사내는 회색빛 작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것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는 금시계와 사슬을 함께 들어 보였다.

두그리발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네… 맞아요. 제 거예요. 보세요,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N. D... 니콜라 두그리발."

그는 즉시 놀란 기색으로 재킷 주머니를 손으로 막았다. 지갑은 아직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아, 다행이군. 운이 좋았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범인을 알고 있나?"

"네, 잡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잠시 저를 따라주십시오. 이 일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전부 소속 델랑글 형사입니다. 이미 마르끄느 경위에게 알렸습니다."

니콜라 뒤크리발은 형사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관중석을 돌아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약 오십 걸음쯤 갔을 때, 누군가가 형사에게 다가와 급하게 말했다.

"시계 차남이 말을 흘렸네. 우리는 온갖 무리들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끄느 경위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파리의 무릎에서 기다리고 네 번째 막사의 주변을 감시하라고."

파리 무타엘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니마르 형사는 투덜거렸다.

"이런 약속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감시해야 한단 말인가? 마르끄느 씨가 저지르는 수법은 이미 다 알고 있다니."

그는 너무 가까이 바짝 다가오는 사람들을 밀어냈다.

"젠장! 팔꿈치를 휘두르고 지갑을 꼭 쥐어야 해. 바로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그리발 씨, 당신도 잡혔잖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이해가 가겠지.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거든. 한 놈이 발로 차고, 다른 놈이 지팡이로 눈을 찌르고, 또 다른 놈이 지갑을 훔쳐가. 세 손가락 움직임 사이사이에 끝이 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당했어."

그가 말을 멈추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미친, 여기서 곰팡이 피울 생각은 아니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도 못 쉬겠어… 아, 마르켄 씨가 거기서 손짓하시네.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그는 어깨를 내밀어 군중을 헤치고 나갔다.

니콜라 뒤그리발은 잠시 그를 따라가다 시야에서 사라지자, 밀리지 않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다.

몇 분이 흘렀다. 여섯 번째 경주가 시작되려던 찰나, 뒤그리발은 아내와 조카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델랑글 형사가 평화의 장교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돈은 아직 가지고 있니?" 아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형사에게 너무 조이지 않도록 잘 대처했단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비명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고, 그는 손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제야 그는 엉성한 소리를 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반면 뒤그리발 부인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요? 무슨 일이죠?"

"훔쳤어요…… 지갑이요…… 지폐 오십 장이……"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그녀가 외쳤다.

"네, 형사님. 사기꾼이요…… 바로 그 녀석이요……"

그녀는 진정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도둑이야! 우리 남편을 훔쳐갔다고! 오만 프랑이 없어졌어, 우리는 망했어! 도둑이야!"

순식간에 경찰들이 그들을 에워쌌고, 두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뒤그리발은 혼란스러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의 부인은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설명을 늘어놓았고, 가짜 형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찾아라! 꼭 찾아내라! 갈색 재킷에… 뾰족한 수염을 한… 이 악당,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지 모른다… 오만 프랑을 훔쳐갔지… 그런데… 아니, 두그리발, 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권총 총구를 자신의 측두부에 대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두그리발이 쓰러졌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찰의 무능과 미숙을 또다시 비난했는지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정중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던 한 남자가, 한 낮의 한 복판에서 형사 역할을 가장한 소매치기가 범행 후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니콜라 뒤그리발의 아내는 자신의 애절한 호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기자는 남편의 시체 옆에서 손을 뻗으며 죽은 자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는 그녀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데 성공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조카 가브리엘의 얼굴은 적의에 차 있었다. 그 역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몇 마디를 던지며 살인자를 추적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이 바티뇰에서 살고 있는 소박한 집안살림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한 스포츠 신문이 그들을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델랑글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두 명의 남자가 체포되었지만, 곧바로 석방해야 했다. 여러 가지 단서를 쫓았지만 이내 포기했고, 여러 이름을 거론하다가 결국 아르센 뤼팽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전보가 날아들었다. 사건 발생 여섯 날 뒤, 뉴욕에서 보내진 그 전보의 내용은 이랬다.

"비호하는 경찰이 조작한 중상모략에 격분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불쌍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내 상거래 은행에 지시를 내려, 희생자들에게 오만 프랑을 지급하라. — 뤼팽"

실제로 그 전보가 세상에 나온 바로 다음 날, 한 낯선이가 뒤그리발 씨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봉투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 봉투 안에는 백 프랑짜지 지폐 오십 장이 들어 있었다.

이 반전은 오히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졌고, 이는 다시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틀 뒤, 새벽 네 시쯤. 댜그리발 씨와 가브리엘과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끔찍한 비명을 듣고 깨어났다. 사람들이 쫓아갔다. 관리인이 간신히 문을 열었다.

이웃이 가져다준 촛불 빛에 비쳐서, 그는 가브리엘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목과 발목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입마개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댜그리발 씨가 가슴에 난 큰 상처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돈… 내가 도둑맞았어요… 지폐가 다…"

그리고 그녀는 기절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잇자마자, 뒤주르ival 삼촌이 조카의 증언을 보충했다.

가브리엘은 두 남자의 습격으로 깨어났다고 했다. 한 남자는 그의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남자는 그를 묶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이모가 그들과 벌인 격렬한 싸움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뒤주르ival 삼촌은 그 싸움이 끔찍했다고 증언했다.

도둑들은显然히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직감에 이끌린 듯 즉시 돈을 보관하던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이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비명을 지르며 막았지만, 그들은 지폐 뭉치를 가져갔다. 도망치기 전, 한 도둑은 이모에게 팔을 물린 보복으로 칼로 찔렀고, 그들은 곧장 도망쳐 버렸다.

"어디로 나갔느냐?" 하고 물었다.

"내 방 문으로 들어와, 이어서 현관문으로 나갔겠지."

"말도 안 돼. 관리인이 그들을 발견했을 거야."

모든 신비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도둑들이 어떻게 집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 세입자 중 한 명이었을까? 철저한 조사 끝에 그런 추측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가 입증되었다.

이 사건을 특별히 담당했던 가니마르 형사는, 자신에게 더 이상 당혹스러운 사건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건 뤼팽스럽군. 하지만 분명 뤼팽이 아니야…… 아니, 이 사건 뒤에는 뭔가 더 깊은 게 숨어 있어. 어딘지 모르게 불분명하고, 영 찜찜한 기색이 느껴져. 게다가 만약 진짜 뤼팽이였다면, 왜 자신이 보낸 오만프랑을 다시 돌려받았겠어?

두 번째 도난 사건과 첫 번째 사건, 즉 경마장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야.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지. 게다가 드물게 느

껴지는 이런 기분이 들어.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했어."

지배형사는 끝없이 추궁했다. 기자들은 사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탰고, 유명한 영국 탐정이 영국을 건너왔다. 추리 소설에 열광하는 부유한 미국인은 진실을 밝혀내는 이에게 다액의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육 주가 지나도 얻은 것은 없었다. 대중은 가니마르의 판단을 옳다고 여겼다. 지배형사조차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지겨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두그리발 부인의 삶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다. 조카 가브리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그녀는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아침이 되면 가브리엘은 그녀를 식당의 창가 옆 안락의자로 모셔다 놓았다. 그리고 집안일을 치른 뒤 장을 보러 나섰다. 점심을 준비할 때에도 그는 관리인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다.

경찰의 조사와 특히 인터뷰 요청에 지친 두그리발 부인과 조카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심지어 잡담이 두그리발 부인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던 관리인도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관리인은 화를 내며 가브리엘에게만 화풀이를 했다. 가브리엘이 현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가 그를 쫓아와 야단을 쳤다.

"조심하세요, 가브리에르 씨. 둘 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당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젯밤에도 제 남편이 당신의 창문을 노려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군." 가브리에르가 대답했다. "경찰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겠지. 오히려 좋은 일이지."

그러던 어느 오후, 네 시쯤 되어서였다. 거리 끝에서 두 노점상 사이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관리인은 즉시 관리실 문을 나와 서로를 향하며 날리는 욕설을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한 남자가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섰다. 그는 젊고 키는 보통이었으며, 손맛이 떨어지지 않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계단을 올랐다.

삼층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세 번째 때려서야 문이 열렸다.

"두그리발 씨?" 그가 모자를 벗으며 물었다.

"두그리발 여사는 아직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누구도 접대할 수 없습니다." 안방에서 기다리던 가브리엘이 선을 그었다.

"무조건 그녀와 대화해야 합니다."

"제가 그녀의 조카입니다. 제가 대신 전해 드릴 수도 있겠는데……"

"좋소." 그 남자가 말했다. "두그리발 여사께 말씀해 주시오. 운명처럼 그녀가 당한 도난 사건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얻었으니, 그녀가 내

게 이 아파트를 살펴보게 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하게 하길 원한다고. 나는 이런 종류의 조사에 아주 익숙하며, 내 개입이 그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잠시 그를 살펴보다가,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이모님께서 동의하시겠군요. 부디 들어가십시오."

그는 식당 문을 열고는 몸을 피워, 낯선 이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는 문턱까지 걸어갔지만, 막 그 문을 지나려던 순간, 가브리엘은 팔을 들어 번개처럼 내리쳤다. 오른 어깨 위를 칼날이 스쳤다.

방 안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명중이다!" 뒤그리발 씨가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잘했다, 가브리엘. 하지만 말이지, 그 도적, 죽이지는 않았지?"

"죽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모. 칼날이 얇았고, 저는 힘을 빼고 찔렀거든요."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섰다. 얼굴은 죽은 자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미친놈!" 과부가 비웃었다. "우리 함정에 걸렸군… 운이 좋네! 여기에서 널 기다린 지가 오래다. 자, 친구, 내려가라. 싫지? 어쩔 수 없지.

완벽해! 먼저 한 무릎 꿇고, 여주인 앞에서, 그리고 다른 무릎도… 정말 예의 바르군!… 툭, 하고 쓰러졌다! 아, 예수 그리스도, 내 불쌍한 뒤그리발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이제 가브리엘, 일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거울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다. 드레스들을 치우자 장 뒤쪽 판문이 열렸고, 그 너머로 이웃 집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드러났다.

"가브리엘, 나를 도와 그를 들어 올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 간호해 줘, 알겠지? 지금 그 예술가는 무게만큼의 금값을 해."

어느 날 아침, 부상자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맞았던 방보다 더 큰 방에 누워 있었다. 방에는 몇몇 가구가 놓여 있었고, 창문을 위아래로 완전히 가리는 두꺼운 커튼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빛은 충분히 들어와서, 그는 옆에 앉아 자신을 관찰하고 있던 젊은 가브리엘 뒤그리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 너였구나, 꼬마." 그가 중얼거렸다. "잘했어, 내 친구. 너의 칼끝은 정확하고 섬세하군."

그리고 그는 다시 잠들었다.

그날과 그 뒤 며칠 동안, 그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났다. 매번 그는 청소년의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입술, 그리고 너무도 차가운 표정을 지닌 검은 눈을 보았다.

"너 무서워. 만약 내가 처형되기로 맹세했다면, 주저하지 마. 하지만 좀 웃어주지 그래? 죽음이란 생각은 늘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이란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너와 함께하니, 친구야, 분위기가 좀 음산해지네. 잘 자, 나는 더 잘 게."

그렇지만 가브리엘은 뒤그리발 씨의 명령에 따라 그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환자의 열은 거의 내렸고, 우유와 국물 같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씩 힘을 되찾았고,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회복 중인 환자, 언제 첫 외출을 하려나? 작은 수레는 준비됐나? 하, 장난도 심하네, 녀석! 너는 무슨 큰 죄를 지으려는 것처럼 울상이다. 자, 아빠에게 웃어봐."

어느 날, 그는 눈을 뜨자마자 몹시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몇 번이나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다리, 몸통, 팔을 모두 침대 철사에 묶어둔 것이었다. 미세한 강철 끈이 그의 살에 파고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따랐다.

"아," 그는 간수에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큰일 났군. 닭이 도살당하는 셈이네.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죽이는 건가? 만약 네가 하려는 거라면, 친구야, 면도날은 깨끗하게 해두게! 위생 서비스라도 부탁하네."

그때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정면에 있는 문이 열리자 뒤그리발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의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한 뒤,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으악, 이거 뭐지? 아비두 극장 4막, 배신자의 심문 장면인양. 그런데 처형자가 아름다운 여성이라니…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손'이군. 영광이지." 뒤그리발 부인, 내 얼굴을 망가지게 하지 말라고 기대해도 좋겠지?

"조용히 해, 뤼팽."

"아,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대단한 직감이에요."

"조용히 해, 뤼팽."

그녀 목소리에는 뭔가 장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기운에 눌린 뤼팽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두 감시인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부어오른 얼굴과 붉은 기운이 도드라진 두구리발 씨와 달리, 조카의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두 사람 모두 꺾이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부인이 몸을 숙이며 물었다.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소?"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잘 들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구리발이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소?"

"하인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일했던 하인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구리발의 시계를 먼저 훔쳐 나중에 돌려주며 그의 신뢰를 얻은 것도 당신이죠?"

"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몸을 굳혔다.

"바보야! 정말 바보라고! 네가 내 사람을 죽이고, 자살로 몰아넣었으면서도, 왜 세계 구석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나? 오히려 파리 한복판에서 또다시 뤼팽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죽은 자의 영혼을 걸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는 건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그게 궁금하네요," 뤼팽이 말했다. "왜 저를 용의자로 의심한 겁니까?"

"왜요? 바로 당신 스스로 범인임을 드러냈으니까요."

"당연하죠. 오만 프랑짜리 선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냥 선물이었을 뿐이잖아."

"맞아. 전보로 명령해서 내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선물을 보내라던 거지. 선물이라니, 참으로 유쾌한 농구야! 즉, 네가 죽인 그 불쌍한 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너는 과감하게, 물론 대중을 의식해서, 과시하듯 widowed에게 돈을 돌려줬어. 넌 항상 이런 식으로 소동을 일으키잖아. 배우처럼. 훌륭해! 하지만, 내 친구, 그 경우엔 두그리발로부터 훔친 지폐 그 자체를 내게 건네지 않았어야 해! 그래, 완전한 바보야, 바로 그 지폐들을,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두그리발은 그 지폐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넌 그다지 똑똑하지 못해서 그 봉투를 내게 보냈지! 이제 네 어리석음을 이해하겠니?"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실수라니, 참 우스운 일이군. 내 책임은 아니야. 내가 내린 명령은 다른 데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야."

"그래, 인정하는군. 자필 서명을 한 셈이야. 곧장 네 도둑질을 자백한 거고, 네 패배를 확정지은 거지. 이제 남은 건 너를 찾아내는 것뿐이었어. 아니, 그건 너무 평범해. 뤼팽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야. 정말 명수(名手)의 작전이지."

"이 아이디어는 내 조카가 생각해냈어. 그 녀석은 나만큼이나, 아니 더한 정도로 네가 밉다. 그리고 너에 대해 책으로 나온 모든 것을 다 공부한 인물이지. 그는 네 호기심을 알고 있어. 네게 꼭 필요한 모험심을 알고 있어. 어둠 속에서 헤매며, 다른 이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려 하는 네 버릇을 잘 알고 있지. 또 네 특유의 가짜 선량함, 즉 피해자에게 가짜 눈물을 흘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연민심도 꿰뚫고 있어. 그래서 그는 이 연극을 기획한 거야! 두 침입자의 이야기라든가, 오만 프랑을 다시 훔쳤다는 거짓말까지 모두 그 녀석이 고안한 거지."

"하! 내가 내 손으로 칼을 찌르며 입은 상처는 오히려 달콤했어! 정말로 말이야. 그리고 그 작은 녀석과 나는 너를 기다리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우리 창문 아래를 배회하며 장소를 정찰하는 네 부하들을 지켜보며 말이야. 그리고 틀림없었어. 너는 반드시 올 거야. 네가 두만 프랑을 두그리발 과부에게 돌려줬으니, 그 과부가 다시 그 돈을 잃는 것을 방치할 리가 없었지. 너는 신비의 냄새를 맡고 왔어. 네 허영심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왔지. 그리고 마침내 네가 왔어!"

과부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어때, 이 정도면 잘했지? 뤼팽 중의 뤼팽! 마스터 중의 마스터! 닿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사람 말야. 이제 여자와 아이 하나한테 덫에 걸렸어.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일 뿐이지. 손발이 묶인 채, 딱정벌레만도 못한 약한 존재로 변했어. 이제 그대가 있군. 그대가 있어."

그녀는 기쁨에 몸이 떨렸다. 그리고는 맹수가 먹이를 놓치지 않고 노려보듯, 그를 눈에서 떼지 않은 채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뤼팽은 한 인간에게서 그토록 깊은 증오와 야만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말은 충분히 했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그 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낮고 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열흘 동안, 뤼팽. 네 주머니에서 찾은 서류 덕분에 나는 시간을 알차게 썼지. 네 모든 사정, 네가 꾸민 모든 수법, 네가 쓴 모든 가명, 그리고 네 무리의 조직 구조와 파리 및 타지에서 네가 소유한 모든 거처를 다 알아냈어. 심지어 네가 가장 비밀스럽게 쓰는 곳도 직접 가봤어. 거기엔 네 서류와 장부,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군.

내 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 여기 네 권의 수표장 각각에서 떼어낸 수표 네 장이 있네. 이 수표들은 네가 네 가지 다른 이름으로 개설한 네 개의 은행 계좌와 정확히 일치해. 각 계좌에는 만 프랑을 입금해 뒀지. 더 큰 금액은 위험할 수 있었어. 이제 서명해."

"세상에!" 뤼팽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정말이지, 뒤그리발 부인. 이건 명백한 협박이군요."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숨이 막힐 지경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는 저를 압도합니다. 그러니 이 함정은 '지옥 같은 함정'이라 불러야겠군요. 제가 빠진 그 지옥 같은 함정은, 복수에 굶주린 과부가 건넨 것이 아닙니다. 자사의 자본을 불리려던 훌륭한 사업가가 함께 덫을 친 것이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데, 뒤그리발 씨는 혹시……?"

"네가 바로 그 말이야, 뤼팽. 차라리 숨길 것도 없지. 네 양심이 좀 더 가벼워질 테니까. 맞아, 뤼팽. 뒤그리발은 너와 같은 일을 했어. 물론 큰일은 아니었지. 우리들은 소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저기서 금화 한 닢, 저기저기서 금화 한 닢. 그리고 가브리엘이 우리 손에 길들여져서 경마장 이곳저곳에서 지갑을 털어 왔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재산을 쌓았어. 배추를 심을 정도는 됐지."

"그게 더 낫군." 뤼팽이 말했다.

"좋아.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내가 초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네가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야. 구조? 안 돼. 우리가 있는 이 방은 내 방과 이어져 있어. 숨겨진 출구가 하나 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 원래 이 방은 뒤그리발의 전용 공간이었어. 그는 여기서 친구들을 만났지. 작업 도구도, 변장용 의상도 있었고… 전화기까지 있었어. 네가 직접 볼 수 있잖아. 그러니 도움은 기대하지 마. 동료들도 여기서 네 흔적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다른 길로 유도했거든. 네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했나?"

"그럼 서명해."

"내가 서명하면,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먼저 내가 그걸 건네받아야 해."

"그 다음엔?"

"내 영혼과 영원한 구원을 걸고, 네게 자유를 주겠어."

"신뢰가 가지 않네."

"선택할 여지가 있나?"

"그렇지. 줘."

그녀는 뤼팽의 오른손을 떼어내며 펜을 건넸다.

"수표 네 장에 네 가지 다른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 매번 필체도 달라."

"걱정 마."

그가 서명했다.

"가브리엘, 이제 열시다. 정오가 돼도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악당들이 또다시 나쁜 장난을 친 거야. 그때는 그놈의 머리를 박살 내라. 네 삼촌이 자살할 때 썼던 권총을 네게 맡긴다. 총알 여섯 중 다섯이 남아 있다. 충분하다."

그녀는 흥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꽤 긴 침묵이 흘렀다. 뤼팽이 중얼거렸다.

"내 목숨을 이 푼이에도 안 팔겠군."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얼마나?"

상대가 대답하지 않자, 뤼팽은 성이 나서 소리쳤다.

"그래, 얼마나 줄까? 대답이나 해 봐! 우리 둘 다 같은 직업이잖아. 내가 도둑질하고, 너도 도둑질하고, 결국엔 우리가 다 도둑질하는 거야. 그럼 서로 잘 어울려야지. 그렇지? 잘 될 거야? 그럼 도망치자고. 내 무리에 한 자리 주마. 아주 좋은 자리야. 너는 얼마를 원해? 십만 프랑? 이십만 프랑? 네 값을 붙여. 아깝게 생각하지 마. 금고는 가득 차 있어."

그는 감시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 그는 대답도 하지 않겠구나! 자, 보자. 도그리발이 그렇게 좋았어? 들어 봐, 나를 풀어준다면… 자, 대답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젊은이의 눈에는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잔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크레놈, 크레놈!"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개처럼 죽어나가랴! 아, 만약 내가……"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슬을 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노력은 그를 절규하게 만들었고, 그는 지친 몸으로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그가 속삭였다. "됐어. 과부가 말한 대로, 나는 끝장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깊은 곳에서' 시작하네, 뤼팽."

15분이 흘렀다. 반시간이 지나갔다.

가브리엘이 뤼팽에게 다가가자,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잠든 사람처럼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뤼팽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는 줄 알지? 그건 아니야, 아이야. 이 시각에는 잠을 자지 않지. 다만 마음을 정리할 뿐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 나 나름의 이론이 있어. 내가 보는 대로, 나는 영혼의 전이와 윤회를 믿는 편이야. 하지만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 소년아… 헤어지기 전에 악수라도 할까? 안 할래? 그럼 안녕…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래, 가브리엘…"

그는 속눈썹을 내리고 입을 다물었다. 뒤그리발 부인이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과부가 정오 조금 전에 성큼 들어섰다. 그녀는 매우 흥분한 듯 보였다.

"돈이 있어, 네동생아. 가. 아래에 있는 차에서 만날게."

"그를 끝장내는 건 내가 직접 하겠소. 당신까지 필요 없소. 하지만 만약 그 악당 찌푸린 얼굴을 보고 싶다면? 그쪽이 원하든 말든."

그녀가 말했다.

"도구를 건네주시오."

가브리엘이 권총을 건넸다. 과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서류는 모두 태웠소?"

"그렇소. 그리고 그의 계산을 마치는 대로, 즉시 도망치자. 총소리는 이웃을 부를 수 있소. 두 방이 텅 비어 있어야 하오."

그녀가 침대 쪽으로 다가섰다.

"준비됐소, 뤼팽?"

"그야말로 불타오를 듯이 기다리고 있소."

"특별히 할 말은 없소?"

"없소."

"그럼…"

"잠깐, 한 마디만."

"말하시오."

"만약 내가 저승에서 뒤그리발을 만난다면, 내 대신 뭐라고 전해야 하오?"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권총의 총구를 뤼팽의 측두부에 대었다.

"완벽하군요,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떨지 마세요, 좋은 아가씨…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당신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명령에 따라, 네… 다… 삼…"

과부는 방아쇠를 당겼다. 포성이 울려 퍼졌다.

"이게 죽음이란 말인가?" 뤼팽이 말했다. "참 묘하군. 나는 삶과 훨씬 다를 줄 알았는데."

이어 한 방의 포성이 더 울렸다. 가브리엘은 이모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살펴보았다.

"아, 총알이 제거됐군… 남은 건 폭약 캡슐뿐이야…"

그와 이모는 잠시 동안 말도 못 하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당황하기 그지없었다.

"말도 안 돼…" 이모가 헛간거렸다. "누가 그랬을까… 형사일까… 심판관일까…"

그녀는 말을 멈추더니, 목이 메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 봐… 소리가 나."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과부는 현관까지 나갔다.

다시 돌아온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다. 실패한 데다, 직전에 느꼈던 공포까지 겹쳐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아무도 없네. 이웃집 사람들은 다 나갔나 봐. 시간이 있어. 아, 뤼팽, 넌 이미 장난을 치고 있었구나. 칼을 가져와, 가브리엘."

"제 방에 놔뒀습니다."

"가서 가져와."

가브리엘은 재촉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과부는 분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는 맹세했다!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친구여!… 두그리발에게 맹세했고, 아침저녁으로 그 맹세를 되풀이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맹세한다! 사자의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권리다!… 어허, 뤼팽, 너 이제 장난치지 않는 것 같군… 미친놈 같으니라니, 도무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무서워한다! 눈빛만 봐도 알겠어! 가브리엘, 와라, 아이야… 그의 눈을

봐라! 입술을 봐라… 그가 떨고 있다… 그가 오한에 떨 때, 칼을 내밀어 그의 심장에 꽂아버리자! 어허, 겁쟁이! 빨리, 가브리엘, 칼을 가져다주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뛰어오며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방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아! 내가 직접 해내마!"

두그리발 부인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뤼팽의 목을 잡았다. 십 개의 손가락을 꽉 쥐고,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옥죄었다. 절박한 비명 같은 신음소리와 함께 뤼팽은 힘을 잃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며 날아갔다.

"뭐야? 무슨 일이지?"

부인은 놀라 몸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했다.

가브리엘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부인이 되물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든 것은 바닥에 총알이나 파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유리는 분명히 무겁고 커다란 물체, 아마 돌멩이 같은 것에 부딪혀 깨진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침대 밑과 서랍장을 뒤졌다.

"없어요."

"나도 없어."

그가 찾는 동안에도 그녀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무서워요… 힘이 빠져요… 끝내줘요…"

"나도 무서워."

"그래도… 그래도… 그녀는 더듬거렸다.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맹세했으니까…"

힘을 다해 그녀는 뤼팽 곁으로 돌아갔다. 굳은 손가락으로 그의 목을 감았다. 하지만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살피던 뤼팽은 그녀가 자신을 죽일 힘이 없음을 뚜렷이 느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신성하고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그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다. 그 힘은 이미 세 번이나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그를 구해냈다. 그리고 죽음의 함정에서 그를 구해낼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 같은 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글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자리라면 저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속임수꾼이로구나!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 헛소리에요, 친구."

"알고 있어요. 나를 구해 주는 건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나를 구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정말 이상해. 기적 같은 일이야. 소름 끼칠 정도지."

"망할 년! 곧 웃지 못하게 해줄게."

"그건 좀 의외군."

"기다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조카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할까?"

"팔을 묶어두고, 우리는 가자고."

그건 잔인한 조언이었다. 뤼팽을 가장 끔찍한 죽음, 굶주림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건 안 돼. 그가 또 다른 구명 보트를 찾을 수도 있어.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어."

그녀는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연결이 되자 물었다.

"822-48번입니다."

잠시 후,

"여보세요, 보안국입니다. 수석 형사 가니마르 씨 계신가요? … 아니, 스무 분 뒤라니요? 아쉽군요! … 어쨌든! 형사가 오시면 뤼그리발 씨의 말씀 전해주세요. … 네, 니콜라 뤼그리발 씨입니다. … 형사에게 제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제 찬장 문을 열면 됩니다. 문을 열면 알겠지만, 찬장 뒤로 다른 두 방과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답니다. 그 방 중 한 곳에는 단단히 묶인 남자가 있어요. 바로 도둑이자 뤼그리발 살해범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어요? 가니마르 형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는 믿어 줄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남자의 이름도 빼먹었네요. 아르센 뤼팽!"

그리고는 더 이상 말 없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일이 다 끝났군, 뤼팽. 솔직히 말해 이 복수가 오히려 마음에 들어. 이제 뤼팽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얼마나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할지 상상만 해도 재미있어. 가브리엘, 갈까?"

"네, 고모."

"안녕, 뤼팽.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우리는 해외로 떠날 테니까. 하지만 감옥에 가면 초콜릿 보내줄게."

"초콜릿이요, 어머님! 그건 같이 먹어야죠."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과부가 조카와 함께 나가고, 뤼팽은 혼자 방에 묶인 채 남았다.

즉시 그는 자유로운 팔을 움직여 매듭을 풀려 했다. 하지만 첫 시도에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힘으로는 강철 줄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열병과 공포로 지친 그는, 가니마르가 도착하기 전 남은 스물, 서른 분 동안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친구들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다. 세 번이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 기적 같은 우연의 일치였지, 친구들의 개입 때문이 아니었다. 만약 그들이 도와줬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반전에 기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단호히 구해냈을 테니까.

아니, 더 이상 희망을 버려야 했다. 가니마르가 곧 올 것이다. 가니마르가 그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이상하게도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옛 적의 비웃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 날 그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터져 나올 웃음소리도 상상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말하자면 전장에서, 강력한 적들의 무리에게 붙잡히는 것쯤은 괜찮았다. 하지만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마치 채소 따듯 손쉽게 '줍혀'지는 건 너무 우스꽝스러웠다.

수많은 차례 남들을 조롱해 온 뤼팽에게, 뒤그리발 사건이 이런 결말을 맞는 건 그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굴욕이었다. 과부의 지옥 같은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결국에는 '완성된 요리'처럼, 적당히 익히고 맛깔나게 양념까지 해둔 사냥감처럼 경찰에게 '공짜로' 건네진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참으로 불쌍한 과부!" 그가 투덜거렸다. "차라리 목을 베어주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는 귀를 기울였다. 옆방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들렸다. 가니마르일까? 아니다. 비록 그가 급히 달려왔을지라도, 아직 그 곳에 도착했을 리 없었다. 게다가 가니마르라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른 인물이 문을 그렇게도 살며시 열었듯이.

뤼팽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세 번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떠올렸다. 정말로 그 과부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누군가가, 이제 자신을 구해주러 오는 것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뤼팽은 그 이방인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이방인은 침대 뒤로 몸을 숙였다. 뤼팽은 스틸 와이어를 자르는 플라이어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그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먼저 몸통이 풀렸다. 그다음 팔이 풀렸다. 마지막으로 다리가 풀렸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주 약한 힘으로,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이방인이 몸을 일으켰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큰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레이스 모자를 쓴 여자였다. 그가 판단하기로는, 이 여자는 젊었고, 키는 크고 마른 우아한 체형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가셔야 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뤼팽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애원했다. "힘이 안 들어…"

"이거 마셔."

그녀가 컵에 우유를 따라 건넸다. 그 순간, 그녀의 레이스 옷깃이 살짝 벌어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너? 너야? …" 그가 헛소리를 했다. "네가 여기 있구나? … 네가 그 사람이지?"

그는 경악한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가브리엘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날렵하고 균형 잡힌 얼굴빛은 같았고, 입매의 차갑고 불친절한 표정 또한 일치했다. 남매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의 유사함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같은 존재였다.

뤼팽은 가브리엘이 여자 옷을 입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바로 곁에 한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적개심을 불태우며 칼로 찔렀던 그 소년은, 실은 여자가 맞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부부 두그리발은 그들의 직업 활동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그녀가 소년 복장을 하도록 길들였다.

"당신…… 당신……" 그가 반복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는 작은 약병의 내용을 컵에 따라 넣었다.

"이 강장제를 마셔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독약이 아닌지 의심하며 망설였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가 당신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군." 그가 말했다. "당신이 권총의 방아쇠를 뺐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칼을 숨겼던 거고요?"

"여기 있네요. 제 주머니 속에."

"당신이 이모가 저를 질질 때 그 창문을 깨뜨린 것도 당신이죠?"

"네, 제가요. 이 책상 위에 있던 문진으로 거리로 던졌어요."

"하지만 왜요? 왜 그랬어요?" 그는 완전히 당황한 채 물었다.

"마셔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처음에 왜 저를 때렸어요?"

"마셔요."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찾아든 신뢰감에 따라, 컵에 담긴 물을 한 번에 들이켰다.

"빨리 옷을 입으시오…."

그녀가 창가 쪽으로 물러서며 명령했다.

그는 순종했다. 그녀는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기진맥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온 힘을 모으라고 다그쳤다.

그녀는 몸을 살짝 굽혀 그가 어깨에 기대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를 문 쪽, 계단 쪽으로 이끌었다.

뤼팽은 걸었다. 걸었다. 꿈속을 걷는 것처럼, 기이한 꿈속을 걷는 것처럼. 꿈속에서는 세상의 일들이 가장 비논리적으로 일어나곤 하지. 그것은 그가 지난 이 주일간 겪었던 끔찍한 악몽의, 다행스러운 결말이었다.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련한 가니마르! 정말 운이 없군. 내 체포 장면을 구경할 수만 있다면, 두 수레를 던져주겠어."

그는 의지할 곳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옆에 있던 여인이 놀라울 만큼 강한 힘으로 그를 부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곳에는 이미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인은 그를 차 안으로 태웠다.

"가세요."

여인이 기사에게 말했다.

바람과 흔들림에 머리가 어지러웠던 뤼팽은 여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거처로 삼는 집 중 한 곳으로 돌아와 의식을 되찾았다. 집에는 하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 하인에게 여인은 몇 가지 지시를 남기고 떠났다.

"너는 나가."

뤼팽이 하인에게 말했다.

여인도 떠나는 기색을 보이자, 뤼팽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당겨 멈추게 했다.

"안 돼… 안 돼… 먼저 설명해 줘. 왜 나를 구했어? 네 이모 몰래 돌아온 거야? 그런데 왜 나를 구한 거지? 불쌍해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상체를 곧게 펴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 채, 그녀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뤼팽은 그녀의 입매에서 잔인함보다는 쓴맛이 더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녀

의 눈, 아름다운 검은 눈에는 우울함이 드러나 있었다. 뤼팽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반발의 경련처럼 그를 밀어냈고, 그 손길에는 증오가, 거의 혐오까지 느껴졌다. 그가 고집스럽게 손을 놓지 않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뤼팽은 당황했고, 그녀는 전율하며 어지러움에 휩싸여 창백한 얼굴에 유례없는 붉은 기운이 돌았다. 뤼팽은 부드럽게 말했다.

"제게 증오를 품고 계셨다면, 그냥 제가 죽는 방치하시면 됐을 텐데요. 그건 쉬운 일이었잖아요.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왜요?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급히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 손가락 사이로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위로받고 싶은 어린아이에게 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좋은 충고를 해주며, 그녀를 구해주려 했다. 그녀를 잘못된 삶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싶었다.

그러한 말은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는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사라져 버렸

다. 그는 병상에서 그 젊은 여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다치게 한 남자를 돌보며, 그의 용기와 낙천적인 태도에 감탄했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세 번이나, 본능적인 충동에 이끌려, 분노와 격정의 파도를 이겨내며,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

그 모든 일이 너무 기이했고, 너무 예상치 못했다. 뤼팽은 놀라움에 휩싸여 혼란스러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뒤로 물러서며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사라져 버렸다.

그는 거칠게 종을 불렀다.

"저 여자를 따라가라." 그가 하인에게 명했다. "아니, 그냥 여기 있어라. 어차피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그 기묘하고 감동적이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모를 다시금 머릿속으로 훑어냈다. 그 사건에서 그는 거의 패배할 뻔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의 거울을 들어, 병과 불안으로 너무 망가지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어느 정도 자족감이라도 갖으며 오래도록 응시했다.

"아무래도 잘생긴 게 좋군." 그가 중얼거렸다.

제5장

그날 아침, 평소처럼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상테 형사 가니마르가 사거리에서 집 밖으로 나섰을 때, 한 남자의 묘한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그 남자는 펠골레즈 거리를 따라 가니마르 앞을 걷고 있었다.

남자는 초라한 차림새였다. 11월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모자 대신 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50보에서 60보마다 몸을 굽혔다. 신발끈을 묶는 척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주워 올리는 척하기도 했다.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몸을 숙이기도 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오렌지 껍질 조각을 꺼내, 은밀하게 인도 가장자리에 떨어뜨려 놓았다.

단순한 버릇일지도 모른다. 분명히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아이들 장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가니마르는 남다른 눈빛을 가진 형사였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고, 모든 일의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남자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그랑드아메 거리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가니마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남자가 열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와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꼬마는 왼쪽 건물들을 따라 걷고 있었다.

스무 걸음쯤 더 나아가자, 남자는 몸을 숙였다가 바지 끝을 다시 내려쳤다. 오렌지 껍질이 한 장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꼬마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손에 쥔 쪽으로 옆집 벽에 하얀 십자표를 그었다. 그 십자표는 동그라미로 둘러싸여 있었다.

두 인물은 여전히 산책 중이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멈춰 섰다. 낯선 남자가 핀을 주워 올리고, 오렌지 껍질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꼬마는 즉시 벽에 두 번째 십자표를 그렸다. 이번에도 하얀 동그라미 안에 그 표를 새겨 넣었다.

'젠장, 잘됐군.'

가니마르 형사는 만족스러운 중얼거림을 터뜨리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재미있겠어. 저 두 놈이 도대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걸까?'

두 '단골'은 프리들랑 대로와 생토노레가를 따라 내려갔다. 하지만 그 후로 주목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의 정해진 간격을 두고, 그 두 사람의 행위가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가니마르 형사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오렌지 껍질 남자'가 표시할 집을 먼저 정한 뒤 작업을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년이 동료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표시를 남긴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분명히 통조하고 있었다. 형사는 이 숨겨진 작전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보보 광장에 이르러 오렌지 껍질 남자는 잠시 주저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바지 밑단을 두 번 들어 올렸다. 그러자 소도는 인도 가장자리, 내무부 경비를 서는 병사 맞은편에 앉아 돌바닥에 작은 십자 두 개와 원형 두 개를 그렸다.

엘리제 궁 앞에서도 상황은 똑같았다. 다만, 대통령 경호병이 서성이는 보도 위에서는 두 번이 아닌 세 번의 신호가 오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가니마르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감정에 휩싸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적인 뤼팽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뤼팽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이오?'

그는 잠시라도 그 두 '손님'을 붙잡아다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만큼 우둔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렌지

껍질 단지를 든 남자는 이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고, 소년 역시 담배를 하나 쥐고 다가와 겉으로는 불을 빌려달라고 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아이는 순식간에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가니마르 형사는 그것이 칼집에 낀 권총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그 물건에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벽을 등진 남자는 여섯 번이나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마치 총을 장전하듯 손동작을 했다.

그 일을 마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수렌 거리로 향했다. 형사는 그들의 시선을 끌까 봐 조심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따라갔다. 그들은 창문을 모두 닫아둔 낡은 집 현관 아치 안으로 들어섰다. 단 하나, 꼭대기 층인 세 번째 층의 창문만 열려 있었다.

그는 그들 뒤를 따라 뛰었다. 현관문 끝자락에서 그는 넓은 안마당 깊숙한 곳에 페인트 공사를 알리는 간판이 걸린 것과, 왼쪽에는 계단 난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 첫 번째 층에 닿자마자 그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꼭대기에서 두드리는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층의 발코니에 다다랐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달려가 문턱에 섰다. 숨이 차오르고 있

었지만, 더 놀란 것은 오렌지 껍질 무늬 옷을 입은 남자와 꼬마가 의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때, 옆방에서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스물여덟에서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짧게 깎은 콧수염과 안경을 쓰고, 아스트라칸 털 안감이 달린 실내용 조끼를 입은 그는 마치 러시아인 같은 낯선 풍모를 풍겼다.

"안녕, 가니마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두 동료를 향해 이렇게 덧붙였다.

"고맙다, 친구들. 잘했다. 약속한 보상을 건넨다."

그는 그들에게 백 프랑 지폐 한 장을 쥐여주고는 밖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두 개의 문을 닫으며 자신을 가두었다.

"미안하네, 친구. 자네와 꼭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 급한 일이라고."

그는 가니마르에게 손을 내밀었다. 형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어리둥절해 서 있는 중이었다. 그러자 뤼팽이 외쳤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분명히 말했잖아. 네가 급하게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렇지?"

그는 마치 상대방의 반박에 대답하듯 태연하게 덧붙였다.

"아니야, 친구. 넌 착각하는 거야. 내가 편지나 전보를 보냈다면, 넌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군대 하나를 데리고 왔겠지. 하지만 나는 너와 단둘이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착한 친구들을 네 앞에 세우고, 오렌지 껍질을 깔고, 십자표와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기까지 오도록 길을 표시해 두라고 했지."

"그래서 어때? 넌 당황한 표정이군. 무슨 일이지?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뤼팽…… 아르센 뤼팽…… 기억을 더듬어 봐. 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미친놈." 가니마르가 이를 갈며 낮게 중얼거렸다.

뤼팽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분노하셨나 봐요? 눈빛으로 알겠어요… 뒤그리발 사건 때문이죠? 제가 잡히길 기다렸어야 했나요?… 세상에,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군요! 다음부터는 꼭…

— 악당, 가니마르가 이를 갈며 말했다.

— 제가 그토록 기쁘게 해드리려던 건데!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가니마르 형사, 오랜만에 만났으니 꼭 안아줄 거야.'

아직도 움직이지 않던 가니마르는 황홀한 듯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뤼팽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안아줄까 하는 의

구심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다. 그러나 곧 자신을 가라앉힌 그는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다. 마치 상대의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말이다.

"말해라. 허튼소리 말고. 나는 시간이 없다."

"맞아요, 가니마르 형사.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보다 더 조용한 곳도 드물 거예요. 이 호텔은 노르망디의 오래된 성으로, 로슈로르 공작 소유입니다. 공작은 이 호텔을 절대 찾지 않아서, 저는 이 층을 빌렸고, 페인트공에게 부속 건물을 쓰게 했죠. 저도 비슷한 방을 몇 군데 가지고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여기서는 제가 마치 러시아 대귀족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직 장관인 장 도브뢰유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좀 지저분한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오?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가니마르가 끊었다.

"맞아요, 제가 수다를 떨었네요. 형사는 바쁘실 테니까요. 미안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오 분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가 한 대 어때요? 안 되죠? 좋습니다. 저도 안 피우니까."

그도 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 손을 얹고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1599년 10월 17일, 화창하고 즐거운 하루였지……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럼, 1599년 10월 17일.

아, 하긴. 앙리 4세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뽕뉴브 다리 연대에 대해 너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너는 프랑스사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을 테니,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까 봐 걱정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바로 어제 밤, 한밤중 1시쯤. 한 강도선이 뽕뉴브 다리의 마지막 아치, 좌안 쪽을 지나고 있었지. 그런데 다 위에서 무언가 던져진 것이 배 앞부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센 강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려는 것이었지.

강도선의 개가 짖으며 덤벼들었고, 강도선이 배 끝까지 닿았을 때, 그 개가 주둥이로 신문지 조각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신문지로 여러 물건을 싼 거였지.

강도선은 물에 빠지지 않은 물건들을 주워 챙겼고,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살펴봤어. 그는 그 내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이 사람은 내 친구와 사이가 좋았거든. 그래서 그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깨어나서 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주워 온 물건들을 건네받았지. 여기 있어."

그는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을 가리켰다.

먼저 신문 한 장이 찢어진 조각들이 있었다. 그다음은 긴 끈이 덮개에 매달린 커다란 수정 잉크병이었다. 작은 유리 조각, 그리고 헝겊처럼 찢겨진 유연한 판지 조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명한 붉은색 비단 조각이 놓여 있었는데, 끝에는 같은 천으로 만든 술이 달려 있었다.

"보시게, 우리 증거들이야, 좋은 친구." 뤼팽이 다시 말했다. "물론, 멍청한 개가 흩뜨린 다른 물건들을 손에 넣었더라면 해결할 문제는 훨씬 쉬웠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약간의 성찰과 지능만 있으면 이 정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지, 네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가니마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뤼팽의 수다를 감수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의 품위는 단 한 마디도, 심지어 승인이나 비판으로 오해될 수 있는 고개 끄덕임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었다.

"저는 우리가 완전히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뤼팽은 형사의 침묵을 모르는 척 계속 말했다. "이 증거 자료들이 전하는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죠. 어제 밤, 아홉 시부터 자정 사이, 기묘한 풍채의 한 여자가 칼에 찔린 뒤, 잘 차려입고 모노클을 낀 승마계 출신의 신사가 목을 조른 끝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금 그 신사와 함께 메랭기 세 개와 커피 에클레르를 먹은 참이었습니다."

뤼팽은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가니마르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어때,inspecteur principal! 놀랐지? 형사적 추론이라는 영역에서 이런 기적이 평범한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했나? 그건 착각이야, 선생님. 뤼팽은 소설 속 형사처럼 추론을 오간다. 내 증거는? 눈이 부실 정도로 명백하고, 아이들처럼 단순해."

그리고 그는 설명을 이어가며, 하나둘 등장하는 물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렇군. 그러니까 어제 밤 아홉 시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이 신문 조각에는 어제 날짜와 '저녁 신문'이라는 표기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종이에 붙어 있는 노란색 띠의 일부도 볼 수 있어. 이건 구독자용 신문을 보낼 때 쓰는 띠지. 아홉 시 우편으로 도착하는 신문에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홉 시 이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작은 유리 조각 한쪽 가장자리에 단안경 구멍이 보인다는 거야. 단안경은 본질적으로 귀족들의 용품이거든. 그 남자는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 얇은 판지 상자도 있네. 메랭크림과 에클레어가 들어 있던 자리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

단안경을 낀 남자는 소포를 든 채로 한 젊은 여성을 따라잡았어. 이 선홍색 실크 스카프가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지. 그를 따라잡은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먼저 칼로 그녀를 찔렀고, 이어 이 스카프로 목을 조라 죽였지.

형사님,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보십시오. 실크 위에 더 짙은 붉은 자국이 보일 겁니다. 여기는 칼을 닦은 자국이고, 저기는 피투성이가 된 손이 천을 꽉 쥐고 있던 자국이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첫째는 그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으로, 이 조각

을 보면 경마장 신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둘째는 채찍줄이었는데, 이 두 가지 단서는 우리 남자가 경마에 관심이 있고, 직접 말을 기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싸움 중 끊어진 단안경 줄에 달린 유리 파편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가위로 잘라냈죠. 가위 자국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스카프의 더러운 부분만 잘라내고, 다른 부분은 굳은살이 낀 피해자의 손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는 제과점 판지를 공 모양으로 말았습니다. 칼처럼 나중에 센강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 증거품들도 챙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신문으로 싼 뒤, 밧줄로 묶고 무게를 위해 수정 잉크병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그 소포는 선원의 뱃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후, 숨이 차네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뤼팽은 자신의 말이 가니마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바라보았다.

가니마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넌 깜짝 놀랐지. 하지만 경계도 하고 있었겠지. '도대체 왜 저 마귀 같은 뤼팽이 이 사건을 나에게 넘기나? 직접 쫓아가 살인자를 잡거나, 만약 도둑질이었다면 재산을 회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생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시간이다. 지금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이 발이 나오지 않는다. 런던에서의 강도 사건, 로잔에서의 사건, 마르세유에서의 아이 바꿈 사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맴도는 소녀 구출 작업까지, 모든 게 동시에 내게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 사건을 착실한 가니마르에게 넘겨볼까? 이제 반쯤 해결되었으니, 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셈이지! 그가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행은 더 빨랐다. 아침 여덟 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오렌지 껍질 같은 얼굴'의 자를 보냈다. 넌 미끼에 걸렸고, 아홉 시가 되자 너는 이리저리 초조하게 떨며 이곳에 도착했지."

뤼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니마르 형사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이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곧 당신은 피해자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 발레 무용수나 카페 콘서트 가수쯤 되겠죠.

또한 범인은 뵈프교 근처, 특히 좌안 쪽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물을 건넵니다. 다 드릴 테니 잘 수사하세요. 저는 이 스카프 조각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스카프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면, 나머지 한쪽 끝을 가져오십시오. 그쪽 끝은 피해자의 목에서 수거될 것입니다.

한 달 뒤, 정확히 내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저는 그 시간이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진지한 일입니다, 내 친구. 저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놓고 진행하십시오.

아, 하나 더. 중요한 디테일 하나입니다. 단안경을 쓴 그 남자를 체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는 왼손잡이라는 사실을요.

안녕, 내 옛 친구. 행운을 빕니다!"

뤼팽은 재빠르게 몸을 돌리더니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는 사라졌다. 가니마르 형사가 무슨 결정을 내릴 생각도 하기 전의 일이었다.

형사는 즉시 문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장 깨달았다. 알 수 없는 장치 때문이었다.

그는 그 문고리를 열 데ㄴㄴㄴ

게다가 그는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뤼팽은 그에게 기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두려움도 있었고, 원한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존경심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끈질기게 추적해도, 이런 상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막연한 직관도 함께 작용했다.

그는 의무감과 자존심 때문에 뤼팽을 쫓았지만, 늘 불안했다. 이 무서운 장난꾼에게 속고 말까 봐 두려웠고, 그의 실패를 보며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할까 봐 겁이 났다.

특히 그 붉은 스카프의 사건은 너무 의아해 보였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대목도 있었지만, 믿기 어려웠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이었던 뤼팽의 설명도, 한번 꼼꼼히 따져 보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었다.

"아니, 이건 다 장난이야. 아무 근거도 없는 추측과 가설의 나발이야. 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

가니마르 형사가 중얼거렸다.

상데프르카이 36번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 일을 없었던 일로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는 안보부서로 올라갔다. 거기서 동료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상부를 봤어?"

"방금 전에도 찾았어."

"알았어. 가서 만나."

"베른 거리야. 오늘 밤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

"아, 피해자는?"

"잘 모르겠네. 카페콘서트 가수라고 들었어."

가니마르는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다.

"젠장, 또 이거야."

스물 분 후, 그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베른 거리 쪽으로 향했다.

사건 피해자는 극단에서 '제니 사피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그녀는 2층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안내해 주자, 가니마르 형사는 먼저 두 개의 방을 지나쳤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던 법관들과, 보안부서 책임자 뒤두아 씨, 그리고 법의사가 있는 침실로 들어섰다.

형사는 한눈에 그 광경을 보고 몸을 떨었다.

소파 위에 누워 있는 젊은 여성의 시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붉은 비단 조각을 꽉 쥐고 있었다. 목이 깊게 파인 저고리에서 드러난 어깨에는 두 개의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그 주변에는 피가 굳어 있었다.

얼굴은 경련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거의 검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미친 듯이 무서워했던 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검시관은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피해자는 먼저 칼에 두 번 찔렸고, 그 후에 목이 졸렸습니다. 질식사한 흔적이 뚜렷하죠."

가니마르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크레블뤼 드 크레블뤼!' 뤼팽이 말한 그 사건, 그 범죄의 묘사가 떠올랐다.

그러나 심판관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목에는 타박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목 조르기는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이용해 자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스카프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양손으로 꼭 쥐고 있던 부분이지요."

심판관이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조각만 남아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쪽은 피로 얼룩졌을 겁니다. 살인자가 가져갔겠죠. 가위로 급하게 찢어낸 자국이 또렷이 보입니다."

"크레블루 드 크레블루." 가니마르가 이를 갈며 세 번째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 뤼팽은 없는데도 다 봤단 말인가!"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자물쇠를 부수고 서랍을 뒤졌네요. 두르두이 씨, 혹시 단서라도 있습니까?"

안전부장이 대꾸했다.

"최소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하녀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희생자는 가수가로서의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미모로 유명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러시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왕실 인물이 선물했다는 멋진 사파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제니 사피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선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행동한 탓에 평소에는 이 보석을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파이어 도난 사건이 이 살인의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녀는 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겠군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의 어수선한 모습은, 범인 역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종녀를 심문하자." 판사가 말했다.

두두아 지사는 수석 형사인 가니마르를 따로 불러냈다.

"형사, 얼굴이 영 이상하군. 무슨 일인가? 혹시 짐작가는 게 있나?"

"전혀 없습니다, 상사."

"아쉽군. 우리 형사국에는 이번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잖아. 이번엔 반드시 범인을, 그리고 빠르게 잡아야 해."

"힘든 일입니다, 상사."

"필요한 일입니다. 가니마르, 내 말을 들어주시오.

방금 들은 바로, 젠니 사피르라는 하녀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었죠. 최근 한 달 동안, 극장에서 돌아온 뒤 밤 열 시 반쯤이 되면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자정이 되어서야 떠났다고 해요.

젠니 사피르는 그 남자를 '세상 물정에 밝은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그 신사는 남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는 옷깃을 세우고 모자 챙을 깊게 눌러 썼다고 해요. 게다가 그 남자가 도착하기 전이면, 젠니 사피르는 항상 다른 하녀를 쫓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남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매우 강력한 상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를 철저히 준비했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안고 실행에 옮겼죠. 그의 체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가니마르, 당신을 믿습니다."

"아, 나를 믿으시는군요, 상사님." 형사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매우 긴장한 기색이었고, 그 초조함은 뒤뒤이 씨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다만, 뒤뒤이 씨가 계속했다. '다만, 저는 맹세합니다… 상사님, 잘 들으십시오, 저는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한다는 말인가?'

'아무것도… 상사님,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가니마르가 그 문장을 완성한 것은 밖으로 나와 혼자 된 뒤였다. 그리고 그는 발을 구르며, 가장 격렬한 분노의 어조로 그 말을 소리 내어 완성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 체포는 내 손으로 직접 하겠으며, 그 악당에게서 얻은 정보는 하나도 쓰지 않겠다. 아, 절대 그렇지 않지…"

그는 뤼팽을 원망했다. 이 사건에 휘말린 자신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흩어진 사실들 사이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은 단서를 찾고자 했다. 그것은 모두의 시선을 피했고, 뤼팽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단서가 있다면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와인 상점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뒤 산책을 계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쉬랭 거리 14번지 현관 아치 아래로 들어섰다. 몇 시간 전 뤼팽이 자신을 유인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문제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진실을 구성하는 모든 단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뤼팽의 주장은 하나도 틀림없었고,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 놀라운 직감이 그의 영혼 깊숙이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적에게 맡겨진 지점에서 자신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는 세 층의 계단을 올랐다. 아파트 문은 열려 있었다. 누구도 증거품들을 만진 흔적이 없었다. 그는 증거품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그제야 그는 이성을 되찾고,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스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남자가 뽕뇌브 다리 근처에 산다고 가정했다면, 그 다리에서 베른 거리로 이어지는 길 위에 저녁에 문을 여는 중요한 제과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에서 케이크를 사갔던 곳이었다.

수색은 오래가지 않았다. 생라자르 역 근처에서 한 제빵사가 가니마르 형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재질과 모양이 똑같은 작은 종이 상자를 보여줬다.

게다가 한 판매원은 전날 밤, 모피 칼라를 둘둘 감싼 한 남자를 응대했던 기억이 났다. 그 남자는 단안경을 끼고 있었다.

'첫 번째 단서가 확인됐군,' 형사는 생각했다. '우리 남자는 분명 단안경을 쓰고 있다.'

그는 이어 경마 일지 조각들을 모아 들고, 신문상을 찾아갔다. 신문상은 《일러스트르 터프》지를 금방 알아봤다.

그는 곧장 그 신문사 사무실로 달려가 구독자 명단을 요구했다. 명단에서 그는 상테 형무소 근처, 특히 뤼팽이 말했듯 센 강 좌안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어냈다.

그리고 다시 안토르지로 돌아가, 반쯤 되는 형사들을 뽑아 필요한 지시를 내린 뒤 급히 파견했다.

저녁 일곱 시, 마지막 남자가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프레바일이라는 신사가 생제르맹 강변의 중간층에 살고 있었다. 그는 터프 지 구독자였다. 전날 밤, 그는 모피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문지기에게서 편지와 《일러스트레이드 터프》 지를 받아 들고는, 자정을 향해 돌아갔다.

프레바일 신사는 단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는 경마장의 단골이었고, 자신이 기승하거나 임대하는 말도 여러 마리 가지고 있었다.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뤼팽의 예언과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보고하는 말을 듣는 내내 가니마르는 심장이 요동쳤다. 다시 한번 그는 뤼팽이 가진 막대한 자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며 그는 이런 통찰력이나 날카롭고 빠른 두뇌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뒤두아 씨를 찾아갔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사. 체포 영장은 있으신가요?"

"뭐라고?"

"체포 준비가 다 됐다고요, 상사."

"니가 진주 제니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가니마르는 잠시 망설였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결국 이렇게 답했다.

"운명입니다, 형사님. 살인자가 자신을 몰아넣을 만한 증거들을 모두 센강에 던져버렸죠. 그중 일부가 수습되어 제게 건네졌습니다."

"누구한테?"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강선 선원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저는 필요한 단서를 이미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은 간단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니마르 형사는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 이야기했다.

"그걸 운명이라 부른다니요! 그리고 일이 간단했다고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가니마르 형사.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가니마르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오귀스탱 부두로 향했고, 그들을 집 주변에 배치했다. 문지기에게 물어보니, 그 집주인은 외식을 했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정기적으로 집에 들른다고 했다.

사실, 아홉 시 조금 전에 그녀는 창문에 기대어 가니마르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니마르는 즉시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모자를 쓰고 모피 코트를 두른 한 신사가 센 강변 보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도로를 건너 집으로 향했다.

가니마르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바로 프레바일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당신은?"

"나는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그는 말을 다 마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프레발은 급히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는 적들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한쪽 등에는 닫힌 셔터가 있는 지상층 가게 문에 기대어 섰다.

"물러서라. 너희를 모르겠다."

그가 외쳤다. 오른손에는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왼손은 뒤로 빼서 문을 열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니마르는 그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밀스러운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 장난치지 마라."

가니마르는 다가가며 말했다.

"너는 잡혔다. 항복해라."

그가 프레바일의 지팡이를 잡으려던 순간, 가니마르는 뤼팽의 경고를 떠올렸다. 프레바일은 왼손잡이였고, 그는 왼손으로 권총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재빨리 몸을 낮췄다. 그는 그 남자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총성이 두 번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몇 초 후, 프레바일은 턱을 저격총 자루로 얻어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밤 아홉 시, 그는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당시 가니마르는 이미 큰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이 갑작스럽고 간단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체포는 경찰이 재빨리 알린 바와 같이 그에게 순식간에 명성을 안겨주었다. 프레바일은 미제 사건에 관여된 모든 죄목을 뒤집어썼고, 신문들은 가니마르의 활약을 극찬했다.

사건 초기에는 수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용의자 프레바일, 본명은 토마 데르코크가 이미 과거에 법과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시 화물에 감겼던 것과 비슷한 끈 한 덩어리가 나왔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와 비슷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단검들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여덟 번째 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프레바일이 변호사와 함께 뚜렷한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범행当晚에 말리베르그 극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의 턴주머니에서 그날 밤 날짜가 적힌 좌석 티켓과 공연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알리비를 미리 준비해 둔 거죠." 판사가 말했다.

"그걸 증명해 보세요." 프레발이 대답했다.

대심문이 열렸다. 제과점 소녀는 단안경을 낀 남자를 알아봤다고 했다. 베른 거리 건물 관리인은 젠니 사피르를 찾던 남자를 알아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단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명확한 증거는커녕, 중대한 기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판사는 가니마르를 불러와 자신의 난처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판사님, 당신은 이미 확신하고 있군요. 프레발이 저항 없이 체포된 것은, 그가 범인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공격당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젠니 사피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증언으로 몰아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파이어가 도난당했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그의 집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니마르가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향한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니마르 씨,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바로 이 붉은 스카프의 다른 한쪽 끝입니다."

"다른 쪽 끝?"

"네. 살인자가 그것을 가져갔다면, 분명히 그의 피로 얼룩진 손자국이 그 천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니마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그는 이 사건이 결국 이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른 증거는 있을 수 없었다. 실크 스카프, 그것뿐이었지만, 그 스카프 하나로 프레발의 유죄는 확실해졌다.

그런데 가니마르의 입장에서는 프레발이 유죄여야만 했다. 그는 이 체포로 유명해졌고, 범죄자들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추앙받았다. 만약 프레발이 석방된다면, 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게 분명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그 유일한 필수 증거는 뤼팽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어떻게 그 주머니에서 증거를 꺼내올 수 있을까?

가니마르는 발버둥쳤다. 새로운 조사를 거듭하고, 사건을 다시 뒤적이며, 베른 거리 mysteries를 파헤치느라 밤을 새웠다. 프레발의 과거를 재구성했고, 보이지 않는 사파이어를 찾아 열 명의 형사를 동원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다.

십이월 이십칠일, 판사가 법원 복도에서 그를 불러세웠다.

"자, 가니마르 형사. 새로운 단서는 없나?"

"없습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이 사건은 포기하지."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 판사가 물었다. "우리는 스카프의 나머지 절반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나?"

"내일 찾겠습니다."

"내일?"

"네. 대신 판사님 손에 있는 조각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대가로?"

"대신 제가 스카프 전체를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지."

가니마르 형사는 판사의 서재로 들어갔다. 곧 실크 조각을 들고 나왔다.

"젠장, 내가 그 증거를 꼭 찾아내겠어. 내 손으로."

그가 투덜거렸다.

"만약 뤼팽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려 한다면 말이지."

사실 그는 뤼팽이 그런 모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짜증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뤼팽은 왜 그 만남을 원했을까?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그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을 포획하기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은 12월 28일, 뤼팽이 정한 날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뒤르느 거리(avenue de Suresnes)의 오래된 저택을 정찰했다. 그리고 큰 문 말고는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있음을 알린 뒤,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들었다. 지시는 명확했다. 삼층 창문 중 하나에 그 남자가 나타나거나, 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요원들은 집에 들이닥쳐 밖으로 나가려는 자를 누구든 체포해야 했다.

수석 형사는 권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주머니에서 편하게 꺼낼 수 있는지도 체크한 뒤, 그는 계단을 올랐다.

문들이 열려 있고 자물쇠가 부러진 채, 자신이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방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꽤 놀랐다. 주방 창문이 거리 쪽

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그는 아파트를 구성하는 나머지 세 방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뤼팽이 겁을 먹었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짓을."

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돌아서자 문턱에 노파의 긴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찾지 마라. 내가 뤼팽이다. 오늘 아침부터 페인트 장인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식사 시간이라 올라왔다."

그는 가니마르를 기쁜 미소로 바라보며 외쳤다.

"정말이지, 이 친구, 내가 너한테 빚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인생의 십 년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꽤 좋아해. 어때, 화가여?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겠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거였지? 내가 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었나? 스카프의 미스터리를 파헤쳤나?

물론 내 추론에 구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슬의 고리가 빠진 부분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 지혜의 걸작을 보라구, 가니마르! 범죄가 발견된 순간부터 네가 증거를 찾아 이 곳까지 도착하기까지, 모든 일의 흐

름을 어떻게 정확히 읽어냈는지. 정말 경이로운 직관이랄까. 스카프를 찾았나?"

"반쪽은 찾았지. 너는 나머지 반쪽을?"

"여기 있네. 대조해 보자."

그들은 두 조각의 비단을 테이블 위에 펴 놓았다. 가위로 잘라낸 자국은 정확히 일치했다. 색도 완전히 같았다.

"하지만 나는 네가 단지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뤼팽이 말했다. "네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건 피 자국일 거야. 따라와, 가니마르. 여기서는 햇빛이 부족해."

그들은 안마당 쪽에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확실히 더 밝았다. 뤼팽은 자신의 비단을 창문에 대었다.

"봐." 그는 자리를 가니마르에게 양보하며 말했다.

형사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다섯 손가락 자국과 손바닥 자국이 또렷이 보였다.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피투성이인 그 손, 바로 제니 사피르를 때린 바로 그 손으로 범인이 그 천을 쥐고 목에 스카프를 동여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건 왼손 자국이오." 뤼팽이 덧붙였다. "그래서 내가 경고했던 거지. 보듯 신비로운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뛰어난 영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내 친구, 마법사쯤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군."

가니마르는 실크 조각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뤼팽은 그 행동을 인정했다.

"그래, 내 친구, 바로 너를 위한 거야.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 보잖아, 여기엔 함정이 하나도 없어. 오직 친절한 마음뿐이지. 동료가 동료를 위해 해주는 일, 친구가 친구를 위해 해주는 일일 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어. 그래, 경찰이 가져간 그 비단 조각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걱정 마. 곧 돌려줄게. 잠깐만."

그는 태연한 손동작으로 스카프 끝자락에 달려 있는 술을 만지작거렸다. 가니마르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뤼팽은 그저 그 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여자의 손끝에서 나온这些小작품이라니, 참으로 영리하군! 그 조사 과정의 한 가지 디테일을 눈치챘느냐? 제니 사피르는 손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자신의 모자와 드레스를 직접 만들었다. 이 스카프도 분명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 분명해. 사실, 나는 첫날부터 그걸 눈치챘지. 나는 본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네게 말한 바 있듯이, 네가 방금 주머니에 넣은 그 비단 조각을 철저히 분석해 봤어. 그리고 그 비단의 끝 매듭 안쪽에서, 그 불쌍한 소녀가 행운을 빌며 숨겨둔 작은 성모 medal을 발견했거든. 감동적인 디테일이야, 그렇지 않느냐, 가니마르? '보조 성모' medal이란다."

형사는 뤼팽을 시선에서 놓지 않았다. 매우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리고 뤼팽은 계속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경찰이 시체의 목에서 발견할 스카프의 나머지 절반을 탐험해 보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사실 그 나머지 절반은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다. 끝부분은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같은 숨겨진 공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보라, 내 친구.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단순한지 말이다. 빨간 실 한 가닥을 가져다가 속이 빈 나무 올리브 주위에 꼬아 엮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공간, 즉 좁을 수밖에 없지만 성모 마리아 메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빈틈을 남겨두면 된다.

그곳에는 성모 마리아 메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석 같은 것. 사파이어 같은 것.

그 순간, 그는 비단 끈을 완전히 벗겨냈다. 올리브 모양의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엄지와 검지로 아담한 파란 보석을 집어 올렸다. 순도도, 깎임도 완벽했다.

"봐라, 내가 뭐랬냐, 내 친구?"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형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눈앞에서 반짝이는 보석에 홀린 듯했다. 이제야 그는 이 모든 음모의 전모를 깨달았다.

"개새끼."

그가 중얼거렸다. 처음 만났을 때 던졌던 욕설을 되찾은 셈이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버티고 섰다.

"내놔." 형사가 말했다.

뤼팽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사파이어도!" 가니마르가 명령했다.

"바보 같으니라니."

"내놔. 안 그러면…"

"아니, 대체 뭐라고? 바보 같은 놈이!" 뤼팽이 소리쳤다. "이봐, 가니마르. 내가 네게 이 일을 시킨 게 장난으로 생각했나?"

"내 것을 돌려줘!"

"내가 너를 보고 있나? 네가 댄싱deer처럼 네 달린 지 벌써 네 주가 지났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가니마르, 조금만 노력해 봐, 내 친구…… 네가 지난 네 주 동안 한 게 뭐였는지 알아? 그냥 착한 코니시

개일 뿐이야. 가니마르, 이 분께 가져다 줘…… 아, 정말 착한 개야, 아빠 앞에서는…… 잘 굴어 봐. 설탕?"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니마르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즉각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그가 있던 방은 안마당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게 원위치로 돌아가려 했다. 그리고 문틈으로 통하는 문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뛰어올라 유리창을 부수려 했다.

"그래도 너희는 좀 배워야지. 너나 다른 형사들이나 말이야. 그 옷감의 정체를 파헤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중 단 한 명도 그걸 만져서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 가엾은 소녀가 왜 그 스카프를 꼭 붙잡고 있었는지 이유를 따져본 형사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단 한 명도 말이야. 너희는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막 행동하는군."

형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뤼팽이 잠시 몸을 빼는 틈을 타, 그는 순식간에 방향을 돌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한 마리의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뤼팽이 크게 웃었다.

"그 정도도 아니야! 넌 그걸 예상조차 못 했지! 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내가 미리 그 뜻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진 못했어… 게다가 넌 이 방으로 나를 따라왔지. 내가 일부러 이곳으로 유인

한 건 아닌지, 자물쇠에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나 보군. 진심으로 말해 봐.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가니마르가 분노에 질려 말했다.

그는 순식간에 권총을 꺼내 적의 얼굴을 향해 조준했다.

"손 들어!" 그가 외쳤다.

뤼팽이 그 앞에 서서 어깨를 으쓱거렸다.

"또 실수했군."

"손 들어, 내가 다시 말해!"

"또 실수했군. 그 물건은 발사되지 않을 거야."

"당신의 하녀, 노모 카트린, 내 편에 서 있죠. 오늘 아침 당신이 우유 커피를 마시는 사이, 그녀가 화약에 불을 붙였어요."

가니마르는 분노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그는 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뤼팽에게 덤벼들었다.

"그 다음?"

뤼팽은 발길질로 그를 막아섰다. 두 사람은 거의 몸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서로의 시선이 격돌했다. 곧장 주먹다짐을 벌일 듯한 두 적수처럼.

하지만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격렬한 공방전을 떠올려 보니, 다시 한번 더 싸우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과거의 패배들, 헛된 공격들, 그리고 뤼팽의 번개처럼 날카로운 반격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던 가니마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뤼팽이 가진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싸워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뤼팽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소. 더구나 내 좋은 친구여, 이 사건이 당신에게 가져다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오. 명성, 곧 올 승진, 그리고 그 덕분에 맞이할 행복한 노년 말로요. 그런데 당신도 그 대가로 이 사파이어를 찾아내고 가엾은 뤼팽의 목숨을 바치려 하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오. 게다가 가엾은 뤼팽이 당신 목숨을 구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에서 프레바일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일러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감사 인사요? 좀 그래 보이지 않소, 가니마르. 정말,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수다를 떨면서도 뤼팽은 가니마르와 똑같은 행동을 하며 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가니마르는 적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신중함을 잊은 채 그는 뤼팽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뤼팽이 날린 거친 머리박치기에 복부를 강타당해 벽까지 굴러떨어졌다.

뤼팽은 세 손짓 만에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키고, 손잡이를 돌렸으며, 문짝을 살짝 열어 비집고 나갔다. 그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사라졌다.

스무 분 뒤, 가니마르는 간신히 자신의 부하들과 합류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보고했다.

"화가가 한 명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점심으로부터 돌아올 때였죠. 이 화가가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상부에게 주시오.'라고요. '어떤 상부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일 겁니다."

"다오."

가니마르는 편지를 뜯었다.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체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건, 내 좋은 친구여. 너를 지나친 순진함에서 깨우치기 위한 조언이야. 누군가가 너에게 '너의 권총 탄환이 젖었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가 아르센 뤼팽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얼마나 믿든 속아 넘어가지 마라.

먼저 쏴라. 그리고 그 상대가 영원한 세계로 날아오르듯 비틀거리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첫째, 탄환은 젖지 않았다는 것. 둘째, 노부인 카트린이 가장 성실한 하녀라는 사실 말이다.

내가 그녀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Fidèle(충실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길 바란다.”

제6장

뤼팽은 성벽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확실히 성벽에는 구멍이 없었고, 뫼르퓌이 영지의 넓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긴 낮은 작은 문이나, 파크 경호실 옆에 있는 메인 철문뿐이었다.

"좋아, 이제 큰 수를 쓰자."

그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숨겨둔 덤불 속으로 들어가 안장 아래에 감춰둔 가벼운 밧줄 다발을 풀어냈다. 그리고는 정찰하며 적어둔 곳으로 향했다. 그 곳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공원 안쪽에 심었던 큰 나무들이 성벽 너머로 가지치기 없이 자라나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뤼팽은 밧줄 끝에 돌을 매달아 던졌다. 그리고 거대한 나뭇가지에 걸리자, 그걸 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가볍게 뛰어 넘었다. 나뭇가지가 다시 펴지며 그를 땅 위로 들어 올렸다. 그는 성벽을 넘었고, 나무를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와 공원의 잔디밭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겨울이었다. 가지런히 벗겨진 나뭇가지 사이로, 잔디밭의 구불거리는 지형을 넘어서 멀리 마페르튀이 작은 성이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한 그는 가문비나무 무리 뒤에 숨었다. 그곳에서 그는 쌍안경을 들고, 우울하고 어두운 성의 정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고, 마치 밀폐된 창문판들이 성을 방어하듯 막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보였다.

"프리스티, 뤼팽이 중얼거렸다. '이 저택은 분위기가 좋지가 않군. 여기서 내 생을 마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세 시가 되자, 시계 종소리와 함께 지층의 문 하나가 테라스 쪽으로 열렸다. 그리고 검은 코트를 두른 매우 마른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자는 몇 분 동안 거리를 오가며 산책했다. 곧 그녀 주변에는 빵 부스러기를 던지자 새들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녀는 중앙 잔디밭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며 잔디밭을 따라 걸었다.

뤼팽은 망원경으로 그녀가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금발이었으며,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마치 아주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경쾌한 걸음걸이로 다가왔고, 흐린 12월의 햇살을 바라보며 길가의 관목에서 작은 마른 가지를 꺾어 놀고 있었다.

그녀는 뤼팽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거친 짖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옆집 오두막에서 거대한 덩치의 대안달리안견이 나타나, 목에 채운 사슬 끝까지 몸을 팽팽하게 당기며 일어서는 것이었다.

소녀는 살짝 몸을 피하며 지나갔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개는 더욱 격분했다. 앞발로 서서 목줄을 당겼다. 목이 조여들까 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그녀는 아마도 참다 못해 서른, 혹은 마흔 걸음쯤 더 갔을까. 뒤를 돌아보며 손을 저었다.

그때 덴마크 개가 분노에 떨며 몸을 떨었다. 쉼터 가장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돌진했다. 막을 수 없는 그 기세.

소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개는 끊어진 사슬을 끌며 공중을 날아듯 다가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간절하게 도움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몇 도약 만에 개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곧장 쓰러졌다. 숨이 끊어질 듯 지친 채, 도망칠 길도 없었다.

짐승은 이미 그녀 위에 올랐다.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서.

그 순간, 총성이 났다.

개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곧바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발로 땅을 긁더니 울부짖으며 엎어졌다. 거칠고 숨이 찬 울음소리가 이어지다, 이내 둔통 같은 신음과 흐릿한 헛기침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죽었군."

뤼팽이 달려오며 말했다. 그는 이미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일어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낯선 이 남자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 남자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뤼팽이 모자를 벗었다.

"자기소개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미스. 장 도브뢰유입니다. 하지만 설명에 앞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개 시신 쪽으로 몸을 굽혔다. 개가 몸부림치며 끊어버린 사슬 부위를 유심히 살폈다.

"맞아! 치를 깨물며 중얼거렸다. 내가 예상한 대로군. 세상에, 일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나는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어."

그는 다시 소녀 쪽으로 돌아섰다.

"선생님, 우리는 잠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공원에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발각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선생님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에서 그 총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소녀는 이미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에는 용감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아버지는 성에 계신가요?"

"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몇 달째 누워 계십니다. 게다가 방이 다른 쪽 면을 향하고 있죠."

"그럼 하인들은요?"

"그들도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쪽에서 일합니다. 여기로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제가 혼자 산책하죠."

"그럼 저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군요. 이 나무들이 우리를 가려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곧 아실 겁니다."

그가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며 말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전, 장 드 아르시외 양이…"

"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 드 아르시외 양은," 뤼팽이 계속했다, "마르셀린이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베르사유에 살고 있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시오?" 젊은 여자가 놀라 물었다. "나는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찢어 버렸소."

"그 조각들은 성에서 베르돔으로 가는 길가에 던져졌죠."

"맞아요… 산책 중이었거든요…"

"그 조각들이 수거되었고, 나는 다음 날 바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읽었다는 거요?" 장느 다르시우가 약간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네, 나는 그런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오."

"나를 구하다니…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뤼팽은 이 짧은 말을 매우 명확한 어조로 내뱉었다. 젊은 여자는 오한이 일었다.

"나는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네, 마들모아즈엘. 10월 말쯤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테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실 때, 발코니 돌조각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웠다면, 당신은 깔려 죽으셨을 겁니다."

"그건 우연이겠죠."

"11월의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보름달 아래서 채소밭을 건너고 계셨죠.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공원 강 위에 놓인 작은 목교가 무너졌습니다. 폭포에서 두 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다리를 건너고 계실 때였습니다. 기적처럼 뿌리에 매달려 목숨을 건졌을 뿐입니다."

장 다르시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좋아요. 하지만 마르셀린에게 쓴 편지에서도 밝혔듯, 이는 그저 우연의 일치와 확률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마들렌님. 아닙니다. 이런 식의 우연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이어도 용납할 수 있죠. 하지만 세 번이나 우연이 같은 행동을, 그것도 이렇게 기이한 상황에서 되풀이한다니요.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들렌님을 돕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입이 효과를 내려면 비밀이 유지되어야 했기에, 저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들렌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께서 다시 한 번 마들렌님을 공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뤼팽은 사슬을 주워 들어 보였다.

"마지막 고리를 보시오. 그 고리가 파일로 깎여졌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소. 그토록 튼튼한 사슬이라면, 파일로 깎이지 않았다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게다가 파일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잖소."

장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름다운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는 거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서워요… 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분명 사실이에요. 더구나…”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이어서 말했다.

“더구나, 저는 같은 위험이 제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분도 공격을 받으셨소?”

“아니오. 아버지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힘은 다 빠져나가고, 걸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숨이 막히는 발작이 자주 일어나시는데,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요. 아, 정말 끔찍해요!”

뤼팽은 이 순간 그녀에게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매님. 당신께서 저를 맹목적으로 따르신다면, 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너무 끔찍해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연이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고, 장느 다르시외는 재빨리 답했다.

"그 짐승은 결코 묶여 있지 않았던 거죠, 맞나요?"

"결코요."

"누가 먹이를 주었나요?"

"경비원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이면 그가 먹이를 가져다주었죠."

"그렇다면 그 경비원은 물리지 않고 그 짐승에게 다가가도 된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짐승은 사나웠거든요."

"당신은 그 남자를 의심하지 않나요?"

"오, 아니에요! 바르티스트!… 절대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곤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인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저를 무척 아껴주죠."

"성 안에는 친구도 없어요?"

"형제는요?"

"그렇다면 아버님만이 유일한 보호자라는 말씀이군요?"

"네.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양한 위협 사건들을 아버님께 모두 말씀하셨나요?"

"네. 하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우리 집안 의사이신 구엘 공경님께서, 아버님께 조금의 충격이라도 주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거든요."

"어머니는요?"

"모릅니다. 열여섯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정확히 열여섯 년 전이죠."

"그때 나이가……?"

"다섯 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여기서 살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파리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이 성을 사신 것은 그다음 해부터였죠."

뤼팽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잘했습니다, 미스. 감사합니다. 당분간 이 정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녀가 말했다. "곧 경관이 올 텐데, 그 개를 발견하겠죠.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당신이에요, 미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격을 막았다고."

"나는 절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들고 있었군요, 내가 죽인 짐승을 당신이 죽였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만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성에 갔을 때 의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에요? 당신이 의도가……?"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갈 거예요. 오늘 밤부터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신감 있고 정직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안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오늘 밤 뵙겠습니다, 미스."

"네, 오늘 밤에요."

그녀가 물러나자, 뤼팽은 그녀가 성곽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아름다운 여인이군. 그녀에게 불운이 닥친다면 아깝겠어. 다행히도, 착실한 아르센이 잘 지켜보고 있네."

그를 발견할까 봐 걱정하지 않은 그는 귀를 기울이며 공원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바깥쪽에 적어 둔 작은 낮은 문, 즉 채소밭으로 통하는 문

을 찾아냈다. 빗장을 풀고 열쇠를 챙긴 뒤, 그는 벽을 따라 이동해 자신이 등반했던 나무 근처로 되돌아왔다. 이분 후,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마뉘르튀이 마을은 성채와 거의 붙어 있었다. 뤼팽이 물어보니, 괴루 의사라는 의사가 교회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상담실로 안내받아 자신의 가명인 폴 오브뢰유를 소개했다. 그는 파리 쉬렌 거리에 거주하며, 안보부서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찢어진 편지를 통해 다르시외 양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건들을 알게 된 그는, 이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농촌의 노의사였던 괴루 의사는 장느를 아끼는 사람이었다. 뤼팽의 설명을 듣고는, 그 사건들이 음모의 명백한 증거라고 즉시 인정했다. 그는 크게 감동하여 방문객에게 하룻밤 묵어가라고 권했고, 함께 저녁식사를 같이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성으로 향했다.

의사는 1층에 있는 환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휴식을 취하고 싶어 곧장 자신의 환자들을 젊은 동료에게 넘기려 한다는 이유로, 그 동료 한 명을 데려오겠다는 허락을 구했다.

방에 들어선 뤼팽은 장 드아르시외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놀람을 억누르며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의사의 손짓에 따라 그녀는 방을 나섰다.

그때 아르센 뤼팽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찰이 시작되었다. 다르시오 씨는 고통으로 인해 얼굴이 야위었고, 열에 타는 듯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특히 자신의 심장 상태를 가장 걱정하며 호소했다. 청진 후, 그는 분명한 불안감으로 의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고, 의사의 매번 답변은 그에게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또한 자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자신이 속고 있다고 확신하며, 딸이 다른 사고를 면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의사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알리고 조사를 벌여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초조함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점차 잠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뤼팽은 의사를 멈춰 세웠다.

"자, 의사 선생님, 정확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르시오 씨의 병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같은 적이 아버지와 딸을 모두 없애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게루울 박사는 그 가설에 크게 놀란 듯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병은 때로 매우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완전한 하반신 마비는 보통 이런 증상을 동반해야 하는데…"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독약이군요… 하지만 어떤 독약일까요… 더구나 저는 중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두 남자는 1층의 작은 방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안에서는 장느가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의사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틈을 타서였다.

뤼팽은 열린 문틈으로 장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술에 잔을 대고 몇 모금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뤼팽이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챘다.

"거기서 뭐 마시세요?"

"음, 이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브차예요. 차라고 해야 할까."

"그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요?"

"뭔가 쓴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넣은 약 때문일 거예요."

"어떤 약이죠?"

"의사가 처방하신 대로, 매일 저녁 식사 때 드시는 방울 약이요. 그렇지 않죠, 의사 선생님?"

"네, 기에루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맛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장. 열다섯 날째 드시고 계신데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소녀가 속삭였다. "이건 맛이…… 아, 저기요. 입안이 타들어가요."

기에루 의사도 컵에서 한 모금 떠 마셨다.

"으악! 끄악!" 그가 토해내며 외쳤다. "이건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한편 뤼팽은 약이 담긴 병을 살펴보고 물었다.

"낮에는 이 병을 어디에 두나요?"

하지만 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창백한 얼굴과 경련하는 눈으로 끝없는 고통을 겪는 듯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두 남자는 그녀를 재촉해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구토제를 먹여야 합니다." 뤼팽이 말했다.

"옷장을 열어보시오." 의사가 지시했다. "약가방이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작은 튜브 하나를 꺼내시오. 네, 그거요.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하십시오. 차 주전자 받침대에 있을 겁니다."

초인종 소리에 부인이 달려왔다. 그녀는 주로 잔느를 돌보는 집사였다. 뤼팽은 그녀에게 다르시외小姐가 이유 없는 기절 증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작은 식탁으로 돌아갔다. 찬장과 서랍을 두루 살펴보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보내어 다르시외 씨의 식단을 조사하라고 했다고 억지로 이유를 댔다.

그는 자연스럽게 요리사와 하인, 그리고 성에서 식사를 하는 경비원 바르티스트와 수다를 떨었다.

다시 올라가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소?"

"자고 있습니다."

"위험은 없나?"

"아니요. 다행히 두 모금, 많게는 세 모금만 마셨거든요. 하지만 오늘로 두 번째로 당신이 그분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네요. 이 병의 분석 결과가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독살 시도는 분명합니다."

"누구죠? 그건 누가?"

"모르겠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악마는 성의 습성을 잘 알고 있겠지. 그는 마음대로 드나들고, 공원을 거닐며, 개의 사슬을 잘라내고, 음식에 독을 타는 식으로,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

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

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

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

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

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

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이며, 자신이 없던 존재처럼 움직

아홉 시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다. 길途中에 전화를 걸어 두었던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뤼팽이 미리 계획해 둔 수색을 하루 종일 벌였다.

여섯 시, 그는 재촉하듯 다시 출발했다. 나중에 그가 내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때가 그가 가장 무모하게 목숨을 건 순간이었을 것이다. 12월의 안개 낀 어느 저녁, 그의 전조등 빛이 어둠을 겨우 뚫고 들어올 때, 그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그 길을 되돌아갔다.

여전히 문이 열린 철제 문 앞,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몇 번의 도약으로 성의 1층 계단을 올랐다.

작은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저하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그는 장느의 방으로 들어섰다.

"아, 여기 있구나." 그는 장느와 의사가 나란히 앉아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의사는 차분하기로 소문난 이 남자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다르시오 씨를 방금 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잘 지내다시피 했고, 식사도 아주 잘 먹었더군요. 그리고 자네, 보세요. 잔느의 얼굴빛도 다시 좋아졌잖아요."

"그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다니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젊은 여자가 반대했다.

"떠나야 합니다!" 뤼팽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진심 어린 격분으로 외쳤다.

그는 곧바로 자신을 가라앉혔고, 몇 마디 사과를 건넨 뒤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의사와 잔느는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떠나셔야 합니다, 미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요. 베르사유의 친구, 편지를 주고받는 그분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모든 준비를, 정중하게, 또 공개적으로 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인들에게도 말씀해 두시고요. 의사는 다르시외 씨에게 연락해, 이 여행이 당신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힘을 낼 대로 차면 곧장 따라올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죠?"

"네." 그녀가 말했다. 뤼팽의 지시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된 듯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방을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이번 밤은요…"

"걱정 마십시오. 만약 위험이 따랐다면, 저와 의사가 함께 돌아왔을 겁니다. 문은 아주 가볍게 세 번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열어주십시오."

장느는 즉시 하녀를 불렀다. 의사는 다르시외 씨 방으로 들어갔고, 뤼팽은 작은 방에서 간식을 대접받았다.

"다 끝났습니다." 스무 분쯤 지나 의사가 말했다. "다르시외 씨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역시 장느를 멀리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더군요."

두 사람은 물러나 성을 나섰다.

대문 근처에서 뤼팽은 경비를 불렀다.

"문 닫으셔도 됩니다, 친구. 다르시외 씨가 우리를 필요로 하면 바로 불러주십시오."

마르뻬르튀이 교회 시계가 열 시를 쳤다. 구름 낀 밤하늘, 그 사이로 달이 가끔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둠은 시골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백 보쯤 걸었다.

마을에 가까워지던 찰나, 뤼팽이 동행자의 팔을 꽉 잡았다.

"멈춰!"

"무슨 일이십니까?" 의사가 놀라 물었다.

"내 계산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전혀 잘못 파악하지 않았다면," 뤼팽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밤, 다르시외 양이 살해당할 겁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온 겁니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범인이, 자신의 계획을 미루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범행을 저지를 시간을 그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정한 시간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그럼 성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래. 하지만 각자 다른 길로."

"그렇다면 당장 출발하지?"

"잘 들으시오, 의사 선생님." 뤼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먼저 감시를 뿌리쳐야 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바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누군가 따라오지 않았음을 확실히 확인한 뒤, 몇 분 뒤에 다시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 성벽 왼쪽으로 가서 작은 화원 문으로 가십시오. 열쇠입니다." 그가 열쇠를 건넸다. "성당 시계가 열한 시를 치면, 조용히 문을

열고 성 뒤쪽 테라스로 곧장 걸어오십시오. 다락방 다섯 번째 창문 잠금이 잘 안 됩니다. 발코니를 넘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르시외 양 방에 들어가면 빗장을 걸고 꼼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도, 다르시외 양도 마찬가집니다."

"다르시외 양이 화장실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습관이 있다는 점,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에게 가르쳐 준 습관입니다."

"그쪽을 통해 그들이 올 거예요."

"당신은요?"

"나도 그쪽을 통해 올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 비열한 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건가요?"

뤼팽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몰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부탁이야, 차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마."

"약속합니다."

"그 이상이야, 박사님. 나는 당신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합니다."

박사가 떠난 뒤, 뤼팽은 바로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1층과 2층의 창문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중 몇몇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꽤 오래 기다렸다.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때 그는 의사 선생님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른쪽으로 꺾어 벽을 따라 걸었고, 어제 오토바이를 숨겨 둔 나무 무리 근처까지 갔다.

시계가 열한 시를 쳤다. 의사 선생님이 채소밭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걸릴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하나, 둘." 그가 중얼거렸다. "이쪽은 문제가 없다. 구원하러 가자, 뤼팽. 적도 이제 마지막 수를 둘 차례다. 치명적인 순간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해."

그는 처음과 같은 동작을 했다. 나뭇가지를 당겨 올리고 벽 꼭대기로 몸을 올렸다. 거기서 그는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들 사이로 숨어들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귀를 쫑긋 세웠다. 마른 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아래쪽, 서른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젠장, 내가 당했다. 놈이 내 의도를 눈치챈 모양이야.’

달빛이 한 줄기 비쳤다. 뤼팽은 그 남자가 총을 어깨에 거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곧장 땅으로 뛰어내려 몸을 돌리려 했지만, 가슴 한복판에 강타를 느꼈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으며 시체처럼 가지에서 가지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구에루르 의사는 뤼팽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다섯 번째 창문 난간을 넘었고, 손더듬어 1층으로 향했다.

장느의 방 앞에 서자, 그는 세 번 가볍게 두드렸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곧바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침대에 누워요.” 그는 밤옷을 그대로 입은 소녀에게 속삭였다. “네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 춥다, 이거 봐라. 화장실 창문은 열려 있니?”

“네… 원하시면 제가…”

“아니, 열어두어. 사람들이 올 거야.”

“사람들이요?” 장느는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틀림없지.”

“하지만 누구를 의심하신다는 건가요?”

"모르겠어… 성 안에 숨어 있거나, 공원에 숨어 있는 누군가라고 추측할 뿐이야."

"오, 무서워요."

"겁내지 마. 네 편인 그 녀석은 꽤나 강해 보이고, 확실한 수만 던지는 타입이야. 아마 마당 어딘가에 숨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거야."

박사는 무드등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하지만 1층을 따라 길게 뻗은 좁은 받침대가 시야를 가려, 마당의 먼 부분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긴 시간이었다. 마을 시계가 종을 쳤지만, 그들은 밤의 작은 소리들에 정신이 팔려 종소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긴장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들렸니?"

박사가 속삭였다.

"응… 들렸어."

잔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대답했다.

"누워… 누워, 제발."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

바깥쪽, 처마 끝에 작은 소리가 났다. 이어 알 수 없는 낯선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그 정체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들은 옆 창문이 더 열리고 있다고 느꼈다. 찬 공기가 그들을 감싸올랐기 때문이다.

순간, 선명해졌다. 바로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손이 살짝 떨리는 의사가 권총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린 엄격한 명령을 잊지 않았고, 그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들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느껴졌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의 손짓을, 카펫 위를 걸을 때 소리가 묻힌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는 분명 침실 문턱을 넘었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적이 멈췄다. 그들은 그것을 확신했다. 그는 침대에서 다섯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아마도 망설임이 있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둠을 뚫어보려 했다.

의사의 손에서, 장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젖어 차가운 손이었다.

의사의 다른 손은 총을 꽉 쥐고 있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였다.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적이 침대 끝자락에 닿는 순간, 총알은 무작위로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가, 다시 멈췄다. 그리고 그 정적, 그 무표정함, 서로를 미쳐가며 엿보는 그 어둠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는 누구였는가?

그 남자는 누구인가. 그 끔찍한 증오는 왜 그 소녀를 향해 치솟았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지만,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보고, 진실을 알며, 적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

그가 한 발 더 내딛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실루엣이 더 깊은 어둠 속에 또렷이 드러나 보였고, 그의 팔이 서서히 들려 올랐다.

한 분, 또 한 분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의 너머 오른쪽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뜨거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남자의 정면을 강렬하게 비췄다.

장느는 비명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본 것은, 자신 위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남자,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때였다. 불이 꺼진 틈을 타, 총성이 울렸다. 의사가 쏜 것이었다.

"크레블유… 왜 쏘는 거야!"

뤼팽이 비명을 지르며 의사를 끌어안았다. 의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할 지경이었다.

"봤어… 봤다고! 들어봐… 저 자식이 도망쳐!"

"내버려 둬. 도망가는 게 제일 좋거든."

뤼팽은 손전등 스프링을 다시 작동시켰다. 세면실로 달려가 확인했다. 남자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차분하게 책상 앞으로 돌아와 램프를 켰다.

장느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안락의자에 웅크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을 뿐이었다.

"자, 웃으며 말했다. "진정해. 다 끝났으니 걱정할 것 없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노경의 의사는 신음했다.

"제발, 의사 선생님. 다르시외小姐가 아파요. 그녀를 치료해 주세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뤼팽은 세면실로 돌아와 발코니 난간을 따라 걸었다. 그곳에는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다. 그는 재빨리 내려갔다.

벽을 따라 스물 걸음쯤 더 걸어가자, 그는 밧줄 사다리의 사다리발에 부딪혔다. 그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랐고, 그것은 그를 다르시외 씨의 침실로 안내했다. 그 방은 비어 있었다.

'완벽하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님은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도망친 모양이군. 좋은 여행 되길… 그리고 아마도 문은 막혀 있겠지? 정확히…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그 착한 의사 선생님을 속이며, 밤중에 안전하게 일어나 발코니에 밧줄 사다리를 고정하고, 작은 꾀를 준비했던 거야. 다르시외 씨, 생각보다 영리하군!'

잠금 장치를 풀고 뤼팽은 장느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을 나서던 의사가 그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자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맙시다. 충격이 심했거든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뤼팽은 물병을 들어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는 평온한 어조로 앉았다.

"아무렇지 않아요.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테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낼 거라고요."

"왜요?"

"일단 다르시외小姐가 아버지에게 깊은 정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상관없소! 그걸 생각해보시오. 자식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가요! 몇 달 동안이나 네다섯, 여섯 번이나 그 끔찍한 시도를 되풀이한 아버지가요! 자, 생각해보십시오. 장느의 마음처럼 민감한 영혼이 아니라면, 그걸 견딜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겠습니까."

"그녀는 잊을 거요."

"그런 건 잊을 수 없소."

"그녀는 잊을 거요, 의사 선생님.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녀는 다르시외 씨의 딸이 아니랍니다."

"뭐?"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그 비열한 자의 딸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르시외 씨라니…"

"다르시외 씨는 그냥 장인일 뿐이에요. 그녀의 진짜 아버지는 그녀가 막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죠. 장모님은 남편의 사촌과 재혼했는데, 그분도 남편과 같은 이름을 지니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두 번

째 결혼한 해에 돌아가셨고, 장녀 장느는 다르시외 씨의 보호를 받게 되었죠.

다르시외 씨는 처음에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이 성을 구입했어요. 그가 이 지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한 거죠. 장느 본인조차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사는 할 말을 잃은 채 굳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 세부 사항들을 확신하시나요?"

"저는 하루 종일 파리의 시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인구 등록 부서를 샅샅이 뒤졌고, 두 명의 공증인을 만나 모든 서류를 확인했죠.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 아니 여러 차례에 걸친 연쇄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뤼팽이 말했다. "사건에 발이 묶인 첫 순간부터, 한 문장이 내게 방향을 제시했지. 다르시오 자매가 한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거의 다섯 살이었어요. 그로부터 열여섯 해가 지났습니다.'"

열여섯 해를 더하면 다르시오 자매는 스무 살이 된다. 곧 성인이 되는 나이였다. 나는 곧장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년은 바로 '재정적 계산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다르시오 자매의 재산 상황은 어땠을까?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상속인이었으니 말이다. 물론 나는 아버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니와, 무엇보다 침상에 누워 병석에 있는 다르시오 씨의 연기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이다.

"정말 병이 들었던 거야." 의사가 끼어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대한 의심을 씻어주었다. 더군다나 그 자신도 범죄적인 공격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 중, 그들의 실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파리행 여행이 진실을 밝혀주었다.

다르시오 자매는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유산의 수익권은 이모부가 행사하고 있었다. 다음 달, 파리의 공증인 소환에 따라 가족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면 다르시오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돈을 모아둔 적도 없단 말인가?"

"모아두긴 했다. 하지만 불운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어쨌든, 자네가 말하듯, 장느는 그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기지 않았겠지."

"의사 선생님, 당신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찢어진 편지를 읽으며 알게 된 건데, 다르시외 자매가 베르사유의 친구 마르셀린의 오빠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르시외 부인이 결혼을 반대했

죠. 지금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녀는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결혼을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군, 그건 파산이었지.'"

"파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며느리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직접적인 상속인이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그는 사고 연쇄를 꾸며 죽음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했어. 그리고 내가 일을 급하게 몰고 가려 했지. 그래서 네가 그에게 다르시외 양의 즉각적인 출국을 알려주라고 부탁했던 거야.

그제부터 그는 밤의 어둠을 틈타 정원을 배회하거나 복도를 기웃거리며, 오랫동안 계획해 둔 작전을 실행하기만 하면 됐어.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지. 곧장, 준비 없이, 잔인하게, 무장한 채로 행동에 나섰어. 그는 반드시 그럴 거라 확신했지. 그리고 그는 정말로 왔어."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가?"

"나에 대해서는 의심했지. 그가 오늘 밤 내 귀국을 눈치챈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성벽을 넘었던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다면!"

"그래, 내가 가슴 한가운데에 총알을 맞았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갑이 맞았어. 봐, 구멍이 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나무에서 떨어졌지. 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한 그는 성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두 시간 동안 성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다 결국 결심한 그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창문에 기대어 올랐다. 나는 그냥 그를 따라갈 뿐이었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때 잡았어야 했잖아. 왜 그가 올라가게 놔뒀다는 거야? 그건 장느에게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어. 게다가 필요도 없었고."

"필수였어! 다르시외 씨는 절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살인자의 정면을 직접 봐야 했지. 자고 일어나자마자 상황을 알려줘. 그녀는 금방 회복할 거야."

"하지만 다르시외 씨는…"

"그가 사라진 이유는 당신이 마음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여행이라든가, 정신 나간 행동이라든가. 몇 가지 조사는 하겠지만,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그의 소문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놀라울 만큼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장느는 당신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죠. 하지만 제게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

까? 당신은 안전부서와 연락이 된다고 하셨죠. 당신의 행동과 용기를 기록해 두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뤼팽은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이런 편지는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내 직속 상사인 가니마르 형사에게 편지를 써주게. 그의 보호하에 있는 서위안거리의 폴 도브뢰유가 또 한 번 빛나는 활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형사도 기뻐할 테니까. 바로 그 형사 지휘 아래서 내가 멋진 작전을 펼쳤거든. 당신도 들어봤을 '붉은 스카프 사건' 말이지. 가니마르 형사라니,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지 알겠어!"

제7장

"아르센 뤼팽, 가니마르 형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많이 좋게요? 그렇다면 왜 매번 그를 비웃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입니다. 후회도 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규칙이니까요."

뤼팽이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보통 경찰은 착실한 사람들이죠. 사회 질서를 지키고, 아파치 같은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만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좋아요, 뤼팽. 이제야 제대로 된 부르주아처럼 말하네요."

"그럼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정작 내 재산이 걸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 소유물에 손대려는 자는 경계하라. 내가 그때는 사나워진다. 지갑이든, 지갑 속 지폐든, 손목시계든……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자다, 친애하는 친구여. 소액 투자자의 본능을 지녔고, 모든 전통과 권위를 존중한다. 바로 그 덕분에 가니마르 형사는 내게 큰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 준다."

"하지만 경외심까지는 가지 않지."

"그들에 대한 존경심도 큽니다. 안전부 형사들 특유의 꺾이지 않는 용기 말고도, 가니마르에게는 매우 단단한 자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결단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으며, 판단력도 훌륭하죠. 제가 그의 솜씨를 직접 봤습니다. 이 사람은 만만치 않아요. '스완 목의 에디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제가 가장 신중하게, 가장 철저히 준비한 일입니다. 어둠과 신비로움을 최대한 쌓아 올렸고, 실행에 옮길 때 가장 높은 기량이 필요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정교하고 엄격하며, 수학처럼 계산된 한 판 체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니마르는 결국 그 얽힌 실타래를 풀고 맙니다. 덕분에 지금 오르페브르 항의 경찰서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언하건대, 그 진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언젠가, 제 시간이 날 때요. 하지만 오늘 밤은 브루넬리가 오페라에서 춤추는 날입니다. 만약 제가 제 자리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뤼팽의 만남은 드물었다. 그가 기꺼이 입을 열 때나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그의 고백을 조금씩, 조각조각 모아서야 했다. 다양한 국면들을 기록하고, 전체와 세부 사항을 재구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초에 대해서는 기억나시리라. 나는 사실 관계만 간략히 언급하겠다.

3년 전, 브레스트에서 온 기차가 렌 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부유한 브라질인 스파르멘토 대령이 아내와 함께 같은 기차를 탔다. 대령이 빌린 화물차의 문이 깨져 있었다.

화물차 안에는 여러 점의 태피스트리가 실려 있었다. 그중 한 점이 들어 있던 상자가 부러졌고, 태피스트리는 사라졌다.

스파르멘토 대령은 철도 회사에 소송을 걸었고, 도둑맞은 테이프스트리(벽지)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에 매달렸고, 철도 회사는 다급한 나머지 거액의 보상을 약속했다.

이틀 뒤, 우편국에서 잘못 봉인된 편지가 열리면서 사건은 급전직하한다. 편지 내용에는 테이프스트리 절도가 아르센 뤼팽의 지휘 아래 자행되었으며, 다음 날 북미행 소포가 발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성 라자르 역의 수하물 보관소에 방치된 한 여행용 가방에서 테이프스트리가 발견되었다.

결국 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뤼팽은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혔다. 그 분노를 스파르멘토 대령에게 보낸 편지로 풀었다. 편지 내용은 아주 단호했다.

"한 개만 가져가는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했지. 다음번엔 열두 개를 모두 가져갈 거야. 알아서 잘해. A. L."

스파르멘토 대령은 몇 달 전부터, 페상드리 거리와 뒤프레누아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정원 깊숙한 곳의 호텔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어깨가 넓은 다소 풍만한 남자로, 검은 머리에 피부는 약간 그을려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절제미를 자랑했다.

그는 건강이 약한 젊은 영국인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극히 아름다웠지만, 태피스트리 사건 이후 깊은 충격에 빠졌다. 첫날부터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팔아치우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대령은 성격이 너무 강직하고 완고했다. 그는 아내의 요구를 단순히 '여자의 변덕'으로 치부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대신 경고를 여러 겹으로 겹쳤고, 절도犯이 결코 침입할 수 없는 모든 방책을 마련했다.

일단 정원을 향한 정면만 감시하면 되니, 뒤쪽의 다른 창문들은 모두 막아버렸다. 거리로 향한 지층과 1층의 모든 창문을 벽돌로 막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보안 전문 회사에 도움을 청했다. 재산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다.

그는 갤러리의 각 창문에 보이지 않는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그곳에는 벽화가 걸려 있었다. 장치의 위치는 오직 그 자신만 알고 있었다.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호텔 안의 모든 전구가 켜지고, 여러 개의 종과 사이렌이 일제히 울리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게다가 그가 가입을 권유한 보험 회사들도, 밤마다 1층 복도에 그들이 파견한 세 명의 남자를 배치하고 그 비용을 그가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전직 형사 세 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뤼팽을 증오했다.

그의 하인들은 대장에게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대장은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새처럼 단단히 방어된 저택의 경비를 갖춘 뒤, 대장은 화려한 개장 파티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두 사교 클럽 회원은 물론, 많은 여성들과 기자, 수집가, 예술 평론가들을 초대했다.

정원을 지나 철문을 곧장 통과하자, 마치 감옥 안으로 들어선 기분이 들었다. 계단 아래에 서 있던 형사 세 명은 초대장을 내라고 재촉하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들이 곧장 내 몸을 수색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것처럼 보였다.

1층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대령은 웃으며 사죄했다. 그는 자신의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안 조치들을 설명하며 기뻐했다.

그의 부인은 곁에 서 있었다. 젊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금발에 창백한 얼굴, 유연한 몸매. 운명이 위협하는 이들特有的인, 체념과 다정함이 어우러진 슬픈 표정이었다.

모든 손님이 모이자, 정원 철조망 문과 현관문이 닫혔다.

그리고 우리는 이중 철판문으로 된 중앙 복도로 들어섰다. 창문에는 거대한 창문이 달렸고, 철창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여기에 열두 개의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이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걸작들이었다. 바로 유명한 바유 천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 바유 천은 마틸드 여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천은 잉글랜드 정복의 역사를 그리고 있었다.

이 작품들은 16세기, 윌리엄 정복자를 따라간 무사의 후손이 의뢰했다. 제작은 아라스의 유명한 직조공 젠 고셋이 맡았다. 400년 뒤, 브르타뉴의 낡은 영지에서 이 작품들이 발견되었다.

소령은 이 사실을 듣고는 5만 프랑을 들여 이 일을 처리했다. 이 작품들은 그 열 배는 족히 더 가치가 있었다.

이 열두 점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이었다. 주제가 매틸드 여왕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독창적이었다. 이 그림은 바로 아르센 뤼팽이 훔쳤다가 결국 되찾은 바로 그 작품이었다.

그림 속에는 시스위스(백조 목)의 에디스가 등장했다. 그녀는 해스팅스의 시체들 사이에서, 마지막 색슨 왕이자 자신의 연인이었던 해롤드의 시체를 찾고 있었다.

그 그림 앞에 선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솔직하고 순수한 선, 흐려진 색감, 생동감 넘치는 인물 배치, 그리고 장면 전체를 감싸는 처절한 비극성.

에디트 드 쿠 드 시뉴, 불운한 왕비. 무게에 짓눌린 백합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희고 긴 드레스는 흐느적거리는 그녀의 몸매를 드러냈다. 가느다란 긴 손은 공포와 간청의 제스처로 뻗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옆모습이 고통스러웠다.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미소가 그 얼굴을 빛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애틋한 미소군요.”

한 평론가가 말했다. 그는 경의를 담아 경청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매력 넘치는 미소죠. 그런데 대령 각하, 스파르멘토 부인의 미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이 타당해 보이자, 그는 계속했다.

"외관상으로도 저절로 눈에 띄는 닮은꼴이 많았소. 목덜미의 우아한 곡선이라든가, 손가락의 섬세함,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과 평소의 태도까지도 말이오."

"정말 그렇소. 그 닮은꼴 때문에 나는 이 벽지를 사기로 결심했거든. 더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정말로 흥미로운 우연이지만, 내 아내의 이름이 바로 에디트라는 거야. 그래서 난 그녀를 '백조 목의 에디트'라고 부르곤 했소."

대령이 웃으며 덧붙였다.

"비유는 여기서 멈추길 바랍니다. 제 사랑하는 에디트가, 그 이야기의 불쌍한 연인처럼 사랑하는 남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직 살아 있고, 죽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벽화가 사라지는 경우라면요… 음, 그땐 제가 뭘 할지 장담할 수 없겠군요."

그는 이 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아무에게도 울리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그 저녁 일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어디에

서나 같은 어색함과 침묵의 기운이 감돌았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다.

"당신 이름이 하롤드 대령이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이름이 아니라요. 작센 왕과 생김새가 비슷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한목소리로 증언했다. 대령이 그 말을 끝낼 무렵, 창가 쪽에서 짧고 날카로우며 변주 없는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는 것이다. 오른쪽 창가였는지, 중앙 창가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창가 쪽에서 소리가 났음은 틀림없었다.

그 소리에 이어 스파르멘토 부인이 남편의 팔을 꽉 쥐며 비명처럼 절규했다.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손님들은 얼어붙은 듯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령이 다시 물었다.

"무슨 뜻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종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이었다. 증언들 모두 그 점에서는 일치한다. 갑작스럽고 절대적인 어둠이 닥쳤고, 곧이어 호텔 구석구석, 모든 거실과 침실, 모든 창문에서 모든 종과 벨이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몇 초 동안 바보 같은 혼란과 미친 듯이 두려운 광경이 벌어졌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남자들은 닫힌 문에 주먹으로 세차게 두드렸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쳤고, 싸움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그 위에 발이 밟혔다. 마치 불길의 위협이나 포탄의 굉음에 놀란 군중이 패닉에 빠진 듯했다. 그 소란을 뚫고 대령의 비명이 들려왔다.

"조용히!… 움직이지 마!… 내가 다 책임지겠어!… 스위치는 여기… 구석에 있어… 찾았어!"

사실 그는 손님들을 헤치고 길을 뚫고 화랑 끝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갑자기 전등이 다시 켜졌다. 동시에 전화벨 소리의 소용돌이도 멈췄다.

갑작스러운 빛 속에서 기묘한 광경이 드러났다. 두 여인이 기절해 있었다. 남편의 팔에 매달려 무릎을 꿇고 창백해진 스파르멘토 부인은 마치 죽은 듯 보였다. 남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넥타이가 풀린 채 전사들처럼 보였다.

"타피스트리가 저기에!" 누군가 외쳤다.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마치 이 타피스트리의 부재가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결과이며, 그걸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인 양 여긴 듯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걸린 몇 점의 비싼 그림이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호텔 전체에 울려 퍼진 큰 소음에도, 모든 곳에서 정전이 일어났음에도, 형사들은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침입하려던 기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위가 말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곳은 갤러리의 창문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의 작동 원리는 저만 알고 있지요. 게다가 저는 그 장치를 감지하지 않았습니다."

경보는 우스꽝스럽게 끝났지만, 웃음소리는 진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치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각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생각은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도 이 집은 불안과 공포가 감도는 공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명의 기자는 그대로 남았다. 대령은 에디트를 돌보고 하녀들에게 인계한 뒤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 세 사람과 탐정들이 함께 수사를 했지만, 흥미로운 단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대령은 샴페인 병을 하나 열었다.

결국 밤이 깊어 두 시 사십오 분에야 기자들은 떠났고, 대령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으며, 탐정들은 지층에 마련된 방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교대로 경비를 섰다. 처음에는 깨어 있어야 했고, 다음에는 정원을 돌며 발코니까지 올라가야 했다.

이 지시는 철저히 따랐다. 다만 새벽 다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는 잠이 이겨 순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밖은 이미 밝은 낮이었다. 게다가 만약 불이 켜지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났다면, 그들은 깨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일곱 시 이십 분, 한 명이 복도 문을 열고 커튼을 치자, 열두 점의 벽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이 남자들과 동료들은 경보를 즉시 알리지 않고, 대령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그 지극히 이해할 만한 지체가 경찰의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단 말인가?

어쨌든 대령에게 소식이 전달된 것은 여덟 시 반쯤이었다. 그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 소식은 대령을 크게 흔들지 못한 듯했다. 적어도 그는 감정을 잘 추스른 척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너무 컸던 모양이다. 갑자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외관상 그토록 강인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는 보기에도 고통스러울 만큼의 진정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잠시 동안 몸을 맡겼다.

자신을 추스른 대령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갤러리로 걸어가, 맨 벽을 살폈다. 그러고는 테이블 앞에 앉아 편지를 급하게 쓴 뒤, 봉투에 넣어 인감을 찍었다.

"이거요. 제가 급해서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이 편지는 경찰서장에게 주십시오."

형사들이 그를 주시하자, 그는 덧붙였다.

"저는 그걸 경찰서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게 떠오른 한 가지 의심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분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당장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는 뛰어나갔다. 형사들이 나중에 회상하며 그토록 격렬했던 그 몸짓들을 떠올릴 만큼, 그는 안달이 난 듯 서두른 것이다.

몇 분 뒤, 경찰서장이 도착했다. 그에게 편지가 건네졌다.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여, 제가 당신에게 줄 슬픔을 용서해 주시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이름이 제 입가에 머물리라."

이처럼, 그는 그 밤의 신경 과민으로 인한 열병 같은 상태 속에서, 순간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자살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과연 그 행동을 감행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이성이 그를 말려 세울까?

스파르멘토 대령에게 알렸다.

수색이 한창이었고, 대령의 행방을 쫓느라 바쁠 때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힌 채 기다릴 뿐이었다.

오후 늦게 빌 다브레에서 전화 한 통이 들어왔다. 열차가 지나가고 터널을 빠져나온 곳에서 직원들이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것이

었다. 얼굴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고, 사지는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주머니에는 아무런 서류도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신원 확인 결과는 대령과 일치했다.

저녁 일곱 시, 스파르멘토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빌 다브레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덮여 있던 이불이 걷히자, 백조 목을 가진 에디트가 남편의 시체를 알아봤다.

이런 사건이 터지자, 뤼팽은 평소처럼 언론의 냉대를 피할 수 없었다.

한 논평가는 이렇게 썼다. "자주 경계하라!" 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는 말이었다. 이 정도 사연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끼지 않고 보냈던 모든 동정이 사그라질지도 모른다.

뤼팽이 용인될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하다. 그의 장난은 더럽고 추잡한 은행가나, 독일 자작들, 수상한 이방인들, 그리고 주권 회사들의 재산을 해칠 때에만 허용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의 손길은 괜찮다. 하지만 살인자의 손은 절대 안 된다.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지언정, 이 죽음에 대해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문장(紋章)의 색은 이미 붉게 물들었다.

에디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사람들이 모두 동정심을 느끼며 분노와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전날 파티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그 밤에 벌어진 일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그러자 금발의 영국 여인 에디트를 둘러싼 전설이 곧바로 만들어졌다. 이 전설은 백조 목의 왕후가 겪었던 대중적인 비극과 맞물리면서, 한층 더 비극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둑질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즉시 그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후로도 단언했다. 갤러리의 세 창문 중 하나는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뤼팽과 그 일당이 그 창문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아주 그럴듯한 추측이군.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지? 첫째, 누가 보지도 못한 채 정원의 철문을 드나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둘째, 화단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정원을 가로지르며 사다리를 세웠다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셋째, 호텔 경보와 불빛 하나 작동시키지 않고 창문과 커튼을 열었다는 건 어떻게?"

대중은 세 탐정을 지목했다. 심판관은 그들을 길게 심문했고,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한 끝에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들은 그 어떤 의심도 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벽화들.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희망은 완전히 끊겨 버렸다.

그때가 바로 가니마르 형사가 인도 깊은 곳에서 돌아온 때였다. 그는 다이아몬드 왕관 사건과 소니아 크리슈노프의 실종 이후, 뤼팽의 옛 동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논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뤼팽의 발자취를 쫓고 있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적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그는, 상대가 카펫 사건 동안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극동으로 보냈다고 단정했다. 그래서 상사들에게 열흘간의 휴가를 청했고, 스파르멘토 씨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에디트는 이제 복수의 생각조차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장례식 당일 밤, 그녀는 세 형사를 물리쳤다. 그리고 과거를 너무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그 많은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하인 한 명과 청소부 노파로만 채웠다.

그녀는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다. 방에 틀어박혀 가니마르 형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

형사는 1층에 거처를 정하고, 곧장 세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조사를 다시 시작해 인근 지역 정보를 수집했고, 저택의 구조를 살폈다. 각 방의 종을 스무 번, 서른 번씩 울려 보며 소리를 들어봤다.

보름이 지나자 그는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당시 sûreté(수사국) 국장이었던 뒤두아 씨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갤러리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날, 수석 형사는 자신의 수사가 헛수고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뒤두아 씨가 다시 그곳을 지나가자 가니마르 형사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신문 더미가 널려 있었다. 끝내 질문을 재촉하자, 수석 형사는 중얼거렸다.

"무엇도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 정말 아무것도요.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끔찍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다만, 너무 터무니없어서요… 게다가 그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상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움직이게 해 주세요. 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전화가 올 겁니다. 그때는 차에 뛰어올라 단 한 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장미의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로부터 사십팔 시간이 더 흘렀다. 어느 아침, 뒤두아 씨에게 작은 쪽지가 도착했다.

'릴로 갑니다.'

서명: 가니마르.

'도대체 저자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걸까?' 안보국 국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뒤두아 씨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가니마르를 잘 알고 있었다. 노경의 경찰관이 이유 없이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니마르가 움직였다면, 그에게는 확실히 그럴 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이틀째 날 저녁, 뒤두아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휘관님?"

"당신이시죠, 가니마르?"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신변이 안전하다고 확신한 가니마르가 재촉하듯 말했다.

"지휘관님, 지금 바로 열 명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직접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이 집 1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철문 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도착합니다. 물론 자동차로 오는 거죠?"

"네, 지휘관님. 차는 백 보 앞에서 멈춰 주십시오. 제가 휘파람을 한 번 불면, 제가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일들은 가니마르의 지시대로 진행되었다. 자정이 조금 전, 위층의 모든 불이 꺼진 틈을 타 그는 거리로 나와 뒤드와이 씨를 맞았다. 그들은 짧은 회의를 가졌다. 형사들은 가니마르의 명령에 따랐다. 그 후, 수장과 수석 형사는 함께 돌아와 조용히 정원을 지나 가장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그래, 대체 뭐야?" 뒤드와이 씨가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정말로 우리, 음모꾼들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가니마르는 웃지 않았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상테 형무소의 수장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목소리가 이토록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새로운 소식인가, 가니마르?"

"네, 상사.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한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쥐고 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믿기 힘들다 해도, 그것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그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았다. 뒤두아 씨가 묻자, 가니마르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을 한 잔 마시며 말을 시작했다.

"뤼팽이 저를 여러 번 속였습니다…"

"잠깐, 가니마르." 뒤두아 씨가 말했다. "핵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마디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상사." 가니마르 형사가 반대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단계를 모두 아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사님. 뤼팽이 저를 수없이 속여왔고,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밀렸지만…… 적어도 그 수법을 이해하고 전술을 파악했다는 점은 얻어냈죠. 그래서 이 테이프스트리 사건을 다루면서부터 저는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째, 뤼팽은 항상 목적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테이프스트리가 사라진 결과로 스파르멘토 씨의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를 싫어하는 뤼팽이 어째서 테이프스트리를 훔쳤을까요?"

"그들이 가치 있는 오십만, 육십만 프랑을 노렸겠죠." 두두아 형사가 말했다.

"아니요, 상사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천문학적인 돈을 주더라도 뤼팽은 절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죽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 개회식 전날 밤에 그토록 큰 소동을 벌였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였죠. 사건의 주변에 불안과 공포

의 분위기를 몇 분 만에 조성함으로써,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의심받았을지도 모를 진실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상사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글쎄, 나는 이해가 안 가."

"맞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니마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심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 분명해요. 뤼팽이 자기를 의심의 중심에 세우려 했죠. 그래야 이 사건의 실세, 즉 지휘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요."

"공범이 있는 셈이군요?" 뒤두디 씨가 물었다. "손님들 속에 섞여 벨을 울린 공범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호텔 어딘가에 숨어 있던?"

"자, 자, 형사님. 너무 성급하십니다. 테이프스트리는 외부에서 몰래 침입한 도둑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남아 있던 사람이 훔쳤겠죠. 그리고 손님 명단을 살펴보고 각자를 조사하면……"

"그럼 어떻게?"

"형사님,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그리고 떠났을 때, 세 명의 탐정이 그 명단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들어온 손님이 여든 셋, 나간 손님도 여든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인인가?"

"탐정들이요?"

"그래, 그래." 형사는 조급한 듯 말했다. "만약 내부에서 도난이 자행됐다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목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다. "여기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모든 수사가 결국 이 결론으로 귀결되었죠. 제 확신은 차츰 강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놀라운 명제를 외치게 되었어요."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이 절도 사건은 반드시 호텔에 숨어 있는 공범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공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터무니없군." 두두아 씨가 말했다.

"그렇죠, 터무니없습니다." 가니마르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바로 그 터무니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던 순간, 진실이 제 안에 피어올랐습니다."

"뭐라고?"

"아니요, 아주 흐릿하고 불완전한 진실이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끝까지 갈 수 있었죠. 이해가 가십니까, 상경?"

두두아 씨는 침묵을 지켰다. 가니마르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초대객도, 하인도, 형사들도 아닌데…… 그럼 남는 사람이 없잖아."

"아닙니다, 상사. 남는 사람이 있어요."

두두아 씨는 전기라도 맞은 듯 몸을 떨었다. 감정이 드러난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보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요?"

"자, 생각해 봐."

"말씀하세요, 상사. 계속하세요."

"뭐라고? ……아니지, 그렇지?"

"계속하세요, 상사."

"불가능해! 뭐라고? 스파르미엔토가 뤼팽의 공범이라니!"

가니마르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하군요.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군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밤사이, 아래층에서 세 명의 탐정이 감시하고 있었죠. 아니, 감시라기보다는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스파르멘토 대령이 그들에게 마땅치 않은 샴페인을 마시게 했으니까요. 그 대령은 벽걸이를 벗겨내 창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의 방은 2층에 있었고, 다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래층 창문은 벽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테니까요."

두두아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요? 만약 대령이 뤼팽의 공범이었다면, 성공한 뒤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가 자살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그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잖아요."

"뤼팽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분명히 실제 죽음이었소. 게다가 스파르미엔토 경감이 그 사실을 확인했단 말이오."

"그건 제가 예상한 지점입니다, 형사님. 저도 그 논리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된다는 게发现问题했습니다. 첫째, 아르센 뤼팽, 도둑. 둘째, 공범인 스파르미엔토 경감. 셋째, 죽은 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더 이상은 던지지 마십시오."

가니마르는 신문 한 뭉치를 집어 들고, 끈을 풀어 한 장을 뒤져 뒤두두이에게 건넸다.

"기억나시나요, 형사님. 오셨을 때 제가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죠. 그 시기에 형사님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뒤두두이가 신문을 받아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엘의 특파원이 이상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아침, 리엘의 시체 수습소(모르그)에서 한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날 증기 트램 차륜 밑으로 몸을 던져 죽은 미지의 남자 시체였죠. 이 사라짐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두두아 씨는 묵념하더니 물었다.

"그럼, 당신은…… 믿습니까?"

"저는 방금 리엘에서 왔습니다. 제 수사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체는 스파르멘토 대령이 개장 파티를 열

던 밤, 바로 사라졌습니다. 시체는 자동차에 실려 빌다브레로 옮겨졌고, 그 자동차는 저녁까지 철도 선로 근처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결국 터널 근처라는 말씀이군요."

두두아 씨가 마무리했다.

"바로 옆입니다, 상사."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찾아낸 시체는 바로 그 시체이고, 스파르멘토 대령의 옷을 입혔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상식."

"그렇다면 스파르멘토 대령은 살아 있다는 말인가?"

"당신과 저처럼 살아 있습니다, 상식."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왜 한 장의 타피스트리를 훔쳤다가는 다시 돌려주고, 또 열두 장을 훔쳤는가? 왜 개회식 잔치가 있었는가? 그 시끄러운 소란은 또 무엇인가? 결국 네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 가니마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형사님. 당신이 저처럼 중간에 멈춰섰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이미 기이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먼 곳, 불가능에 가깝고 경악스러운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상대가 아르센 뤼팽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있을 때야말로, 바로 그 불가능하고 경악스러운 상황을 예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는 가장 터무니없는 가설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터무니없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며, 어린이처럼 단순합니다. 공범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공범이 필요합니까? 직접 나서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수단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오? 무슨 소리요?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뒤두아 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경악한 표정이 매번 외칠수록 더 깊어졌다.

가니마르는 또 한 번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황하시죠, 상사?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러 왔던 날, 그 생각이 들 때처럼요. 저는 깜짝 놀라 멍해졌죠. 하지만 그 '고객'을 직접 상대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아닙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뒤두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오히려 매우 가능성 높습니다, 상사님.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며, 아주 정상적이죠. 성삼위일체의 수수께끼만큼이나 투명하게요. 단 한 명의 인물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문제는 아이도 일분 만

에 풀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리요. 먼저 죽은 사람을 지워 버리면, 남는 건 스파르미엔토와 뤼팽뿐이죠. 스파르미엔토를 지워 버리면…"

"남는 건 뤼팽뿐이죠." 안전부장이 중얼거렸다.

"네, 상사. 루팽입니다. 두 음절, 다섯 글자. 루팽. 브라질산 껍질을 벗겨낸 루팽. 죽은 자 사이에서 부활한 루팽. 여섯 달 전부터 스파르미엔토 대령으로 변장해 브르타뉴를 누비던 그가, 타피스트리 열두 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들여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의 도난을 계획하지요. 자신의 주의를 끄기 위해서, 동시에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는 큰 소란을 피워, 놀란 군중 앞에서 '루팽 대 스파르미엔토', '스파르미엔토 대 루팽'의 결투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개장 파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손님들을 공포에 떨게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는 결심합니다. 스파르미엔토의 타피스트리를 루팽이 훔치고, 루팽의 희생자가 되어 스파르미엔토가 사라지며, 의심할 틈도 없이, 의심조차 할 수 없이, 친구들에게는 안타까움을, 군중에게는 연민을 남긴 채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이득을 챙기는 거죠…"

가니마르 형사는 여기서 멈춰 섰다. 그는 상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뒤에는 위로할 수 없는 과부인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스파르멘토 대령!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형사, 자네. 이런 식으로 온갖 이야기를 꾸며내려면, 그 끝에 무언가 확실한 이익이 따르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 이익은 뤼팽이 이tapestries를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팔아서 얻는 돈 아닐까요?"

"그건 맞지. 하지만 그 판매를 스파르멘토 대령이 직접 해도 충분해. 오히려 더 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라니?"

"보십시오, 상사님. 스파르멘토 대령이 큰 액수의 도둑을 당했다는 건 잊으셨나요. 비록 그가 죽었지만, 적어도 그의 과부는 살아남았죠. 그러니 보험금을 타는 건 과부입니다."

"누가? 무엇을 타?"

"무엇을 타요? 당연히 우리가 줘야 할 돈 말입니다. 보험금요."

두두아 씨는 깜짝 놀랐다. 모든 사건의 진상이 한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맞아요… 맞아요… 대령은 벽화를 보험에 들었군요."

"당연하죠. 헛수고였을 리가요."

"얼마나?"

"팔십만 프랑."

"팔십만 프랑!"

"제가 말했잖아요. 다섯 곳의 다른 보험사에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스파르멘토 씨는 그 돈을 모두 탔나요?"

"어제 백오십만 프랑, 오늘 이백만 프랑.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치러진 돈입니다. 나머지 지급도 이번 주에 이어질 거예요."

"세상에, 소름이 끼치네! 만약 그때…"

"무엇을 했어야 했나요, 형사님? 아무튼 그들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정산 작업을 벌인 거죠. 제가 돌아와 우연히 알게 된 보험회사 임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전부 국장은 멍하니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서 있다가, 비로소 중얼거렸다.

"참으로 놀라운 인간이야."

가니마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사. 비범한 놈이긴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이 있지. 그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최소 네다섯 주 동안 스파르멘토 대령에게 아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못하게, 아니 심지어 의심 자체를 품지 못하게 조율해야 했어. 모든 분노와 수사는 오직 뤼팽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그저 슬퍼하는 과부, 동정심 많은, swan-neck의 가련한 에디트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지. 전설 속의 아름다움 그 자체

라니, 너무도 안타까운 존재였기에 보험사 쪽에서조차 그녀의 슬픔을 달래줄 돈을 건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바로 그게 일어난 일이지."

두 남자는 서로 아주 가까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 한 순간도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상사가 말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소니아 크리친코프요."

"응, 다이너마이트 사건 때 내가 작년에 체포했던 그 러시아 여자 말이야. 뤼팽이 도망치게 만든."

"확실해?"

"물론이지. 뤼팽의 궤계에 모두 당해 내가 처음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자 기억이 났지. 바로 소니아야. 영국 여성으로 변장한. 가장 교활하면서도 가장 순진한 여배우 중 한 명이지. 뤼팽을 사랑해서라면 주저 없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두두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수확이군, 가니마르."

"저보다 더 좋은 걸 가져왔어요, 상사."

"아, 또 뭐라고?"

"뤼팽의 옛 유모야."

"빅투아르?"

"스파르멘토 씨가 과부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부터 여기 있었지. 바로 그 요리사야."

"오, 오! 축하합니다, 가니마르!" 뒤두아 지사가 말했다.

"저보다 더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상사님!"

뒤두아 지사가 놀라 몸을 떨었다. 가니마르 형사의 손이 다시 그의 팔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떨림이 느껴졌다.

"무슨 뜻이오, 가니마르?"

"상사님, 만약 그놈 하나 잡는 일이라면, 제가 이 시간에 상사님을 번거롭게 했을까요? 소니아와 빅투아르 따위는 언제든 잡을 수 있었죠."

"그럼?" 뒤두아 지사가 속삭였다. 이제야 그는 주경의 초조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상사님이 이미 눈치채셨죠!"

"그가 여기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가?"

"아니요. 그냥 위장했을 뿐입니다. 바로 하인입니다."

이 순간 뒤두아 지사는 아무 말도, 아무 동작도 하지 못했다. 뤼팽의 대담함에 그는 압도당했다.

가니마르 형사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상테 형무소에 네 번째 인물이 합류했다. 에디트도 '고니드크엉'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 마스터의 존재가 필요했고, 그는 정말 대담하게도 다시 돌아왔다. 지난 삼 주 동안 그는 나의 수사를 지켜보며, 그 진전을 조용히 감시해 왔다.

"당신은 그를 알아봤습니까?"

"뤼팽은 알아볼 수 없다. 그는 분장과 변장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나는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계단의 어둠 속에 숨어 소니아를 엿보고 있을 때, 비크토르가 하인에게 '내 작은 아이'라고 부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 작은 아이'라니, 그녀가 그를 부를 때 항상 쓰던 호칭이었다.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드두아 씨도 적의 출현에 흔들리는 기색이었다. 수없이 쫓았지만 늘 손끝에서 빠져나가던 그 적, 아르센 뤼팽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번엔 잡았다. 드디어 잡았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상사님. 그도, 두 여자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나?"

"소니아와 빅투아르는 2층, 뤼팽은 3층에 있습니다."

"잠깐." 드두아 씨가 갑작스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방 창문으로 그들이 사라질 때 벽화를 건넸던 게 아니었나?"

"그렇다면 뤼팽도 그 창문으로 도망칠 수 있겠네요. 그 창문이 뒤의 뒤프루아 거리로 나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상사님. 하지만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형사 네 명을 뒤르프누아 거리 창가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지시는 명확합니다. 창문에 누군가 나타나 내려가는 기미를 보이면 곧바로 쏘라는 거죠. 첫 총알은 공탄, 두 번째는 실탄입니다."

"그래, 가니마르. 너는 정말 모든 걸 생각했구나. 새벽부터 말이지."

"잠깐 기다리세요, 상사님! 저런 악당과 장난치다간 큰일 납니다. 규정이나 표준 시간 따위에 매달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한술 더 뜨면 어떡합니까? 뤼팽 특유의 트릭을 쓸지도 모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를 포위했으니, 서둘러 덮쳐야 합니다!"

가니마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초조함에 몸이 떨리는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정원 한복판을 가로질러 반쯤 되는 형사들을 불러들였다.

"됐습니다, 형사님! 뒤프루아뉴 거리에서 총을 꺼내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창문을 조준하라고요. 갑시다."

이런저런 오가는 소음은 분명히 호텔 손님들의 귀에 들렸을 것이다. 뒤두아 씨로서는 이미 발이 묶인 형국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결심했다.

"갑시다."

작전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아홉 시, 브라우닝 권총을 든 이들은 신중함 따위 버리고 계단을 올랐다. 뤼팽이 방어 태세를 갖출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덮치기 위한 조급함이 그들을 재촉했다.

"문 열어!"

가니마르 형사가 스파르멘토 부인이 묵던 방 문으로 돌진하며 외쳤다.

경찰 한 명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자 문이 통째로 무너졌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크토르의 방에도 아무도 없었다.

"다섯 층에 올라가셨다! 뤼팽과 합류하셨군. 조심해!"

가니마르 형사가 외쳤다.

여덟 명은 일제히 세 번째 층까지 올랐다. 가니마르 형사는 깜짝 놀랐다. 다락방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락방은 비어 있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나!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가니마르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휘관이 그를 불렀다. 막 두 번째 층으로 내려온 뒤던 뒤두아 씨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창문 중 하나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밀려 있었다는 것이었다.

"보시오, 가니마르 형사. 그들이 간 길입니다. 벽지 너머 길로요. 내가 말했죠, 뒤프레노이 거리로."

"그럼 총을 맞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니마르 형사가 이를 갈며 반박했다.

"거리는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떠났을 겁니다."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 세 분 다 방 안에 계셨습니다, 형사님!"

"당신이 정원에서 기다리는 사이, 이미 떠났겠죠."

"왜요? 왜 떠나야 했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다음 주에 모든 보험금을 챙긴 후에 떠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떠날 이유는 있었다. 가니마르 형사는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가 탁자 위에 놓인 것을 보고, 그것을 뜯어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편지 내용은 만족스러운 하인에게 주는 증명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 있었다.

나, 아르센 뤼팽. 신사 도둑이자 전 대령, 전 하역부, 전 시신임을 증명한다. 가니마르가 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지닌 놀라운 자질들을 기록한다.

그는 본보기가 될 만한 행실로 헌신적이고 세심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음에도 그의 덕분에 내 계획 중 일부는 무산되었고, 보험 회사들은 45만 프랑을 건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용서도 한다.

아래층 전화기가 소냐 크리슈노프의 방에 설치된 전화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안전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동시에 내가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은 것도 내게 통보한 셈이었다.

이것은 작은 실수일 뿐이다. 그의 공적을 흐리게 하거나, 승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내 경외심과 뜨거운 동정을 바친다는 뜻을 전하며, 그 뜻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했다.

제8장

그날 오후 네 시쯤,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구소뜨 씨가 사냥을 마치고 네 아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다섯이나 되는 단단한 체격의 사내들이었다. 다리는 길고 상체는 굵었으며, 얼굴은 햇볕과 차가운 바람에 그을려 거칠게 타들어 갔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대한 목에 박힌 듯한 작은 머리에는 이마가 낮았고 입술은 얇았으며, 코는 새의 부리처럼 굽어 있었다. 표정은 단단하고 친근감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득을 쫓는 데는 날카롭고, 꾀가 많았으며, 성의가 부족했다.

구레보르 영지를 둘러싼 낡은 성벽 앞에 선 구소뜨 주인은 좁고 튼튼한 문을 열었다. 아들이들 지나가자 그는 무거운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사과나무 과수원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그들 뒤를 따라 걸었다.

가을에 잎을 다 잃은 큰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옛 공원의 흔적으로 남은 전나무 무리들이 구소뜨 주인의 농장이 자리한 곳에 있었다.

그중 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가 장작불을 피워놓았으면 좋겠는데."

"당연하지. 아버지."

"그래, 연기까지 보이네."

잔디밭 끝에는 부속 건물들과 본채가 보였다. 그 너머로는 마을의 교회와 종탑이 하늘을 찌를 듯 구름 사이로 솟아 있었다.

"총알은 다 비웠습니까?" 구소뜨 변호사가 물었다.

"제 총에는 아직 한 발 남아 있어요." 맏이가 말했다. "참새를 쏘려고 장전해 뒀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중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형제들에게 말했다.

"저 체리나무 꼭대기 작은 가지를 보세요. 쏘면 딱 부러지게 꺾어 보이겠습니다."

그 작은 가지 위에는 봄부터 그대로 놓여 있던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가지가 없는 나뭇가지들을 허수아비의 두 팔이 감싸고 있었다.

그가 총을 어깨에 메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인형이 우스꽝스럽게 팔다리를 흔들며 떨어졌다. 아래쪽 굵은 가지 위에 그대로 멈춰 섰다. 복부 쪽으로 납작 엎드린 채, 천으로 만든 머리는 높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짚으로 채운 다리는 나무 옆에 있는 우물 위에 놓인 나무 물통 위를 왔다 갔다 흔들렸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도 박수를 치며 말했다.

"잘했군, 아가씨. 솔직히 그 녀석은 나도 이미 짜증이 나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면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만 들이면 그 멍청이가 꼭 눈에 띄었거든."

그들은 다시 몇 걸음을 나아갔다. 집까지 불과 스무 미터쯤 남은 때였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어? 뭐야?"

형제들도 함께 멈춰 섰고, 귀를 기울였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소리가 집에서 들려… 린넨실 쪽으로."

다른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비명 같아…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신다면서!"

순간,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섯 사람은 일제히 앞으로 돌진했다. 이어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고, 절박한 부름이 이어졌다.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

앞장서던 장남이 소리쳤다.

문을 향해 돌아가려면 우회해야 했다. 그는 주먹으로 창문을 한 방에 부수고, 부모님의 방으로 뛰어 들었다. 바로 옆 방은 린넨실이었다. 구소뜨 부인은 거의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그가 바닥에 누워 얼굴이 피투성이인 그녀를 보자 외쳤다.

"세상에! 아빠! 아빠!"

그때 주인장이 나타나 비명을 지르며 물었다.

"뭐야? 그녀는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가능해? 어머니, 누가 너를 다치게 했어?"

그녀는 몸을 굳히며 팔을 뻗어 더듬거렸다.

"그냥 따라가! 여기로! 여기로! 나 괜찮아… 긁힌 것뿐이야… 하지만 빨리 가! 돈이 사라졌어!"

아버지와 아들들이 벌떡 일어났다.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장이 비명을 지르며 아내가 가리키는 문 쪽으로 돌진했다. "도둑이야! 도둑!"

그러나 복도 끝, 다른 세 아들이 있던 쪽에서 목소리의 소동이 일었다.

"나도 봤어! 내가 봤다고!"

"나도 봤다. 그가 계단을 올라갔다."

"아니, 저기다! 내려오고 있어!"

열정적인 발소리가 마루판을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때 막 복도 끝까지 다다른 구소뜨 선생이 현관문 옆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가 문을 열면 구원이다. 교회 광장과 마을의 골목을 통해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

일하는 도중 들킨 남자는 어리석게도 정신을 잃고 구소뜨 선생에게 돌진했다. 그는 선생을 뒤로 날려 버리고, 맏이를 피한 채, 네 아들의 추격을 받으며 긴 복도를 다시 달렸다. 그리고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가, 철거한 창문을 넘어 사라졌다.

두 하인은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잔디밭과 과수원을 가로질러 그를 쫓아갔다.

"도둑놈은 끝장났군." 구소뜨 선생이 비웃었다. "그는 도망칠 길이 없다. 담장이 너무 높으니까. 정말 끝장이야. 아, 이 사나운 놈!"

그때 두 하인이 마을에서 돌아왔다. 구소뜨 선생은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총을 쥐여주었다.

"저 개자식이 집 근처에 발을 들이려는 기색만 보이면 쏴라. 자비 같은 건 없다!"

그들은 각자 서야 할 자리를 지정받았다. 구소뜨 선생은 수레용 큰 대문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한 뒤, 비로소 아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때, 어머님?"

"그는 어디에? 잡혔나요?" 그녀가 재촉했다.

"응, 우리가 그를 붙잡았어. 아이들 놈들이 이미 그를 제압했을 거야."

그 이야기로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을 되찾았다. 마스터 구소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럼주 한 모금으로 힘을 보충한 뒤, 침대 위에 드러누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그다지 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큰 방에 불을 피워놓고, 창가에 앉아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가롭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옆의 린넨장 방에서 미세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내가 놓아둔 고양이겠지.'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돈이 숨겨진 린넨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

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곳에는 등받이를 벽 선반에 기대고 몸을 숨기고 있던 남자가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야?" 구소뜨 선생님이 물으셨다.

"어디로 들어왔다고? 현관으로 들어왔지. 그 문은 절대 잠그지 않거든."

"그럼, 당신에게 덤벼든 거야?"

"아니요. 제가 덤벼든 거죠. 그 녀석은 도망가려 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았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있었잖아요!"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야 물론이지! 그 악당이 손에 지폐 뭉치를 쥐고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왔거든.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게 나았을 거야……. 정말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는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나?"

"저도 무장하지 않았죠. 우리는 손톱과 이빨로 싸웠어요. 보세요, 저기 물린 자국이 있어요. 비명도 지르고 소리도 질렀지만, 문제는 제가 늙었다는 거예요.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를 아나?"

"물론이죠. 트라르나르 아저씨예요."

"길손이라니? 응, 맞다. 바로 트라르나르 아저씨야." 농부가 소리쳤다. "나도 처음엔 누군지 알 것 같았어. 게다가 사흘째 그 노인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거든."

"아, 이 늙은 바보야. 돈 냄새를 맡았나 봐. 아, 트라르나르 아저씨라니, 이제 얼마나 웃길까! 먼저 한바탕 구타를 시켜주고, 그다음엔 법에 넘기면 돼. 여보, 이제 일어나도 괜찮겠지? 이웃을 불러와.宪兵대까지 달려가라고 해."

"저기, 공증인 집 아이 자전거 타는 애 있잖아. 트라르나르 아저씨, 저렇게 도망치다니! 나이가 이젠데도 다리가 제법 빠르네. 진짜 토끼 같아!"

그는 갈비뼈를 부여잡고 있었다. 모험이 너무도 신났다. 그는 무엇을 잃을 위험이 있었을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그 거지 같은 자를 도망치게 할 수 없었고,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맹렬한 매를 맞게 되었으며, 좋은 호위와 함께 시의 감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농부는 총을 들고 두 하인들에게로 돌아갔다.

"변한 거 없나?"

"아니요, 구소뜨 씨. 아직까지는요."

"곧 있을 걸세. 악마가 벽을 넘어 그를 데려가지 않는 한 말이야……"

가끔씩 멀리서 네 형제가 서로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그 노인은 저항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민첩했다. 하지만 구소뜨 형제 같은 녀석들이었기에……

그러자 그중 한 명이 꽤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 무리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 밤이 완전히 깊어졌으니까. 그 녀석은 어딘가 구멍에 숨어 있을 거야. 내일 보자고."

"내일? 넌 미친 거 아니야, 친구." 구소뜨 씨가 반박했다.

형이 숨을 헐떡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동생과 같은 생각이었다. 도적단장이 감옥 벽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지 안에 갇혀 있는데, 왜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의문이었다.

"그래, 내가 가겠다." 구소뜨 씨가 외쳤다. "등불을 가져다주게."

그때, 헌병 세 명이 도착했고, 마을의 청년들도 소식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

경찰대장은 꼼꼼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일단 모든 사연을 자세히 들은 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네 형제를 따로따로 불러 진술을 듣고, 매번 그 진술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들이 길손이 영지 안쪽 끝으로 달아났고, 여러 차례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까마귀 언덕'이라는 곳 근처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낫군. 밤에 쫓다가는 트라르나르 아저씨가 우리 사이로 슬쩍 끼어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큰일 나지."

농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분을 삭이는 기색이었지만, 소위장의 설득에 결국 굴복했다. 소위장은 감시 체계를 꾸리고, 구소 형제들과 마을 청년들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맡겼다. 사다리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한 뒤, 그는 거실에서 밤을 새울 준비를 했다. 구소 장로와 함께 오래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나른한 낮잠을 청했다.

밤은 고요하게 흘렀다. 두 시간마다 소위장이 순찰을 돌고 경계선을 교체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 트라르나르 아저지는 구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이 밝자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네 시간이나 이어졌다.

사흘 밤낮을 꼬박 들이부어, 이십여 명의 사내들이 다섯 헥타르에 달하는 영지를 샅샅이 뒤졌다. 지팡이로 덤불을 두드리고, 풀숲을 짓밟고, 나무 구멍을 들여다보고, 마른 낙엽더미를 뒤집었다.

그런데도 트라르낭 아저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건 정말 끝장이군." 구소또 선생이 이를 갈며 말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부경이 되받아 말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몇몇 오래된 동백나무와 화살나무 덩어리를 꼼꼼히 털어냈을 뿐, 나머지 나무들은 이미 잎이 다 떨어졌다. 건물도, 창고도, 곡식 더미도 없었다. 숨을 곳이랄 것 같아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부경관 자신도 확신을 갖게 되었다.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재판장 검사와 대리 검사의 입회 하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은 검사들에게 너무 수상하게 보였고, 그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고소인 구소또 씨, 당신과 아들들이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확신합니까?"

"저희 아내도요!" 구소또 변호사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지며 외쳤다. "그 도둑놈이 내 목을 조를 때 아내가 착각했다는 말입니까? 자, 자국을 보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네 벽 사이에요."

"좋아요. 그럼 찾아보시죠.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땅에 숨어든 남자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찾아냈을 테니까요."

"내가 찾아내겠소!" 구소뜨 변호사가 포효했다. "나를 속인 자는 없소. 내 돈 육천 프랑을 훔쳐간 놈은 반드시 찾아내겠소. 육천 프랑이라니요! 팔린 소 세 마리, 밀 수확, 사과 값까지 합친 돈이오. 백 프랑짜리 지폐 여섯 장을 은행에 가져가려던 참이었소. 내게 그 돈은 이미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과 다름없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판사가 물러나며 말했다. 부검사와 헌병들도 함께 물러났다.

이웃들도 비웃는 눈치로 자리를 떴다. 오후가 저물자, 마을에는 구소 부부와 농장 하인 두 명만 남았다.

곧장 구소 씨가 계획을 밝혔다.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매분 매초 감시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다. 트라르나르 아저씨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산다. 그러니 트라르나르 아저씨가 물과 음식을 찾아 굴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밤에 빵 부스러기라도 주머니에 챙겨 두거나, 밤에 뿌리채소를 주워 먹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을에 우물 하나뿐인데, 누가 그 우물가까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자신도 분수대 근처에서 경비를 섰다. 세 시간이 지나자, 맏아들이 그와 교대했다. 나머지 형제들과 하인들은 집 안에서 차례로 당직을 서며, 모든 촛불과 램프를 밝혀두어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연속 열다섯 밤 동안 상황은 같았다. 그리고 열다홀 동안, 두 명의 경비원과 고조트 아줌마가 초소를 지키는 동안, 나머지 다섯 형제는 에베르빌 농장을 샅샅이 뒤졌다.

이 이 주가 지나도 결과는 없었다.

변함없었다.

그는 근처 마을에 사는 전 보안국 형사를 불러들였다.

형사는 일주일 내내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트라냐르 아저씨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을 희망을 줄 만한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정말 고집이 세다." 구소또 변호사가 되뇌었다. "저 녀석이 바로 저기 있단 말이다. 감옥에 들어갈지 말지 따위, 이미 결정됐어. 그런데…"

그는 문턱에 버티고 서서, 내뱉을 수 있는 모든 욕설을 쏟아냈다.

"바보 같은 놈, 구덩이 속에서 죽는 게 더 좋단 말이냐? 돈 좀 내놓으면 되지. 죽어라, 더러운 것 같으니!"

그러자 구소또 부인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감옥이 무서워서 그래? 지폐를 내놓으면 곧장 도망칠 수 있어."

하지만 트르나르 아저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과 부인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끔찍한 나날들이 흘렀다. 구소또 변호사는 잠을 설쳤다. 온몸이 떨리며 열이 났다. 아들들은 날카로워지고 싸움질꾼이 되었고, 총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이 방랑자를 죽이는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지역 사회의 문제였던 구소 사건이 곧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수도와 현청 소재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구소 변호사는 그들의 질문에 우스꽝스러운 말로 일축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오. 너희들의 일에만 신경 쓰게. 나는 내 일이 있고, 남들이 끼어들 일은 하나도 없소."

"하지만, 구소 변호사님……"

"날 좀 내버려 둬."

그리고 그는 그들의 코앞에서 문을 닫아젖혔다.

드디어 트라르나르 신부가 에베르빌 성벽 안에 숨어 지낸 지 사주가 흘렀다. 구소 부부는 끈질기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수색을 계속했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옅어졌다. 마치 장벽에 부딪힌 듯, 그들의 노력은 좌절감에 빠졌다. 드디어 그들은 자신의 돈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열 시쯤이었다. 마을 광장을 속도로 지나가던 한 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고장 때문이었다.

기계사가 살펴본 결과, 수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주인은 여관에 머물며 아침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의 신사였다. 수염은 짧게 깎았고, 표정은 친근해 보였다. 그는 곧 여관 손님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은 그에게 구소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여행 중이라 그 사연을 몰랐지만,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여러 사람과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았다. 그러다 문득 외쳤다.

"하, 별것 아닌 것 같군. 이런 일은 내가 조금 익숙해. 만약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건 쉬워요," 여관 주인이 말했다. "저는 구소 변호사를 알거든요. 그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협상은 짧게 끝났다. 구소뜨 변호사는 남의 간섭에 덜 거칠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기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의 부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분, 오라고 하세요."

손님은 식사를 치르고, 수리가 끝나면 곧장 큰길에서 차를 시험해 보라고 기계공에게 명했다.

"한 시간만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 준비되세요."

그리고 그는 구소뜨 변호사 집으로 향했다.

농가에서는 그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구소뜨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희망이 되살아나, 정보를 쏟아냈다. 그는 방문객을 따라 벽을 따라 걷다가 작은 들문까지 데려가, 열쇠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수색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낯선 이는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척도 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오히려 정신이 다른 데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구소뜨 변호사는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어때?"

"뭐라고?"

"알고 있나?"

낯선 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농부가 손을 저으며 외쳤다. "당신이 어찌 알 수 있겠소? 다 장난일 뿐이오. 내가 말해 주마. 트라냐르 아저씨가 그렇게 잘했더니, 결국 구렁텅이 속에서 죽었소. 그리고 그 지폐들은 그와 함께 썩어 갈 거요. 들었소? 내가 직접 말하고 있는 거요."

그 남자는 매우 평정된 어조로 말했다.

"관심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이방인은 밤이 되면 어떻게든 배를 채웠겠죠. 하지만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농부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저기 있는 우물 말고는 마실 물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밤마다 그 우물 앞을 지켰습니다."

"그건 샘물입니다. 샘이 어디에서 솟아오르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물이 스스로 우물 안으로 솟아올라올 만큼 수압이 충분하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우물 밖으로 나온 물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보시는 그 파이프를 통해 지하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집 안으로 보내져요. 부엌에서 쓰는 물이죠. 그러니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우물은 집에서 스무 미터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네 주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분수대로 다가가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물통은 땅바닥 위에 얹은 몇 장의 널빤지로 만들어졌고, 그 사이로 물이 천천히, 또렷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깊이가 서른 센티미터도 안 되겠네요?" 그가 물었다.

그는 측정을 위해 풀밭에서 짚조각 하나를 주워 물통 안에 세워 놓았다. 그런데 몸을 굽고 있던 그는 갑자기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 참 재미있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오? 그게 뭐요?" 구소뜨 주인이 물었다. 그는 마치 좁은 널빤지 사이에 누군가 누워 있는 줄 알 듯이 물통 쪽으로 재촉해 달려갔다.

그리고 구소뜨 부인이 빌었다.

"무슨 일이죠? 보셨어요? 그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도, 아래에도 없소."

외국인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농부와 아내, 그리고 네 아들의 재촉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주인도 함께 있었고, 외국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뒤따랐다. 모두들 놀라운 진실을 밝히려는 기대에 찬 침묵에 잠겼다.

"맞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였소. 그 남자가 목을 축이려다 보니, 우물 밖엔 물이 없었죠."

"잠깐만요." 구소뜨 주인이 투덜거렸다. "우리가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건 밤이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었는데,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도요."

"그럼 연못 물을 마셨다는 거요?"

"어떻게요?"

"멀리서."

"무엇으로요?"

"이것으로요."

그 낯선 이는 주워 들었던 짚 한 가닥을 들어 보였다.

"자, 보세요. 소비자의 흡입관입니다. 이 흡입관의 길이가 유난히 긴 것을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관은 밀짚 세 개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눈여겨본 바로 그 부분, 바로 이 세 개의 밀짚이 이어진 구조였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미친놈 같으니라니, 무슨 증거라는 말이야?"

구소뜨 선생은 격분하여 외쳤다.

모르는 남자는 벽에 걸린 총걸이에서 작은 카빈총을 내려받았다.

"장전되어 있나요?" 그가 물었다.

"네, 형제 중 막내가 참새 사냥용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작은 탄환이죠."

"좋아요. 엉덩이에 몇 발만 먹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위압적으로 변했다. 그는 농부의 팔을 꽉 쥐더니, 명령조로 말했다.

"가소뜨 선생님, 듣십시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녀석을 어떤 경우에도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 주 동안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아들들은 그에게 감옥 문을 열어주고, 아무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맹세하시겠습니까?”

“맹세합니다.”

그 신사는 다시 과수원 입구, 문설주에 서 있었다. 그는 재빨리 총을 어깨에 메고, 분수 위를 우뚝 선 체리나무를 향해 약간 높은 각도로 조준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멀리서 거친 비명이 터져 나왔고, 한 달 동안 주가지에 걸터앉아 있던 허수아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곧장 몸을 일으켜 온 힘을 다해 달아났다.

잠시 동안 모두 어쩔 줄 몰랐다. 그러자 놀람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들들은 재빨리 뛰어가 도망치는 남자를 따라잡았다. 남자는 헝겊 조각에 엉키고, 기아로 인해 힘이 빠져 있었지만, 이미 낯선 남자가 그들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만지지 못하게 해라… 아버지 트르냐르, 내가 너의 엉덩이를 너무 많이 간지럽혀 주지 않았나?"

그는 풀로 만든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 다리는 헐거운 옷감 조각으로 감싸져 있었고, 팔과 온몸도 같은 옷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는 천으로 감겨 있었고, 묶이고, 조이고, 부풀려져 있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인형처럼 단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도 코믹하고 예상치 못해서,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외국인은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거친 회색 수염이 온몸에 흩뿌려진, 해골처럼 야윈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에는 열병에 걸린 듯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돈! 지폐 여섯 장!"

농부가 명령조로 말했다.

외국인은 그를 한 발짝 물러서게 했다.

"잠깐만요.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트르냐르 아저씨?"

그는 칼로 풀과 천으로 된 묶음을 자르면서 농담을 던졌다.

"가엾은 친구, 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냈지? 너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썼어야 했을 거야.

첫날 밤, 그들이 잠시 내버려 둔 틈을 타서 저 옷을 입고 들어간 거지? 영리하군. 허수아비라니,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사람들은 그걸 나무에 걸어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하지만 옛날 친구, 너는 얼마나 고생했겠니? 엎드려 누워, 팔과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하루 종일 그 자세로 있었단 말이지. 정말 끔찍한 자세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니 얼마나 위험했겠니? 잠들 때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먹고 마셔야 했는데, 그럼 또 파수꾼의 숨소리가 들렸겠지. 총구 끝이 네 얼굴에서 딱 1미터 앞까지 다가와 있는 걸 느끼면서 말이야. 소름 끼치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너의 그 짚단 장치가 아니었니? 소음도, 움직임도 거의 없이, 옷에서 짚을 하나하나 뽑아 이어 붙여, 그 장치를 연못까지 던져 물방울을 한 방울씩 받아 마셨다니. 정말 감탄해서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야. 잘했어, 트리아르 노인!"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다만, 너 냄새가 너무 진하다, 친구. 한 달째 목욕 안 했니, 이 더러운 놈? 물이 널렸던 텐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했다.

"자, 너희는 내가 봐주마. 나는 손 씻으러 가겠네."

구소뜨 선생과 그의 네 아들은 손에서 놓아준 먹이를 재빨리 쟁취했다.

"자, 얼른 돈 내놔."

아무리 멍청해도 이 거지는 놀란 체할 기운을 짜냈다.

"왜 그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니?" 농부가 투덜거렸다. "지폐 여섯 장…… 내놔."

"뭐요? …무슨 소리를요?" 트라르나르 아비가 헛간거렸다.

"돈이야… 당장."

"어떤 돈이요?"

"지폐라고!"

"지폐라니?"

"아, 귀찮게 굴지 마라. 자, 아이들아…"

그들을 쓰러뜨렸다. 헐벗은 옷을 벗겨내고, 뒤지고,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도둑놈아!" 구소뜨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걸 어디다 숨겼어?"

노인 거지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었다. 자백할 만큼 영리하지 못한 그는 그저 신음하며 말했다.

"저희가 뭘 원한다는 건가요?… 돈이요? 전 내 돈으로 동전 세 개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자신의 옷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역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구소뜨 부부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를 구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농부는 그가 무서운 가시에 숨어들기 전에 돈을 숨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디다 숨겼냐, 이 괘씸한 놈아! 말해 봐! 과수원 어디 구석이야?"

"돈이요?" 길손은 바보 같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래, 돈이야. 네가 어딘가에 묻어 둔 돈 말이지… 아, 만약 그걸 찾지 못한다면, 너는 끝장이야… 증인들이 있잖아, 그렇지? 바로 너희들, 친구들이야. 그리고 그 남자도…"

그가 고개를 돌려 불렀다. 분수 근처, 왼쪽으로 서른에서 마흔 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는 낯선 남자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손을 씻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어 그는 깜짝 놀랐다.

"저기 갔나?" 그가 물었다.

누군가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요… 담배에 불을 붙이고서 과수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거닐면서요."

"아, 그럼 다행이야." 구소뜨 변호사가 말했다. "저 녀석은 돈권도, 사람도 찾아냈잖아. 이번엔 돈권을 다시 찾아내겠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니면… 무슨 뜻이야, 너?" 농부가 물었다.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말해 봐. 뭐라고?"

그런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의심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농부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낯선이가 헤베르빌에 나타나 자동차가 고장 난 척하며, 여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질문하고, 자신의 영지로 안내시킨 일련의 행동들. 이것이 미리 계획된 수작은 아니었을까? 신문에 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도둑이, 좋은 기회를 노리고 현장에 나타난 트릭은 아니었을까?

"정말 교활하군." 여관 주인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트라냐르 아저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겠지. 뒤져서."

"말도 안 됩니다." 구소뜨 선생이 헛기침을 섞어 말했다. "저쪽, 집 쪽으로 나가는 걸 누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과수원을 거닐고 있잖아요."

쇠약해진 모습의 마담 구소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뒷쪽 작은 문…… 저기요?"

"열쇠는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다시 돌려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다.

"세상에, 없네! 그가 훔쳐갔어."

그는 곧장 뛰어나갔다. 아들들과 여러 농부들이 그 뒤를 따랐다.

중간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엔진의 굉음이 들려왔다. 분명히 그 미지의 인물이 탄 차였다. 그는 운전사에게 저 먼 출구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지시해 둔 것이 분명했다.

구소 부부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 문짝 위에 빨간 벽조각으로 쓴 두 단어를 보았다.

"아르센 뤼팽."

구소 부부의 집요한 추궁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트라르낭 아저씨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스무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증언했다. 결론적으로 그에게 걸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몇 달의 징역살이로 그 일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그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석방되자마자 그는 비밀리에 통보를 받았다. 매 분기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각, 특정 도로의 특정 우물가에서 금화 세 루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라르낭 아저씨에게 그것은 곧 부와 다름없었다.

제9장

아르센 뤼팽 각하께서 당당히 아나스타지 드 사르조바르통드 공녀, 부르봉-콩데 공녀와의 결혼을 알리며, 성 클로틸드 교회에서 거행될 결혼 축복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르조바르통드 공작께서도 딸 아나스타지 공녀가 아르센 뤼팽 각하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분도……

사르조바르통드 공작 장은 떨리는 손에 든 편지 읽기를 끝내지 못했다.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마른 몸을 떨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 봐라." 그는 두 장의 종이를 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친구들이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제부터 거리마다 돌아다니는 글이 바로 이것이지. 어때, 앙젤리크? 이 비열한 짓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네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앙젤리크는 아버지와 닮았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다. 서른세 살의 그녀는 늘 검은 양모 옷을 입었다. 소심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머리가 유난히 작아 양옆으로 눌러붙어 보였고, 그 작은 얼굴에서 코만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그 좁은 공간에 대한 항의처럼.

하지만 그녀를 못생겼다고는 할 수 없었다. 눈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 눈은 부드럽고 진지했으며, 약간 슬픈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매혹적인 눈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깨닫자마자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비록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며 독단적으로 굴었지만,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오, 아버지, 이건 장난일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장난이라고? 세상이 다 떠들고 있단 말이야! 오늘 아침 신문 열 개가 그 끔찍한 편지를 싣고, 풍자적인 해설까지 곁들였어. 우리 가계도랑 조상들, 우리 가문의 유명한 죽은 자들을 꺼내 들며 비웃고 있어. 겉으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체하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파리의 수군거림거리가 됐어."

"내일이면 다 잊혀질 거예요."

"내일, 딸아, 앙젤리크 드 사르조-뱅돔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회자될 거라는 걸 기억해두게."

"아, 만약 내가 그 무례한 자是谁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때 하인 자크가 들어와 공작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던 공작은 수화기를 들어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응, 나야, 사르조-뱅돔 공작이지."

상대방이 답했다.

"공작 각하, 그리고 앙젤리크 각하께 사과드립니다. 제 비서의 실수입니다."

"네 비서?"

"네, 초대장 초안은 제가 작성해 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 비서가……"

"하지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공작님?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장래 사위인 제 목소리를요?"

"뭐라고?"

"아르센 뤼팽입니다."

공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르센 뤼팽… 바로 그 사람이야… 아르센 뤼팽…"

앙젤리크는 미소를 지었다.

"보셨죠, 아버지.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에요. 속임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공작은 다시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손짓을 하며 거리를 배회하며 소리쳤다.

"나는 고소장을 낼 거야!… 그 인간이 나를 장난감처럼 놀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만약 세상에 정의가 남아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행동해야 해!…"

다시 한 번 자크가 들어왔다. 그는 명함 두 장을 들고 있었다.

"쇼투아? 르쁘띠? 이름도 모르겠군."

"그들은 기자들입니다, 공작님."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일이야?"

"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 공작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놈들을 문밖으로 내쫓아!" 공작이 외쳤다. "수문장에게 말해라. 이런 하찮은 자들은 내 저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제발요, 아버지……" 앙젤리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딸아, 우리 좀 내버려 두어라. 네가 예전에 사촌 중 한 명과 결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일이 있은 바로 그날 저녁, 두 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신문 1면에 바르느 거리, 고대 사르조 바르동 가문의 저택으로의 그 '원정'을 다소 허구적인 이야기로 풀었다. 그는 노신사의 분노와 항의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오페라 극장 복도에서 취재했다는 아르센 뤼팽의 인터뷰를 실었다. 뤼팽이 반격했다.

나는 장인 후보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한다. 이 편지들이 배달된 것은 실례에 해당한다.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생각해라. 우리 결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인 후보는 5월 초를 제안한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너무 늦다. 여섯 주나 기다려야 한다니.

이 사건의 묘미를 더해주고, 집안 친구들이 특히 즐긴 부분은 공작의 성격 자체에 있었다. 그의 자존심, 그리고 그의 사상이나 원칙에 대한 타협 없는 태도 말이다.

사르조 백작가의 마지막 후손이자 브르타뉴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인 사르조 가문의 사람인 그는, 조부 대의 사르조 공작의 손자였다. 그 공작은 방드누아 가문의 여인과 결혼했지만, 루이 15세가 강요한 새로운 작위를 받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끝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장 공작은 구 체제의 편견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샹보르 백작을 따라 망명 생활을 했고, 늙어서도 부르봉 궁전 의석은 사양했다. 사르조 가문 사람은 자신의 동급자 사이에서만 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사건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격분하여 뤼팽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가능한 모든 형벌로 그를 위협했으며, 결국 자신의 딸에게 화를 돌렸다.

"봐라! 네가 결혼했어야 했는데!…"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 네 사촌 세 명, 뮈시, 드앙부아즈, 그리고 꼬르슈는 모두 명문가 출신이고 가문도 튼튼하며, 재력도 충분해. 그들은 여전히 너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어. 왜 그들을 거절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미모시엘은 몽상가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사촌들은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거나, 너무 평범하단 말이지!"

그녀는 꿈꾸는 여자였다. 어릴 적부터 혼자였기에, 할머니들 옷장 구석에 쌓여 있던 모든 기사 이야기와 낡고 진부한 옛 소설들을 다 읽

었다. 그녀는 삶을 동화처럼 보았다. 거기서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들은 언제나 행복했고, 다른 여자들만 죽을 때까지 오지 않는 약혼자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왜 사촌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했을까? 그들은 그녀의 지참금, 어머니가 물려준 천만 프랑만 원했을 뿐이었다. 차라리 평생 미혼으로 남아 꿈속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몸이 상하실 겁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일은 잊으세요."

그가 어찌 잊었겠는가. 아침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상처를 다시 깨웠다.

앙젤리크는 사흘 동안이나 놀라운 꽃다발을 받았다. 그 꽃들 사이에는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교 모임에 가는 길마다 친구들에게 붙잡혔다.

"오늘 건, 참 재미있네."

"무슨 말인가?"

"아, 장인의 또 다른 장난이지. 아직 모르시나? 여봐라, 읽어보게. '아르센 뤼팽은 상원 의회에, 자신의 성에 아내의 성을 더해 '뤼팽 드 사르조-방돔'이라 칭하도록 요청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등장했다.

"차르스 10세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보르본-콩데 가문의 작위와 문장을 계승하는 젊은 신부. 그녀는 그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다. 이에 루팡 드 사르조바르통데의 장남은 아르센 드 보르본-콩데 공작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다음 날, 광고가 실렸다.

"대형 린넨 상점이 사르조바르통데 부인의 혼수품을 전시합니다. 이니셜은 L.S.V."

이어 일러스트 잡사진이 하나 실렸다. 공작과 사위, 딸이 탁자를 둘러싸고 '피케' 도박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결혼식 날짜도 대대적으로 발표됐다. 5월 4일.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공개됐다. 뤼팽은 놀랄 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혼수금 액수를 알지 못해도, 눈을 감고도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노신사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뤼팽에 대한 그의 증오는 병적인 수준으로 커져 갔다. 비록 그 행동이 그에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우리는 그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평소 즐겨 쓰던 술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죠. 표현을 빌리자면, 공작閣下, 그는 당신을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술수요? 어떤 함정입니까?"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어, 냉정하게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협박에 의해 강요하려 합니다."

"아르센 뤼팽이 내 딸의 손을 청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실수를 저지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큰 실수'랄까요."

"어떤 실수 말입니까?"

"바로 그 죄를 지으라고, 당신에게 꼭 시키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장관?"

"귀하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공작 각하. 아니면 이 모든 소동이 짜증나시다면, 시골로 떠나셔서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으신 듯 평온하게 지내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노신사의 두려움을 한층 더 키우는 데 일조했을 뿐이었다. 뤼팽은 악마 같은 수법을 구사하고, 온갖 세계에 공범자를 거느린 무서운 인물로 보였다. 조심해야 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말수가 적어졌다. 옛 친구들의 문도 모두 닫아걸었다. 앙젤리크의 세 구혼자, 즉 무시 가문의 사촌들과 엠부아즈, 카오르슈 가문의 사촌들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서로의 경쟁심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지만, 여전히 매주 돌아가며 그를 찾아오곤 했다.

그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사와 마부들을 해고했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의 첩자들을 집안으로 들일까 봐 두렵다는 생각에 새 직원을 고용하지는 못했다. 그에게 40년 동안 충성을 바쳐 온 하인 자크는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구간과 부엌의 모든 잡일을 직접 도맡아 해야 했다.

"아버지, 제발요." 앙젤리크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다. "정말 무서워할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이없는 결혼을 강요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글쎄,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그럼 대체 뭐가 무서운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납치라든가, 도둑맞는다든가, 무력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지. 그 악당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스파이들이 득실거린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어느 오후, 그는 연필로 붉게 밑줄 그은 기사가 실린 신문을 한 통 받았다.

계약식 행사는 오늘 호텔 사르조-방돔에서 열린다. 아주 사적인 자리라, 몇몇 특권층만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다.

사르조-방돔의 미래 증인으로 라로슈푸코-리무르 공작과 샤르트르 백작이 참석한다. 아르센 뤼팽은 이들에게 자신의 협력을 기꺼이 약속한 인사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바로 파리 경찰청장과 상테 형무소 소장이다.

그건 너무했다. 열 분 뒤, 공작은 하인 자크를 보내 타이어 세 개를 가져오게 했다. 오후 네 시, 앙젤리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세 사촌을 맞았다.

파 드 뮈시. 몸이 굵고 둔하며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자크 드 앰부아즈. 마른 체구에 얼굴이 붉고 수줍음이 많았다. 아나톨 드 코르쉬. 키가 작고 야위며 병약해 보였다. 세 사람 모두 이미 노총각 신세라 우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기품도 없었다.

모임은 짧게 끝났다. 공작은 방어적 공세라는, 그러니까 방어용 공세라는 전체 작전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다. 그는 그것을 단호한 어조로 첫 번째 부분을 낱낱이 드러냈다.

"앙젤리크와 나는 오늘 밤 파리를 떠나 브르타뉴의 우리 땅으로 물러간다. 이 출국을 함께해 줄 너희 삼형제를 믿는다.

너, 드뵈와즈. 리무진으로 우리들을 마중 나와라.

무시, 너는 자동차를 몰고 와서, 내 하인 자신트와 함께 짐을 챙기도록 해라.

너, 꼬르슈, 오를레앙 역에서 10시 40분 기차의 침대칸을 예매해 두어라.

이해했나?"

하루는 무사히 저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누설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공작은 자신트에게 짐 한 개와 여행 가방 하나를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다. 자신트는 동행하며, 앙젤리크의 하녀 역시 함께 여행한다.

아홉 시가 되자, 주인장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십 시 십 분 전, 준비를 마쳐가던 공작은 자동차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다. 관리인이 중정(中庭)의 문을 열었다. 공작은 창문에서 파울 드앙부아즈의 랜들레를 알아봤다.

"내가 내려간다고 하시오. 그리고 미모자께도 알려주게."

잠시 후, 자크가 돌아오지 않자 공작은 방을 나섰다. 하지만 계단에서 두 명의 가면을 쓴 남자에게 습격당했다. 그들은 공작이 비명 한 번

지르기 전에 입에 천을 물리고 손을 묶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공작 각하. 만약 파리를 떠나려 하시고, 제 동의도 계속 거부하신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동일한 남성이 동무에게 명령했다.

"이 녀석을 맡아. 나는 이 아가씨를 처리하겠소."

그때 다른 두 동무들이 이미 하녀를 붙잡고 있었다. 앙젤리크도 입에 막을 물리고 기절해, 자신의 부엌에 있는 안락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향수를 맡으며 곧 깨어났다. 눈을 뜨자, 저녁 차림의 젊은 남자가 자신 위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띤, 친근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이런 일들이 좀 갑작스럽고, 이런 행동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죠. 하지만 circumstance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찬성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넓은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반지를 드린 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도망가지 않기를, 그리고 파리에 있는 저의 헌신을 기다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가 말하는 목소리는 무척 진지하고 존중 어린 어조였다. 권위와 예의를 동시에 담아냈기에, 그녀는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속삭였다.

"정말 맑고 아름다운 눈이군요. 그 눈빛 아래에서 산다는 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는 물러나갔다. 동조자들도 그를 따라 나섰다. 오토모빌이 다시 출발했고, 바르냉 거리에 있는 저택은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앙젤리크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하인들을 부를 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공작과 히아신트, 하녀, 그리고 관리부 부부를 모두 단단히 묶인 채로 발견했다. 고가의 소품 몇 점이 사라진 데다, 공작의 지갑과 보석, 핀, 넥타이, 진주 단추, 시계 등이 모두 도난당했다.

경찰은 즉시 통보받았다. 아침이 되자 어제 밤 공작이 자동차로 집을 나서던 중 운전기사의 칼에 맞아 반쯤 죽은 채 빈 거리로 내던져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무시와 꼬르슈는 공작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화 메시지를 받아 소집 해제됐다.

다음 주, 공사는 더 이상 수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조사 재판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르센 뤼팽이 언론에 발표한 '바르네스 도주 사건' 관련 보도 자료도 읽지 않았다.

그 대신 공작은 딸과 하인을 데리고 속임수처럼 바네스로 향하는 일반 열차를 탔다. 그리고 어느 저녁, 사르조 반도를 내려다보는 고대 중세 성채에 내려섰다.

그들은 곧바로 브르타뉴 농민들의 도움을 받아 저항 체제를 구축했다. 이 농민들은 중세의 진정한 봉신들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무시가 도착했다. 닷새째에는 코르슈가 왔고, 일곱째 날에는 상처가 걱정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드엠보이즈가 도착했다.

공작은 두 날을 더 기다린 뒤, 비록 뤼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탈출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이라 부르던 것을 측근들에게 알렸다.

그는 세 사촌들 앞에서, 앙젤리크에게 명하여 작성시킨 단호한 명령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길 원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게 큰 해를 끼친다. 나는 그 남자의 대담함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 그를 상대로 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 투쟁은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무엇이든 해서 이 일을 끝내고 싶다. 이를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앙젤리크, 너는 내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너는 네 사촌 중 한 명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 달 안에, 너는 무시, 카오르슈, 또는 앰보이즈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 너의 선택은 자유다. 결정을 내려라."

앙젤리크는 사흘 내내 울었고, 사흘 밤낮으로 아버지께 매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결국 자신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과 불행해지든 제겐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자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공작은 그녀가 직접 한 명을 선택하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쳐버린 공작은, 그리고 재산 문제를 고려한 끝에 드뫼부아를 지목했다.

결혼 공고가 곧장 발표되었다.

그때부터 성 주변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 뤼팽이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신문에서 전개하던 공세도 멈췄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사르조뷔동드 공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적은 분명 큰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평소 즐겨 쓰던 기교를 동원해 결혼을 방해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혼식 이틀 전에도, 하루 전에도,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결혼식은 시청에서 거행되었고, 이어 교회에서 축복식이 열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제야 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슬픔과, 그 상황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사위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기쁜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만족해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모두를 들여보내라!" 그가 히야신트에게 명령했다. "이 비루한 자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농부들에게 포도를 돌리고 그들과 잔을 부딪쳤다. 농부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세 시쯤, 그는 1층의 거실로 돌아왔다.

그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 그는 방 끝까지 걸어 가, 경비실 문턱을 넘으려 했다. 하지만 발을 디디자마자 그는 갑자기 멈춰 서며 외쳤다.

"당신, 거기서 대체 뭐 하는 거요, 드엠부아즈? 정말 재밌는 장난이군요!"

드엠부아즈는 서 있었다. 그는 브르타뉴 어부의 옷차림이었다. 더럽고 찢어진 바지와 조끼는 수선 자국이 가득했고, 그에게는 너무 크고 헐렁했다.

공작은 깜짝 놀란 듯했다. 그는 낯선 눈으로, 그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낯은 익었으나, 동시에 아주 먼 과거에서 온 희미한 기억들을 그의 마음속에서 깨워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광장을 내려다보는 창문 중 하나로 걸어갔다.

"앙젤리크!"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앙젤리크가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의 남편은?"

"저기 있어요, 아버지."

앙젤리크가 대답하며,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책을 읽고 있는 드엠보아즈를 가리켰다.

공작은 균형을 잃고, 큰 공포감에 떨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내가 미쳐가고 있군!"

그러나 어부 차림의 남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를 보세요, 삼촌! 제 얼굴을 알아보시겠지요? 저는 삼촌의 조카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놀았던 아이, 삼촌이 '자끄꼬'라고 부르던 그 아이 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세요, 이 흉터가…"

"그래… 그래, 삼촌은 너를 알아. 너는 자끄야. 그런데 저 사람은…"

노공작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설명해 봐. 이해가 안 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로 온 남자는 창문을 닫고, 인접한 살롱으로 이어지는 문도 잠그었다. 그러고는 노신사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며 그의 멍한 상태에서 깨워 주었다. 그는 번거로운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는 듯 곧장 입을 열었다.

"오빠, 기억나시죠? 제가 앙젤리크에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프랑스를 떠난 지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즉 제가 자발적으로 추방된 지 11년째 되던 해, 알제리 남부 끝자락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큰 아랍 부족장의 사냥 모임에서 저는 한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과 매력, 놀랄 만큼 뛰어난 솜씨, 그리고 끊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안드레지 백작은 내 곁에 여섯 주나 머물렀다. 그가 떠난 뒤로 우리는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았다.

더욱이 나는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자주 봤다. 사회면이든 스포츠면이든 말이다. 그는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삼 달 전의 일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말타기를 하고 있었다. 나를 따라나선 두 명의 아랍인 하인이 갑자기 나를 덮쳤다. 그들은 나를 묶고 눈을 가린 뒤, 황량한 길만 몇 번이나 돌아 일곱 밤 일곱 날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안가의 한 만(灣)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다섯 명의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나를 작은 증기 요트 위에 태웠다. 요트는 망설임 없이 바로 출항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나를 납치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안내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나를 좁은 선실 안에 가두어 놓았다. 선실 창문에는 철제 봉이 십자 모양으로 가로질러 있었다.

매일 아침, 옆 선실과 우리 선실 사이의 작은 창문을 통해 식량이 들어왔다. 이불 위에는 빵 두세 킬로그램과 푸짐한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였다. 그리고 어제 남은 음식들을 수거해 갔다.

밤이 깊어 가끔씩 요트는 멈춰 섰다. 보트가 뭔가의 항구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다시 돌아오는 소리도 들렸다. 아마 식량을 싣고 온 것이리라. 그러곤 다시 출항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부유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유람을 즐기며, 도착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듯한 태도였다.

한 번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통해 해안선의 윤곽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도대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아홉 번째 아침 중 어느 날, 나는 통신용 구멍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선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애써 손톱깎이를 세면대 위에서 집어 들었다.

이틀 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끝에 나는 창문의 철창을 갈아내고 탈출로를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수영을 잘해도 금방 지친다. 그래서 요트가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때를 노려야 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지키고 있던 자리에서 해안선을 발견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르조 성의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이다. 뾰족한 탑들과 거대한 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곳이 바로 내 신비로운 여행의 종착역이었을까?

"저녁 내내 우리는 먼 바다에서 서로의 배를 피하며 항해했다. 어제 하루 종일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아침이 되자, 나는 도망치기에 딱 좋은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게다가 우리는 암석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숨어 수영하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도망치려던 순간,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한 번 닫혔다고 생각했던 통신용 구멍이 스스로 다시 열려 있었고, 그 문이 벽에 부

딪히며 요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해 나는 그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팔이 닿는 곳에는 작은 찬장이 있었다. 나는 찬장을 열었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무작정 안을 뒤졌다. 그러다 한 뭉치의 종이를 잡았다."

그것은 편지들이었다. 내가 감금되어 있던 강도들이 받은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편지들이었다.

한 시간 뒤, 해치구를 넘어 바다로 몸을 맡겼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납치당한 이유, 사용된 수단,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목적까지. 그리고 삼 개월 동안 사르조뷔르봉 공작과 그의 딸을 향해 꾸며 온 끔찍한 음모의 전모였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암초의 틈새에 몸을 숨긴 채로, 나는 정상이가 되어서야 했다.

낚시꾼의 오두막에 다다라 옷을 바꿔 입고, 이곳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 시였다.

그때 나는 결혼식이 이미 그날 아침에 치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령의 신사는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를 똑바로 응시한 채, 그는 점점 커지는 공포에 떨며 듣고 있었다.

가끔 그의 머릿속에는 경찰청장이 던졌던 경고가 떠올랐다.

"공작 각하, 당신을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요리하고 있다고요."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라… 끝까지 말해라…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른다…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무섭다."

낯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 일은 쉽게 재구성할 수 있고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안드레시 백작이 저를 방문했을 때, 제가 저지른 실수인 듯하지만 그에게 털어놓은 비밀들 덕분에 그는 몇 가지를 눈치챈 것입니다.

첫째, 제가 그의 조카라는 점, 하지만 그가 저를 그리 잘 알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사르조에서 떠났고, 지난 15년 전 몇 주 동안 여기서 머물며 사촌 앙젤리크에게 청혼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우리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으니까요.

둘째, 저는 과거와 모든 단절했으며 더 이상 편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셋째, 안드레시 백작과 저 사이에 외모적 유사성이 있어, 이를 부각시키면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 아랍인 하인 둘을 매수해, 제가 알제리를 떠날 경우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외모를 그대로 빌려 파리로 돌아와, 백작의 집에 정기

적으로 초대받아 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그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는 수많은 가면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삼 개월 전, 그의 편지에 나온 말마따나 '과일이 익었으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언론 기사를 통해 공세를 펼쳤고, 동시에 파리에선 제 이름으로 위장한 그의 행각이 알제리에서 폭로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저를 때리게 한 뒤, 동조자들에게 저를 납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삼촌?"

사르조뷔동드 공작의 신경이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자, 그것은 혐오스러운 적의 얼굴로 변해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대화 상대의 손을 꽉 쥐며, 날카롭고 절박한 어조로 외쳤다.

"뤼팽이군, 그렇지?"

"네, 삼촌."

"그리고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는 말인가!"

"네, 삼촌. 제 이름인 자크 드엠부아즈를 훔쳐간 자, 그리고 삼촌의 딸을 빼앗아 간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앙젤리크는 아르센 뤼팽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삼촌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여기 있는 그의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삼촌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삼촌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밤의 꿈과 새벽의 생각'을 잠식했습니다. 삼촌의 저택을 약탈했고, 삼촌이 두려움에 떨며 이곳으로 피신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삼촌이 자신의 술수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딸에게 세 사촌 중 한 명을 남편으로 선택하라고 명했죠. 뮈시, 드엠부아즈, 혹은 카오르슈 중 하나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 다른 두 사람보다?"

"삼촌이 선택한 거죠."

"우연이었어. 더 부유했으니까."

"아니요, 운에 맡긴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인 자신탕이 간교하고 집요하며 매우 능숙하게 조종한 결과죠."

공작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뭐? 자신탕이 공범이라니?"

"아르센 뤼팽의 동맹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뤼팽이 드엠부아즈라고 믿는 남자의 편이죠. 그 남자는 결혼식 일주일 뒤에 자신탕에게 십만 프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간악한 놈! 모든 걸 미리 계산하고 준비했군."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삼촌. 심지어 자기에 대한 암살 시위를 연출해 의심을 돌리기도 했고, 주님을 위해 다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왜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앙겔리크는 천만 프랑을 가지고 있소, 삼촌. 파리의 공증인이 다음 주에 엠보아즈라는 가명을 쓴 자에게 증권을 건네고, 그 자금이 곧바로 현금화되어 사라질 예정이었소. 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은 그에게 개인 선물로 소지인 채권 오십만 프랑을 건넸소. 오늘 밤 아홉 시, 성 밖 그랑슈네 근처에서 그는 그 채권을 동급에게 건네고, 그 동급은 내일 아침 파에서 이를 현금화할 예정이오."

사르조뷔동 공작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발을 구르며 분노에 찬 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아홉 시라니? 보자고. 보자고. 그 때까지… 나는 군대에 알리겠소."

"아르센 뤼팽은 군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소."

"파리에 전보를 치자고."

"네, 맞아요. 하지만 오십만 프랑이 문제죠. 무엇보다도 스캔들입니다, 삼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삼촌의 딸, 앙젤리크 드 사르조 바당드가 이 사기꾼, 이 도적과 결혼한다니… 아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요?"

이어서 조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러 총기가 걸려 있는 총걸이 쪽으로 걸어가, 한 자총을 내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노신사 옆에 말이다.

"삼촌, 저 멀리 사막 끝자리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카빈총을 들고 나서 맹수를 쏘아 죽입니다. 안 그러면 그 맹수가 발톱으로 우리를 짓밟고 말 테니까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저기서 헌병들을 무시하는 버릇이 생겼소. 조금은 간략한 방식이지만, 믿으시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사건에서는 유일한 방법일 뿐이오. 짐승이 죽으면, 당신과 내가 어디 구석진 곳에 묻어 버리면 되죠. 아무도 모르게."

"앙젤리크는?"

"우리가 나중에 그녀에게 알리겠소."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지금의 신분, 즉 법적으로 나의 아내, 진정한 드뫼부아즈의 아내로 남을 거요. 내일 나는 그녀를 버리고 알제리로 돌아가겠소. 두 달 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테니."

공작은 창백한 얼굴로, 눈은 고정된 채, 턱은 굳게 다물고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배의 공범자들이 당신의 탈출을 미리 알리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소?"

"내일까지는 모를 거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오늘 밤 아홉 시가 되면 아르센 뤼팽은 그랑쉬앵으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옛 성벽을 따라 도는 순찰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길은 예배당 유적을 둘러도는 길이지요. 저는 그 유적지 안에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사르조바르동드 공작은 단호하게 말하며 총을 벽에서 내려 들었다.

이때는 오후 다섯 시였다. 공작은 조카와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다가, 무기를 점검하고 재장전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어두운 복도를 통해 조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옆의 작은 방에 숨겨 주었다.

오후의 끝자락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저녁 식사가 열렸고, 공작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때때로 그는 눈치를 보며 사위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진짜 드뵈즈 공작과 얼마나 닮았는지 볼 때마다 놀라웠다. 피부 빛깔도, 얼굴 생김새도, 머리카락 스타일도 똑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이 남자의 눈은 더 날카롭고 더 빛나 보였다. 시간이 지나자 공작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작은 단서들을 하나둘 발견했다. 그것들은 이 남자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은 흩어졌다. 시계는 여덟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작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카를 풀어주었다.

십 분 후, 어둠을 가려 그들은 총을 든 채 폐허 한복판으로 숨어들었다.

앙젤리크는 남편과 함께 성채 왼쪽 날개에 붙은 탑의 1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문턱에서 남편이 말했다.

"조금 산책 좀 할게, 앙젤리크. 돌아왔을 때 나를 만나주겠나?"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남편은 그녀를 떠나 1층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그에게 할당된 것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열쇠로 잠그고, 시골을 내려다보는 창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그는 40미터 아래, 탑 밑바닥에 한 줄기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가벼운 휘파람 소리가 답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찬장에서 두꺼운 가죽 서류가방을 꺼냈다. 가방은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것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끈으로 동여맸다.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메시지를 받았으니 안심이다. 거대한 서류 더미를 안고 성을 나서는 건 위험하니까."

"이제 여기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아침 브뤼셀 행 기차에 타면 된다. 거기서 Z에게 가치를 전달하면, 그는 곧바로 이를 현금화할 것이다."

"후사. 그랑슈네를 지나갈 때 동무들에게 내가 곧 합류할 것이라고 전하라. 그들에게 줄 지시가 있다. 어쨌든 상황은 완벽하다. 여기선 아무도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다."

그는 편지를 서류 더미에 묶고, 끈을 이용해 창문 너머로 모두 내려보냈다.

'좋아. 이제 끝났다. 안심이다.'

그는 몇 분 더 기다리며 방 안을 거닐었다. 벽에 걸린 두 영주의 초상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호라스 드 사르조-방돔, 프랑스 원수…… 대공작 콩데…… 안녕, 나의 선조들이여. 뤼팽 드 사르조-방돔은 당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시간이 차자, 그는 모자를 쓰고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서 앙젤리크가 자신의 방에서 나타나, 얼굴이 어지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들으세요…… 제발…… 그건……"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그녀를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

'병에 걸린 게 분명해.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맞지 않는 모양이야.'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줘야 할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

'불쌍한 앙젤리크! 이 모든 것은 결국 이혼으로 끝날 거야……'

밖은 어둠이 깔리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가문들은 성의 창문에 닫개를 내렸다. 성주는 식사 후 곧장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어, 창문에서는 빛이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경관 주막을 지나 도개교 위로 들어섰다.

"문을 열어두게. 잠깐 돌아다니다 올 테니까."

순찰로는 오른쪽으로 꺾였다. 옛 성벽을 따라, 한때 성을 훨씬 더 넓은 제2의 성채로 둘러싸던 유적지 옆을 지나, 오늘날 거의 무너져 내린 작은 문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이 길은 언덕을 돌아서더니, 이어 급경사의 계곡 옆을 따라갔다. 왼쪽에는 울창한 수풀이 길게 늘어섰다.

"암습하기 딱 좋은 곳이지. 말 그대로 강도들의 천국이야."

그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그래도 돌 하나가 경사면을 굴러내려 바위 투성이의 지형을 튕기며 내려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반도 너머 평야 위로 바다의 선선한 공기가 그의 코끝까지 밀려왔다. 그는 기쁨에 차 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젊고, 귀족 가문의 후예이고, 수백만 부자다. 뤼팽 드 사르조-방돔에게 더 좋은 꿈을 무엇으로 꾸겠는가.'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서, 그는 길보다 몇 미터 높게 솟은 예배당 폐허의 더 짙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계가 아홉 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다시 멈춰섰다.

한 사람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 몸을 풀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가 스치던 나무 무리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고,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조용히… 말하지 마…"

그는 아내 앙젤리크의 목소리임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기도 힘들게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 폐허 안에 총을 들고 있어요…"

"조용히… 들어봐…"

그들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저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걸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제 뒤를 따르십시오!"

그녀의 어조가 그렇게도 명령조라서, 그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놀라 떨었다.

"달려요… 저들이 오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사실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를 여전히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은 채,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녀는 어둠과 가시덤불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지름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빠르게 인도로 다다랐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팔에 감았다. 경위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큰 마당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그를 둘이 함께 머물던 모서리 탑으로 인도했다.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집?"

"네."

하녀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삼층의 방으로 물러났다.

거의 즉시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앙젤리크!"

"아버지이신가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 네 남편이 여기 있느냐?"

"방금 들어왔어요."

"그에게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주라. 내 집으로 오라고 해. 급한 일이다."

"알겠어요, 아버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은 나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아버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의 길을 막으며 급하게 말했다.

"누가 함께 있죠?"

"조카인 자크 드뵈부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소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의문을 파고들 시간도 없이, 그는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훌륭하신 드뵈부아 씨가 있군? 그럼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 셈이군. 아니면……"

"아버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녀가 말했다.

"방금 전,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조카가 편지를 읽어주었죠. 처음엔 당신에게 알릴지 말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는 다시 그녀를 살펴봤다. 하지만 곧 상황의 기묘함에 사로잡혀, 다시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배에 타고 있던 친구들이 내 편지를 태우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있던 포로를 놓쳐버렸다고? 바보들! 정말, 다 직접 손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야……. 어쨌든, 이건 재미있군. 드뵈이즈가 드뵈이즈를 상대하다니. 어라?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됐다면 어떡하지? 드뵈이즈 자신이 나를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면?"

그는 세면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수건을 집어 물에 적신 뒤 비누칠을 하고는, 손재주가 빠른 듯 얼굴을 문지르며 메이크업을 벗겨냈다. 머리카락의 흐름도 살짝 바꿔치기했다.

"됐군."

그가 나타나자 앙젤리크는 파리에서 도둑맞은 밤에 보았던 그대로의 그를 보게 되었다.

"이제야 편하게 장모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문 앞에 쫙 서서 막아섰다.

"음, 저쪽 신사들한테 합류하러 가는 거지."

"당신은 지나갈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다니?"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을 죽이고 시신을 어딘가에 숨기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좋아요." 그가 말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를 찾아올 테니까요. 이 문이 그들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차피 끝내야 한다면 지금이 낫죠."

"따라오세요." 앙젤리크가 명령했다.

그녀는 둘을 비추던 램프를 들어 올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퀴가 숨겨진 거울장을 밀어냈다. 낡은 벽지를 젖히며 그녀는 말했다.

"이 문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벽에 뚫린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탑의 가장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 달려 있는 빗장을 당기면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앙젤리크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했다. 슬프고 못생겼지만, 그토록 부드러운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당황해했다. 거의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더 이상 웃을 생각이 없었다. 뉘우침과 선함이 섞인 존경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왜 저를 구해 주시는 겁니까?"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그가 반박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호칭은 제가 훔친 거예요. 법은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스캔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저도早就 그런 모든 상황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당신 사촌인 엠부아즈의 귀족을 근처에 데려다 둔 거죠. 제가 사라지면, 그는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됩니다. 세상의 눈앞에서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앞에서 결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교회? 교회 말인가요? 교회에도 타협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에게는 사소한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었다. 그는 여러 번 중얼거렸다.

"정말 끔찍하군요… 정말 끔찍해요… 제가 미리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손을 치며 외쳤다.

"됐어! 내가 해결했어. 바티칸의 주요 인물 중 한 명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교황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 면담을 얻어내고, 성하의 감동적인 호소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계획은 너무 코믹했고, 기쁨은 너무 순진해서 앙젤리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멸이나 적대감, 심지어 분노조차 담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도적이나 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사제가 맺어준 남편으로서 죽음이 이르는 순간까지 함께할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지금까지 본 어떤 얼굴보다도 더 감동적인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얼굴에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품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처음 만났던 밤과 똑같은 말을 건넸다.

"오, 당신의 눈이여……. 차분하고 슬프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눈이여."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는 그녀가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더 어둡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었다. 미혼의 노처녀로서, 낭만적인 상상력이 풍부했고, 이루지 못한 꿈과 시대에 뒤떨어진 책들만 읽으며 살아온 여자였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이 특별한 순간, 그리고 그들 만남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존재로 비쳤을까?

그는 바로 바이런식 영웅, 낭만적이고 의협심이 강한 도둑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여러 장애물을 뚫고 유명 모험가로서 이미 전설로 승화된 그는, 자신의 용감함으로 더욱 크게 빛나며 그녀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혼례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마치 코르세르와 에르마니의 시대처럼 신비롭고 열정적인 약혼식과도 같았다.

감동에 사로잡힌 그는, 격정을 이기지 못해 외치고 싶었다.

"갑시다! … 도망합시다! … 당신은 나의 아내요, 동반자입니다. 제게 닥칠 위험과 기쁨, 그리고 공포를 함께 나누세요. 그건 기묘하고 강인하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랍니다."

하지만 앙젤리크의 눈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은 너무도 순수하고 당당했다. 그는 오히려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여성에게 그런 말을 건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용서하십시오. … 저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보다도 기억하기 싫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아니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오히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그녀에게 묻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그의 앞길을 열어 보였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갔다.

한 달 후, 앙젤리크 드 사르조-방돔 공주, 즉 아르센 뤼팽의 합법적인 아내였던 그녀는 수도복을 입었다. 수녀 마리아-오귀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도미니코 수녀원 깊숙이 묻혔다.

그 의식과 같은 날, 수녀원 원장은 두꺼운 봉투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녀 마리아-오귀스트를 위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투 안에는 백만 프랑 지폐가 오백 장 들어 있었다.